

다 함께, 손에 손잡고

2023.  
August  
vol.456



# 다 함께, 손에 손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에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페리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과 협력한다는 것, 그래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명제는 ‘같이의 가치’라는  
‘위대한 탄생’을 목격하게 해줄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함께**한다는 건,

더 많은 **가치**를

**만든다**는 것

# Contents

2023.  
August  
vol.456

다 함께,  
손에 손잡고



IBK사보를 웹진으로 만나보세요

with IBK  
IBK MAGAZINE

발행일 2023년 8월 4일 발행인 은행장 김성태 편집인 조민정, 김태경 편집위원 이명환, 정누리 발행처 홍보부 편집디자인 더에이치(주)

\*외부 필자의 원고는 <with IBK>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with IBK>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은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0

### 62주년 기념사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향해  
가치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 14

### 62주년 기념식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

## 18

### 62주년 홍보영상

新비전과 가치금융의  
철학을 담다

## 22

### 62주년 앙케트

난 이럴 때 애사심 뽐뽐 느낀대!

## 28

### 62주년 4행시

행복한 동행, 함께한 가치  
창립 62주년 기념 4행시

## 34

### 62주년 축하메시지

IBK기업은행 직원들의 축하메시지  
62번째 은행, 잠실지점 축하메시지

## 40

### 에세이

다 함께, 손에 손잡고

## 44

### 슬기로운 생각

오래된 책 속에 숨은 미래의 지혜

## 50

### IBK가 만나다

작은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가수 선

## 56

### IBK NOW

IBK인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 64

### IBK업글인

노래의 날개 위에  
가산디지털역지점 송희상 대리

## 72

### IBK맛집노트 ㉔

강원도·경기북부편

## 78

### 발길 닿는 길(국내편)

현재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미래로 타임슬립  
군산 근대문화유산과 선유도

## 84

### 발길 닿는 길(해외편)

절벽 위, 푸른 에게해의 골목을 걷다  
그리스 산토리니

## 90

### IBK산 ㉔

자연의 경이로움을 실감하다, 황석산  
이열치열 정신으로 무더위 정면돌파

## 98

### IBK버킷리스트

여름 안에서? 파도 위에서!

## 106

### IBK핸드메이드

우리만의 개성 넘치는 티셔츠를 만들다!  
금융소비자보호부 CS추진팀

## 114

### 카툰으로 보는 역사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 이서구

## 116

### 요즘, 시선

MZ세대의 소비 놀이터 팝업스토어

## 120

### IBK히어로

‘비이자이악’ 세계의 프로들 수탁사업부

## 130

### 히든챔피언

파인 스테이 큐레이션의 시작 스테이플리오

## 136

### 창공, 날다

상상하고, 도전하고, 혁신하는 IBK창공 기업  
(주)메타텍스처, (주)피처링, 주식회사 유앤소프트, (주)와이오엘

## 142

### 사소한 꿀팁

돈 되는 습관 생활 속 전기요금 절약

## 146

### 우리말 한 걸음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

## 148

### HOT ISSUE

2023 IBK FESTIVAL  
입크 페스티벌로의 초대

## 152

### IBK뉴스

이달의 뉴스

## 154

### 이달의 이벤트

이달의 N행시 / 이달의 인증샷





분홍 튜립 꽃말

애정, 존중, 배려라는 깊은 애정

IBK기업은행이  
창립 62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중소기업과 고객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으며  
기회의 마중물로  
국책은행의 소임을 다해온 IBK기업은행

그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한  
IBK인들의 근면과 성실  
그리고 끈기가 있었습니다.

숫자 '62'에 담긴  
소중한 의미를 잘 알기에  
오늘도 IBK인들은  
묵직한 감동과 울림 큰 행복을 위해  
새로운 도약이란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을 축하하는  
힘찬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 향해 가치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보다 가치 있는 금융의 실현, 가능성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IBK,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IBK기업은행의 도전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될 소임이다. 그 원천은 가능성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IBK정신에 있다.

최리 편집실

**IBK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기업은행의 예순두 번째 창립기념일입니다. 자본금 2억 원의 작은 씨앗에서 출발한 기업은행이 어느덧 자산 500조 원을 바라보는 큰 나무로 성장하였습니다. 모두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은행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은행 발전과 직원 행복을 위

해 함께 힘써주시는 김형선 노조위원장님과 간부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기업은행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부를 비롯한 주주님과 유관기관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은행을 믿고 변함없이 큰 힘이 되어주신 고객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IBK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도전

우리 기업은행은 지난 62년간 중소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누구보다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며 산업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고, 국가적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중소기업 위기극복에 적극 앞장서며 중소기업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면서 우리의 실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고, 그 역량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결 같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능성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IBK 정신」을 통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100대 은행에 6년 연속 선정되었고, 그 어떠한 인수합병도 없이 총자산 5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래를 담보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낯설고 새로운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패권경쟁 시대를 맞아 글로벌 산업과 공급망 구조가 재편되며 우리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융산업도 규제개혁과 테크기업 진입 등으로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촉진되고 있으며, 디지털 뱅크런이라는 신조어처럼 은행의 공든 탑도, 신뢰에 문제가 생기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 위기 때면 움츠러들었던 경쟁자들이 이제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고, 개인금융에 안착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기업금융으로 지평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향후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바로 지금이 「가능성에 도전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IBK 정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첫 출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1만 4천여 임직원 모두가 그때 가졌던 갈망과 간절함, 그 초심을 견지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이

라 생각합니다. 60여 년 전에는 너무도 원대했던 글로벌 100대 은행의 꿈을 이루어냈듯, 처음과 같은 그 마음과 노력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당부 드립니다.

## 가치금융!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한 새로운 길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는 **가치금융**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가치금융이란 고객의 이익이 IBK와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연결되어 고객과 사회, 직원과 은행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 금융입니다.** 이것은 재무성과뿐 아니라 고객신뢰, 사회적 책임까지 포괄하여 세밀하게 균형을 맞춘다는 개념입니다. 균형 있고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갖추어야 은행으로서의 IBK 본연의 역할도, 또 시장을 선도할 지속적인 혁신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치금융의 핵심 요체는 튼튼한 은행, 반듯한 금융, 행복하고 보람있는 조직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이를 실현하기 위한 IBK 밑그림을 그렸고 얼마 전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도 단행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가치금융 실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때입니다. 튼튼한 은행은 개념 그대로 건전하고 우량한 은행으로서 어떠한 환경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은행입니다.

##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세계적으로도 가장 잘 할 수 있는 중기금융시장을 강하게 선도해 나가야 합니다.

기업의 성장단계 쏠주기별로 금융-비금융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 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혁신기업 발굴과 유망기업의 성장·발전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정책금융기관 등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정책금융의 시너지도 제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도 힘을 쏟아 기업의 애로 해소와 함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비금융서비스



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각종 상품·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적극 추진하고 서비스 범위를 ESG 및 디지털 전환 분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종합지원 체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IBK캐피탈과 투자증권, 연금보험, 자산운용 및 저축은행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IBK금융그룹 차원의 종합서비스 추진전략을 차질 없이 실행함으로써, 원스톱 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중기지원 전문금융그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음으로, 튼튼한 은행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실경영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조기경보의 고도화를 통해 자산의 부실위험을 낮추는 한편, 사이버 보안의 치밀한 대응과 경쟁력을 높여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이어가야 합니다.**

모든 업무 추진 시에는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보유한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익성 관점의 면밀한 업무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균형성장을 통해 백년은행의 초석을 다지는 것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기업금융과 개인금융 이자수익과 비이자수익 은행과 자회사 국내외 글로벌이 적정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부족한 부문의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인고객과 자산가고객의 관리 강화를 통해 개인금융과 자산관리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고, 조직이 강화된 카드와 연금부문의 경쟁력과 혁신성을 높여 영업현장과 본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비이자 부문의 시장경쟁력을 조속히 반등시켜야 합니다.

자회사는 은행과의 시너지를 발판으로 스스로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은행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자산 및 수익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글로벌 부

문 역시 국내기업 진출 생산거점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확충함과 동시에 현지화 노력을 경주하고, 베트남과 폴란드의 법인전환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 중심으로 가시적인 결실을 맺어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금융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필요에 의해 가고, 가지 않고 할 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부문에서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뒤처지는 경우에는 바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그간 디지털 전환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고 상당 부분 성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멍니다.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해야 비대면 고객경험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지속성장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반영해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디지털 채널을 기업과 개인고객그룹으로 전진 배치하고, 급속도로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IT와 AI, 빅데이터 조직도 강화하였습니다.

본부에서는 디지털 전환 관련 모든 부문을 면밀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야 합니다. 영업점은 더 많은 고객들이 IBK의 디지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고객의 의견도 본부로 잘 전달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어 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치금융 실현을 위한 또 다른 한 축은 반듯한 금융입니다. 반듯한 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먼저 고객 신뢰를 향한 내부통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내부통제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고 본점 부서間, 본점과 영업점間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계속 보완해 나가는 물 썰 틈 없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체계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실질적인 행동도 따라줘야 합니다. 특히, 본점은 '은행권 내부통제 개선 TF 주요과제' 이 외에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체계 마련 및 고도화에 더 집중해 주시고, 영업점은 자점감

사 등 현장에서 맡은 바 실행에 집중하며 이러한 체계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직원이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프로세스 상의 허점이나, 사고발생 가능성을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의 신뢰를 굳건히 지켜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시민으로서 IBK 방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적 금융을 강화해야 합니다. 서민금융의 취급비중을 확대함은 물론, 점포의 유연성과 혁신성을 강화하고 비대면 서민금융 상품의 활용도도 제고하여 금융취약계층의 금융기회 및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포용적 금융의 온기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자체적인 사업과 함께 대외기관과 연계한 상생금융도 적극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상생의 노력은 금융을 넘어 각종 사회공헌사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중기근로자 복지증진을 중심으로 한 약자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하여 안으로는 ESG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밖으로는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여 글로벌 ESG 리딩뱅크를 향해 차질 없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일류 금융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있는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먼저, 직원에게 희망을 조직에는 활력을 주는 인사를 확립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인사혁신 TF를 통해 직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16개의 과제를 선정하였고, 부행장·본부장 후보심사위원회 신설과 부점장급 행내공모 확대 등은 바로 적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격지 스코어링 제도, 인사정보 공개 등 인사혁신의 동력을 꾸준히 이어나가 직원이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원이 균등한 기회 속에서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업무환경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업무 분야별 인재 육성 로드맵을 확립하고 인사와의 연계성도 보다 강

화하여 지속가능한 경력개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개선하고 직원이 고부가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환경 구축에도 힘써,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 속에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활기찬 조직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이 긍지를 가지고 신뢰와 화합 속에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과의 다양하고 진솔한 소통을 통해 직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은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직원고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상담 체계를 확립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을 확충하여 어려움에 처한 직원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IBK 가족 여러분!**

저는 얼마 전, 충북 옥송의 수해현장을 찾아 위로와 함께 구호물품을 전하고 왔습니다. 지역주민과 기업인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영업 현장에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에 도전하는 많은 고객님들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에게 희망의 가치를 심어주고 새로운 미래를 밝혀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IBK를 보다 가치 있는 금융을 실현하는 은행으로 만들어간다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능성에 도전하고, 끊임 없이 혁신하는 IBK 정신**으로 똘똘 뭉쳐, **최고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가치금융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갑시다.**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가 더욱 많이 열리고 보람과 행복이 가득 넘치는 IBK를 만드는 데에도 제가 맨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IBK기업은행 은행장

김성태

#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

IBK기업은행이 8월 1일 서울 을지로 본점 대강당에서 김성태 은행장과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은행장은 “IBK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밝히며 “가치금융을 통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의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정리 편집실

## 임직원 헌신과 노고에 감사

중소기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누구보다 가장 먼저 뿌리를 내리며 산업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온 IBK기업은행이 창립 62주년을 맞았다. 김성태 은행장은 기념사에서 “IBK기업은행은 지난 62년간 한결같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며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으로 낫설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자”고 밝혔다. 특히 김성태 은행장은 “그동안 함께 걸어온 임직원, 정부 및 주주, 유관기관, 고객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 감사







### 선순환의 가치금융 실현

한편 “처음과 같은 그 마음과 노력으로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을 향해 함께 나아가길 당부”한 김성태 은행장은 가치금융 실현을 위해 “튼튼한 은행, 반듯한 금융, 행복하고 보람 있는 조직”이라는 3개의 전략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중기금융 시장선도, 균형 있는 내실경영, 고객신뢰 확립,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행복하고 보람 있는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소임을 밝혔다.

신뢰



혁신

###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

국가적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마다 중소기업 위기극복에 적극 앞장서며 중소기업 금융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IBK기업은행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해 왔다. 김성태 은행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들과 총자산 50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창립 62주년을 맞은 지금 이 순간도 ‘도전과 혁신의 IBK정신’으로 낮설고 새로운 환경에 대처해야 할 때”라며 “고객과 사회, 직원과 은행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선순환의 가치금융을 통해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 IBK홍보영상

# 新비전과 가치금융의 철학을 담다



IBK기업은행의 주요 성과 및 비전을 대내외 홍보할 수 있는 ‘2023년 공식 홍보영상’이 제작됐다. “최고의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이라는 IBK기업은행의 新비전을 담은 이번 홍보영상에서는 혁신, 리딩(Leading), 성장을 키워드로 희망적이고 산뜻하며 트렌디한 퍼스널리티로 IBK기업은행의 가치금융 철학을 감각적인 영상미로 담아냈다.

정의 편집실



## 튼튼한 은행, 시장 선도

먼저 3대 핵심분야 150조 자금공급, 중소기업 통합 금리감면 패키지 등 고금리, 고물가 상황 속에 부담이 가중되는 중소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공급 확대, 맞춤형 금융지원 등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IBK기업은행의 ‘위기극복 및 지속성장 금융지원 강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중소기업 M&A 플랫폼의 혁신적인 방법으로 ‘중기 M&A 생태계 조성 및 시장 선도’ 등 중기 성장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이외에도 IBK 1st LAB의 ‘전략적 제휴, 투자 확대’, (녹색전환) 중소기업 특화형 ESG평가모델 도입 및 (DT) IBK BOX 활성화 추진의 ‘중소기업 녹색전환 및 DT지원’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무게를 뒀다. 무엇보다 지역 혁신창업기업 발굴을 위한 IBK창공PLUS 신설에 관한 ‘기술력 우수 혁신기업 발굴 육성 보호’, 모험자본 2.5조 원 공급 등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통한 기술기업 성장 견인’이라는 기술 생태계 활성화로써 시장을 선도하는 IBK기업은행을 강조했다.







## 튼튼한 은행 · 반듯한 금융

기업고객 마이데이터서비스 신설, IBK중기데이터뱅크 플랫폼 구축 등 '핵심업무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최고의 디지털 경쟁력은 물론 글로벌 네트워크, 해외진출 등 '글로벌 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강화'의 실질적 글로벌 성과라는 IBK기업은행의 내실경영도 일목요연하게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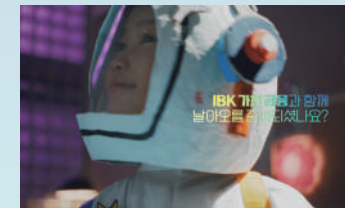
규범준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인증 획득(2023.5)으로 '준법 윤리경영 선도'라는 고객 최우선 경영의 고객신뢰 확보, 비주류, 문화, 예술 스포츠 분야 후원 등 'IBK식 사회공헌 사업 발굴'이라는 기업시민 역할 수행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ESG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이라는 'ESG경영 대응체계 고도화'의 글로벌ESG 실천으로 IBK기업은행의 반듯한 금융을 담아냈다.



## IBK의 비전 및 미래 방향성 그리고 기대

IBK기업은행의 비전과 가치금융의 철학을 담은 '2023 IBK홍보영상'은 고객의 이익(가치)이 IBK와 사회,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가치)으로 연결되는, 관련된 모두의 가치를 높이는 금융의 실현, 즉 '가치금융'으로 IBK의 비전 및 미래 방향성 그리고 IBK세부 사업 및 성과에 대한 내용을 활기찬 분위기로 담아냈다. 끊임없이 발전할 IBK기업은행의 기대라는 여운은 덤이다.

QR코드를 스캔하면  
<IBK홍보영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 IBK인들이 말하는 난 이럴 때 애사심 뽐뽐 느낀다!

IBK인의 설문조사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 기념 특별 앙케트 “난 이럴 때 애사심 뽐뽐 느낀다!” 설문조사에 많은 직원들이 응답했다. 놀라운 사실은 1위부터 4위까지 거의 비슷한 비율로 응답해 순위를 가리기가 막상막하였다. 사실, 직원들이 언제 애사심을 느끼는지 지금 바로 공개한다.

정리 편집실



## 1위 27.4% 회사가 성장하고 있을 때

국내외 여행 또는 출장 가서 IBK기업은행 이를 봤을 때, 코스피 및 은행평가 등 객관적 지표가 높게 나왔을 때, 전 세계로 번어가는 IBK가 글로벌 은행으로 성장할 때 등 강한 소속감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애사심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 2위 25.9% 세심하게 나를 챙길 때

결혼, 생일 등 경조사는 물론 육아휴직, 자기계발비 그리고 건강검진까지 회사가 나를 세심하게 챙기거나 신경 써줄 때 강한 애사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순간, 지금 이 순간도 애사심을 느낀다고 답하는 등 회사의 섬세한 손길에 애사심을 표했다.

## 3위 24.1% 멋진 동료 · 선후배와 일할 때

멋지고 듬직한 회사 선후배, 동료와 함께 일할 때 애사심을 느낀다, 하는 답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워든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술선수범하는 IBK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자극을 받는다고 애사심의 선한 영향력은 바로 이런 것!

## 4위 22.6% 회사가 좋은 평판을 들을 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던가! 가족, 지인, 고객 등으로부터 듣는 IBK의 칭찬은 절로 어깨를 들썩이게 하며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한다. 특히 취업과 관련하여 조언을 구할 때, IBK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좋은 평가를 들을 때 강한 애사심을 느낀다고.

금융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쑥쑥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정현준(정보보호부)**

코스피 순위권이어서  
**방극찬(투자금융부)**

친구들이 “IBK 얼마나 든든하냐 끝까지 다녀”라고 할 때^^  
**윤미영(충청지역본부)**

권동휘 대리가 해외여행가서 기업은행 카드로 몽클레어 구매하며 행복해하는 미소를 지을 때입니다!!!  
**한승욱(기락동지점)**

고객과 함께하는 행사에 고객이 만족할 때^^  
**이상욱(마산내서지점)**

지금 이 순간^^  
**백창윤(조치원지점)**

지나가다가, 여행에서 전국 어디에서든 IBK의 간판이 보일 때  
**김진혁(천안중앙지점)**

수, 금 5시 40분만 되면 제발 일찍 퇴근 좀 하라고 음악 틀어 주실 때! 퇴근 독려하는 기업은행^^  
**김호진(충무부)**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는 지금^^~  
**김재명(강서·제주지역본부)**

휴가나눔제도 시행으로 병가 중인 직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게다가 휴가기부가 1시간 만에 마감됐을 때 따뜻한 감동받았어요.\*^^\*  
**김설화(충청지역본부)**

세 아이 모두 IBK어린이집을 다녔는데요~ 한 애가 태어나고, 또 가고 또 가고 할 때마다 IBK어린이집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형제들 이름 다 기억해주고, 사랑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아이들이 공유하는 소중한 추억에 늘 회사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서연(여신기획부)**

단골 세탁소랑 네일샵 사장님이 코로나 때 IBK 도움 많이 받았다고 감사 인사 해주실 때, 애사심 뽐★뽐!! 합니다  
**박지원(인재개발부)**

회사 댓글 이벤트로 당첨된 아아를 마실 때~ㅋㅋ  
**이성주(경수지역본부)**



기업은행은 인물보고 뽐는다던데 사실이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ㅎㅎ  
**변상우(안양지점)**


 자기계발비 지원 등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게 느껴질 때  
**김민정(역삼중앙지점)**

매년 건강검진으로 내 건강 챙겨줄 때 애사심을 뽐뽐~느낍니다.  
**윤선희(일산WM센터)**

멋지고 든직한 후배님과 함께할 수 있어서  
**임상규(총무부)**

아들이 기업은행 본사 건물보고 엄청 큰 회사 다닌다고 놀랐을 때ㅋ  
**박성은(신림동지점)**

금융치료 받는 날~!!  
**장윤희(칠곡지점)**

 극장에서 IBK 광고 나올 때!  
**김우람(프로세스혁신부)**

직원들 간 우대감, 도시락 싸들고 봄 소풍!!  
**김시은(조치원지점)**


멋지고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지성은(총무부)**

 맛있고 저렴한 구내식당♥  
**이인경(IBK경제연구소)**

명함을 주면 상대방이 IBK를 대단하다고 말할 때,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대출공급에 적극적일 때, 아이들 등록금 낼 때, 지원해준 고객이 안부전화 줄 때 등등^^  
**김재명(동여의도지점)**

해외여행 하다가 우연히 IBK 해외점포 봤을 때, 그때의 애사심이란...  
**박일서(대림동지점)**


내 옆 직원들 볼 때마다 애사심 느낍니다. 업무역량, 인격 다들 너무 훌륭하심. 내가 제일 부족한 거 같음.  
**옥민(구로동지점)**

 기업은행 광고를 봤을 때  
**최강욱(판교제2테크노밸리지점)**


직원 한 명 한 명을 소모품이 아닌 하나의 소중한 인격체로 대해줄 때~  
**김준우(비산동지점)**

여행하는 곳마다 보이는 IBK기업은행. 어깨 으쓱으쓱 자랑스러운 기운이 됩니다.  
**이선향(중계동WM센터)**

복지제도-하계 휴양 차 콘도에 입실했는데 와인 한 병과 축하 메세지를 보고 함께 간 친척들이 부러워할 때 어깨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남광섭(김포지점)**

 지하철에서 i-ONE Bank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기업은행 IT인으로 부듯합니다.  
**이기연(IT정보부)**

취업 준비하는 딸내미 친구들이 금융권 준비한다고 할 때 우리 엄마 기업은행 다녀, 하고 자랑할 때 애사심 뽐뽐입니다. 좋은 회사^^~ 어릴 때는 엄마가 옆에 없어서 힘들었을 텐데,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 되어 취업 준비 중! 학교 친구들이 금융권 준비한다고, 해서 엄마 회사 얘기했답니다.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더라고, 자랑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시간 다들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황문숙(거제지점)**

 비 올 때 지하철에서부터 비를 안 맞고 사무실까지 입장이 가능할 때 쾌적하게 일을 시작 할 수 있어서 애사심이 뽐뽐^^^\*  
**김용운(외환사업부)**

여행가서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 기업은행 다른 지점들의 간판이 보일 때 엄청 애사심 뽐뽐~~~  
**최은미(전주지점)**

경조사 물품 지원됐을 때,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좋은 회사 다녀서 이런 것도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  
**김채린(금호동지점)**

여행가서 그 지역을 돌아다닐 때 기업은행 다른 지점들의 간판이 보일 때 엄청 애사심 뽐뽐~~~  
**최은미(전주지점)**

취업하기 힘든 이때 IBK 근무하고 있다하면 "좋은 직장 다닌다"며 부러워할 때~  
**김진의(서교동지점)**

4시간을 8시간처럼 일했을 때^^ 시간선택제이지만 진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봉선(여신심사부)**

단 한 번도 통·폐합되지 않은 단일은행!!! 직원들 간의 끈끈한 정과 유대감! 내 일, 너의 일 구분 없이 함께 해나가는 모습을 볼 때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신서윤(웅상공단지점)**



첫째, 둘째~ 임신 축하부터  
출산~IBK어린이집~초등학교 입학~ 모든 소중한  
순간에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회사가 함께  
아이를 키워 주니~ 무한 애사심 뽐뽐이에요~^^  
**박지현(카드마케팅부)**

휴가갔다가 돌아올 곳이 있을 때~ 헛! 열심히  
썼으니 다시 돈 벌어야징! >\_< 뽐뽐~ 애사심 뽐뽐~  
**김소정(신설등지점)**

제2의 가족... 함께할 수 있어 소중하고  
행복합니다^^  
**이명희(중계동WM센터)**

마트에서 다른 사람이 기업은행 카드로 결제하는  
걸 볼 때! 내가 만든 기업은행 급어통장이 헛되지  
않았구나^^  
**전충일(울산남외동지점)**

연성장이 당첨되어 부모님 모시고 여름휴가 갈  
때! 어깨뽕이 이만큼 올라갑니다. 가족들 앞에서  
뿌듯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항상 감사합니다.  
IBK!♡  
**고인실(남대문지점)**

까먹고 있던 생일을 지점에서 챙겨 줄때요!!  
**이상욱(마산내서지점)**

TV 광고, 길거리 네온사인 간판 등  
기업은행 광고 볼 때, 최애 영화에 투자자로  
기업은행 노출될 때!!  
**성현중(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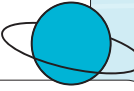
음식점에서 명함 통에 추천한다고  
넣으라고 할 때, 맞췄?  
**박서영(카드사업부)**

일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포스터에  
이제훈이(IBK기업은행 홍보모델) 나를 보고 웃고  
있을 때^^ 그냥 뿌듯!!  
**박수정(문정법조타운지점)**

나와 같은 길을 걷어가는 동기들과 출근해서 뵈게  
되는 좋은 동료 분들과 따뜻한 말과 격려로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애사심 뽐뽐  
느낍니다!!  
**이혜진(프로세스혁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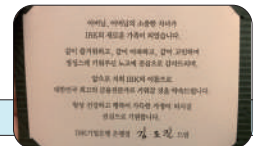
힘든 일 있을 때 이해해주는 직원들이  
있을 때, 애사심 뽐뽐!!  
**이영주(주안공단중앙지점)**

아버지가 전국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면서 “눈에  
보이는 기업은행 모든 점포는 다 본 것 같다”고  
하시며 뿌듯하고 자랑스럽다고 말씀하셨을 때!!  
최근 가장 애행심 뽐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  
**남민주(학동역지점)**



동네 평범한 애엄마로 알다가, 기업은행 다닌다는  
거 알려지고 나서 능력자라고 소문날 때요! 워킹맘  
공감, 공감!!  
**김유미(마산내서지점)**

부모님이 지인들에게 자랑하실 때! “우리 아들  
기업은행 다녀~ 국책은행!” 자동 효도하는 것 같아  
애사심 뽐뽐!  
**강동휘(초읍동지점)**



기업은행 C를 볼 때! 기업은행 본점 건물을 볼 때,  
입사 때 느낌이 나서 애사심 뽐뽐!!  
**최윤미(마산지점)**



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때! 직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자랑스러운 매순간 애사심 느껴요!  
**조아혜(창원지점)**

오늘도 기업팀장님이  
커피사주심!ㅋ 직원들을 위해  
간식 마니 사주실 때♡♡♡  
**이유경(오창지점)**



복장 자율화,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 고객님들도 더  
편해 보이고 좋으며 만족해 합니다! 덕분에 편안한  
하루하루와 근무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황재용(천안중앙지점)**

난 출근해서 상사,  
동료직원들과 서로서로  
도우며 열심히 일할 때 애사심  
뽐뽐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세요!  
**김인영(창원상남지점)**



한여름 땀 뻘뻘 흘리며 출근했는데,  
사무실 온도가 냉장고일 때! 역시  
우리 회사 최고~!! 너무 시원해~!!  
**유덕호(카드마케팅부)**



TV콘텐츠, 인터넷, 유튜브, 인스타 광고 등에서  
기업은행 카드가 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  
**박민지(광산지점)**



아는 친구 언니, 오빠, 동생들이  
기업은행 취업에 대해 조언을 구할  
때, 취업강연회를 해주었을 때  
애사심을 느꼈습니다~! 기업은행장~  
**박민경(퇴계로지점)**

육아휴직 3번씩이나 했는데도  
복직을 할 때! 첫째 2년, 둘째  
2년. 육아휴직 후 둘째 초등 1년  
휴직하고서도 복직을 할 때는 참  
감사하다고 느꼈음.  
**박혜연(장안동지점)**



주변에 배울 수 있는 선배님들이 많아서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요!★  
**김연지(개인고객부)**



# 행복한 동행, 함께한 가치 창립 62주년 기념 4행시



IBK기업은행 창립 62년을 맞아 직원들의 재치 넘치는 4행시가 도착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 달려온 IBK기업은행.  
그곳엔 고객과 IBK인의 피, 땀, 눈물 그리고 희로애락으로 가득했다.



## 육 이 합 께



육 십이 살이면  
이 제 퇴직할 나이라고 다들 그러합니다.  
함 번번인 인생 이제 세컨 삶의 시작이죠!!  
께 (계)속 IBK와 같이 하실 거죠?"  
김명숙(프로세스혁신부)

육 성재도  
이 찬원도  
함 께 여행가고 싶다!!! 꿈  
께 (께)  
김영숙(길동지점)

육 십이년간의 성장  
이 려게 번듯한 은행이 되었네!  
함 께 고생했던 모든 임직원들  
께 (계)속 멋지게 만들어 갑시다!  
오병석(오산남지점)

육 십이년 전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이 제 한국을 넘어 글로벌 은행으로!  
함 께 나아가는 우리 임직원들은 매일  
께 (께)우뚱가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곽재원(제천지점)

육 십억 지구에서  
이 려게 소중한 고객님과  
함 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께 (계)속 함께하는 기업은행이 되겠습니다~♡  
김효은(인천산업유통센터)

육 십년 하고도  
이 년을 더한 IBK기업은행의 빛나는 역사  
함 께했기에 더욱 빛나는 것이 아닐까요. 한 번 더  
께 (께)닫게 됩니다. IBK 진정한 가치금융을  
방혜영(천안WM센터)

육 십이주년 창립을 맞이하여  
이 려게 말씀드려요  
함 께해요 IBK!!  
께 (께)지지 않는 황금처럼 영원히!!  
이민영(프로세스혁신부)

육 개장 같은 진한 품미와 情이 있는 기은이가  
이 번 8월 1일에 62번째 생일을 맞는 다네요!  
함 께 모두 모여서  
께 (께)이크에 촛불 켜고 축하해요!!  
최현욱(서대전지점)

육 신이 고단해도  
이 한 몸 바칠 수 있는 이유는  
함 께하는 우리 동료들이 있어서 입니다.  
께 (계)속 함께 그려나가고 싶습니다♡  
남혜인(여신기획부)

육 십갑자 한 바퀴를 돌고도 모자라,  
이 에 두 해를 더  
함 께했으니 고객 모두의 마음을  
께 (께)알같이 먼저 아는 은행이 되었으리랴.  
홍성민(IT기획부)

육 십이년을 IBK와 함께 걸어왔다.  
이 처럼 우리 회사 IBK의 힘이 매우 컸다.  
함 께 코로나 시기의 위기와 어려움도  
께 (께)트러버리고, 다가올 100년도 함께하고 싶다.  
이현일(서대전지점)

육 십이년이 되었으나  
이 때까지 한결 같은 마음으로  
함 께한 IBK기업은행과 거래고객 모두  
께 (께)끗하고 청렴한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김정문(부산지역본부)

육 십 평생을 함께해 준 사람,  
이 사람이다 싶었던 첫 만남처럼,  
함 들어오던 그날의 설렘처럼  
께 (께)가 쏟아지게 남은 날도 사랑합니다.  
김유미(마산내서지점)

육 십억 지구에서 (지금은 칠십억!)  
이 런 은행은 없었다.  
함 께하는 이 시대 진정한 동반자 은행!  
께 (께)스활명수 같은 속 시원한 최고의 은행!  
유성(평택비전동지점)

육 십억 지구인을  
이 롭게하는 참 좋은 은행!  
함 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께 (께이)-금융의 선봉, IBK기업은행!  
강동휘(초읍동지점)

육 십 이년을 중소기업과 동행하며  
이 나라의 주춧돌이 되어왔습니다.  
함 께하는 동반자 은행  
께 (께)지지 않는 협력관계는 계속됩니다.  
이재형(평택지점)

육 (6)2년!  
이 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고객님의 곁에  
함 께할 수 있었던 건, 두려움의 벽을  
께 (께)며 항상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김가영(정보보호부)

육 십 이년 동안 희로애락을 함께 해 온  
이 소중한 기업은행과 내가 언제까지나  
함 께할 수 있길, 자나  
께 (께)나 늘 기원하고 응원해봅니다.  
신서윤(웅상공단지점)

육 십이 다 되어가는 동안  
이 곳 기업은행에 1990년 9월 1일 입학하여  
함 께한 동료들과의 수많은 일들이 떠오른다.  
께 (께)가 쏟아지는 날들을 만들어보자.  
이경호(파주교하지점)

육 십 이년 합병 없이 승승장구 지켜냈네~  
이 렇게나 기쁜 날에 사행시로 축하하네~  
함 께하니 좋은 것을 전 직원이 참여하네~  
께 (께)소금내 넘쳐나니 구수하게 즐겨보세~  
김우람(프로세스혁신부)

육 적이 꿀을 품듯 (육적화꿀)  
이 긴 세월 국민과 손잡고  
함 께 걸어온 길 앞으로도 어  
께 (께)춤추며 백년해로  
안미라(프로세스혁신부)

육 이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경제가  
이 렇게 발전하도록 열심히 일한 우리를  
함 부로 말하지 말랑~  
께 께~  
이상욱(마산내서지점)

육 십 이년 동안  
이 른 우리의 전통  
함 께한 IBK 여러분 2023년  
께 (께)끗한 정도경영 IBK로 만듭시다!  
이은미(김해장유지점)

육 이오 이래  
이 런 은행은 없었다.  
함 께하는 내 곁에 있는 기업은행  
께 (께)소금 볶듯 알콩살콩 함께합시다♡  
표정화(정관지점)

육 상스타 우사인 볼트는  
이 경기의 끝이 강한 선수다, 라고 했죠.  
함 (한)두 바퀴는 아니어도 마지막은 1등!  
께 (께)달은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경미(수원지점)

육 십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 가 막 자리나는 아이들도  
함 께하는, 금융을 받게  
께 (께)워주는 불빛 같은 IBK!  
전정인(화성봉담지점)

육 십 이년이나 됐군요  
이 제 백년도 거뜰할 거 같아요.  
함 께 해주실 거죠?  
께 (께)뵙는 행복한 금융은 계속됩니다.  
김정민(신당역지점)

육 아휴직  
이 제 나도 써볼까?  
함 써보자 했지만...  
께 (께)달았네, 돈이 없다는 걸...  
정도영(IT정보부)

육 십 이년 동안 한결같이  
이 렇듯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며  
함 께 고객들과 상생하며 나아가는  
께 우치며 더 발전하는 IBK가 되길 기원합니다^^  
김서연(여신기획부)

육 십년 하고  
이 년이 더 흘러  
함 께 해 온 우리  
께 (께) 힘든 날을 잘 버텨왔다.  
신용주(IT내부통제팀)

육 십년대생인 저는  
이 십대 때부터  
함 께했죠. 그때부터 기업은행 덕분에~  
께 (께)소금 신선생활은 물론 노후까지도 든든해요^^  
기명현(대전충남병무청)

육 천 년의 역사 이래 코로나로  
이 토록 힘든 중소기업과  
함 께하고 있는 우리 IBK이야말로  
께 (께)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임태호(역삼WM센터)

육 십이 주년을 축하해 기업은행!  
이 세상 사람들은 너의 성장을 다 알거야  
함 께 해온 시간이 있잖아 앞으로 더  
께 (께)어나는 마음으로 세상에 빛이 될 거야!  
이영주(주안공단중앙지점)

육 십 이년 동안 길러온 힘과 열정으로  
이 어가는 IBK기업은행의 찬란한 미래  
함 께 이루는 성장의 발자취들로  
께 (께)어나는 새로운 도약의 순간  
박성재(인천원당지점)

육 십대 이상의 고령도, 중장년도!  
이 탈리아 가곡하면 떠올리는 바로 그 곡!  
함 께 불러볼까요? 오 솔레 미오!  
께 벨라 고사~나 유르나따 에 솔레~  
여혁인(동광주지점)

육 십 이년 동안 함께해 온  
이 세상 모든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함 께하는 우리의 모든 날  
께 (께) 쏟아지게 항상 그곳에 있겠습니다^^  
박종현(양산지점)

육 육 사이즈 벗어나고 싶어요~  
이 제부터 저랑 같이 운동을  
함 께 하실 IBK인 게실까요~?  
께 (께)어나는 건강한 IBK인이 됩시다~  
이양희(과천지점)

육 십 이년 동안 최고의 국책 은행  
이 된 건 직원 한 명 한 명이 최선을 다  
함 으로서 이룰 수 있었고 더불어 고객  
께 서 신뢰하는 은행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강성희(삼성동지점)





육 십 이년 동안 신뢰와 실력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힘써주신 모든 분들과  
함 께 응원하고, 노력했기에  
깨 께끗한 금융기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수연(울산WM센터)

육 십 이살이 되어 버렸네  
이 번 생은 고객님들 덕분에 잘 성장했네~  
함 (한)번 다시 태어난다면  
깨 (깨)끗한 은행, 고객을 위해 60년 또 살아야지!  
장정모(경영관리부)

육 십하고도  
이 년이 넘게  
함 께 일구어 놓은 이곳에서  
깨 (깨)가 쏟아지게 웃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박명선(사상공단지점)

육 룡이 나르사~  
이 세상에 IBK를 창조했으니  
함 께하는 모든 생명에게  
깨 (깨)달음을 주었노라!  
박동환(시흥동지점)

육 십  
이 년 동안 중소기업과  
함 께 해온 IBK기업은행을  
깨 (깨)알 자랑하고 칭찬합니다!!!  
이경란(전주지점)

육 십 이년 동안  
이 어저은 IBK기업은행을 위해  
함 성과 박수를 보냅니다.  
깨 (깨)지지 않는 단단한 은행으로 영원하라!!  
이승환(IT기획부)

육 아에 고민이 많은 부모에게도,  
이 별에 슬퍼하는 청춘에게도,  
함 구하고 경청하는 중장년에게도,  
깨 (깨)달음의 노년에게도, IBK는 늘 함께합니다.  
이용(대치역지점)

육 감적 느낌으로도,  
이 성적 판단으로도 알았지만  
함 께 거래해보면 더욱  
깨 (깨)달는 든든하고 반듯한 IBK기업은행  
조성우(고객센터)

육 십을 넘기신 큰 형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세상엔 참으로 많은 은행들이 있으나  
함 부로 믿을 수도 믿어서도 안 되며  
깨 (깨)끗한 은행! IBK만이 믿을 만하다!  
윤정원(IBK컨설팅센터)

육 개월 된 수습행원도  
이 십년 된 고객님도  
함 께하는 IBK기업은행  
깨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는 계속됩니다!  
한정아(구로사랑지점)

육 십 이주년 축하해요~!!  
이 백년은 더 가겠죠?  
함 께해요! IBK!^^  
깨 (깨)가 쏟아지게 함께 걸어가자구요~!!^^♡  
이환나(아산탕정지점)

육 해공, 산해진미 다 필요 없다.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맛집은  
함 께 지지고, 볶고, 사랑으로 가득한  
깨 (깨)소금보다 달콤한 수다 맛집 IBK가 최고야!  
김민주(일산WM센터)

육 십 이주년  
이 때까지 모진 풍파 견뎌내며  
함 께 힘 모아준 우리 직원분들과  
깨 (계)속해서 이어나갑시다. 파이팅!!!  
마문희(인천지역본부)

육 십 이년 동안 중소기업과 함께해온  
이 제는 나아가 온 국민과  
함 께하는 IBK기업은행으로  
깨 께끗한 이미지로 신뢰받는 IBK 파이팅!  
최선경(대덕테크노밸리지점)

육 신이 지치고 힘들더라도  
이 좋은 기업은행 직원분들과  
함 께라면  
깨 (깨) 발랄하게 은행생활 할 수 있어요!  
박세용(자금세탁방지부)

육 십 이년의 지난 세월 동안  
이 제까지 리딩뱅크의 위상을 높인 것은  
함 께한 임직원 모두가  
깨 (깨)끗하고 투명한 IBK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송봉호(프로세스혁신부)

육 개월 상반기 고생해서  
이 제야 한숨 돌리나했는데  
함 께 회의 들어오라고 합니다ㅠ  
깨 (깨)갱~  
장상민(서교동지점)

육 6(?)2.195km 마라톤 코스처럼  
이 길고 오랜 세월은  
함 부로 할 수 없는 애뜻한 시간였지요 앞으로도  
깨 (깨)에~~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전민정(송내역지점)

육 십 이년 동안 수고해온 IBK 임직원 여러분  
이 처럼 좋은 조직의 일원으로서  
함 께 한 수많은 행복한 날들이  
깨 (깨)달같이 쌓여 앞으로도 함께 나아갑시다!  
정영미(죽전지점)

육 십세까지 다녀야 할 소중한 직장  
이 직 고민 없이  
함 께하게 된 기업은행 입행 후 8년, 많은  
깨 (깨)달음과 행복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갈수화(일산장항지점)

육 십이면 환갑. 한 번 들으면  
이 치를 이해한다는 이순(耳順)이러는데,  
함 께한 시간이 육십도 넘긴 육십 이년.  
깨 (깨)우침의 경지가 깊어가니 좋지 않은가~  
백승재(독산중앙지점)

육 사시미 대자 하나 주문하고  
이 슬이도 뭐 한 5병 주문해라!  
함 보자... 그냥 스키탕도 추가해서  
깨 (깨) 뿌리고 62주년 파티시작!! 축하합니다^^  
임정수(경남병무청발급소)

육 십 이년의 세월을 거치며  
이 려게 한국 대표은행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 께해주신 고객님들 감사합니다.  
깨 (깨)끗하고 투명하게 늘 섬기겠습니다!  
박종순(퇴직연금부)

육 육~ 육자로 끝나는 말은?  
이 룡!? 기업은행 이룩하라!! 고객과  
함 께 항로를 개척하라!!  
깨 (깨)달았는가? 우리는 언제나 함께대!  
윤달현(IT시스템운영부)



# IBK기업은행

## 직원들의 축하메시지



IBK가 벌써 60주년을 넘어 62주년이 라는 게 믿겨지지 않습니다^^ 변함 없는 고객신뢰와 철저한 신념으로 국책은행으로서의 자부심과 자립심을 지켜낸 거 같습니다^^ 국민 모두의 영원한 대한민국의 IBK은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최성희(가산테크노지점)**



기업은행 창립 62주년을 중계동 WM센터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축하합니다!!! 기업은행 사랑합니다!!!

**송보민(중계동WM센터)**



지난 62년간 기업은행을 발전시킨 수많은 선배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자랑스러운 기업은행이 천년 역사를 만들어갈 뿌리 깊은 나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영(인천서부산단지점)**



기업은행 창립 62년이나 되었다니 62년 동안 건재한 기업은행의 임직원으로서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여태 힘쓰고 고생해주신 선배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기업은행의 미래를 발전시켜냅시다! 파이팅!

**이기연(IT정보부)**



항상 입행시기와 기업은행의 생일이 겹쳐 더욱더 뿌듯하고 행복한 마음이 듭니다! 특히 올해는 입행 10주년이 되는 해라 스스로도 많이 돌아켜보았는데, 저의 작은 몸짓이 우리 IBK의 멋진 앞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기업은행아, 생일 축하해♥

**남혜인(여신기획부)**



사랑하는 나의 기업은행, 진감을 축하드립니다♥

**최지성(창원중앙지점)**



손에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IBK기업은행. 한 손은 고객님들과, 다른 손은 다른 직원분들과 손잡고 지금처럼, 고객님들의 꿈을 향해 그리고 더 나은 IBK기업은행의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가길 바랍니다. IBK기업은행의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정인(화성봉담지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주춧돌인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지난 60여 년 동안 성실히 수행하고, 글로벌 100대 은행 진입이라는 지속성장을 달리고 있는 IBK! 창립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덕열(상무지점)**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다함께 100년까지 쭉욱~ 성장하세요!

**고민규(창원대로지점)**



늘 한결같은 소나무와 같이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이 가는 IBK기업은행의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 전진하는 명품은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미혜(문래중앙지점)**





창립 이래 (중소)기업과 함께 해온 IBK~!! 앞으로도 존재의 이유는 명백합니다. 62주년을 넘어 100주년을 향해 도약을 기원합니다.

**황규수(순천지점)**



<IBK 기업은행 창립 62주년 축하 메시지>

기업은행 직원이라서 자랑스럽습니다. 퇴직 하는 그날 까지..IBK영원하리~



49년부터 함께 해왔습니다. 내년 63주년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기업은행이야~ 영원하리!!  
**이해정(조치원지점)**



튼튼한 은행, 반듯한 은행, 혁신으로 나아가는 IBK기업은행의 62주년을 축하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소상공인과 고객들에게 가치와 희망을 전하는 은행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김우성(가양동지점)**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 축하해'용'  
**장효경(파주헤이리지점)**



가파르게 급변하는 세월 속에서 늘 든든한 나무처럼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BK인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62년 창립기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BK 파이팅!!  
**안미라(프로세스혁신부)**



벌써 IBK기업은행이 한갑이 지났네요^^ 축하합니다! 그동안 IMF, 글로벌금융 위기 등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함께한 우리 IBK기업은행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쭉~~~~욱 영원하리^^ 격하게 IBK기업은행 파이팅!!!!!!  
**박명미(인천북항지점)**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꿈과 희망이 되는 기업은행! 앞으로도 승승장구 파이팅!!!  
**백승재(독산중앙지점)**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IBK기업은행! 62년간 덕분에 중소기업의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황재용(천안중앙지점)**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참 좋은 기업은행이라는 좋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어 행복하고 자랑스럽습니다. 100년~ 200년~ 대한민국의 핵심은행으로 영원히 함께해요!!  
**고한나(석수역지점)**



늘 한결같은 소나무와 같이 모든 임직원이 하나 되어 손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IBK기업은행의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더욱 전진하는 명품은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미혜(문래중앙지점)**



중소기업을 기반으로 시작한 IBK기업은행이 개인을 넘어 PB금융부문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까지 많은 직원들의 노고에 맞은 창립 62년 정말 축하합니다!! 앞으로 기업과 개인이 함께 상생하는 은행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산관리센터 파이팅!  
**조미연(중계동WM센터)**



# 62번째 은행,

## 잠실지점 축하메시지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을 맞아 잠실지점 직원들이 축하메시지를 보내왔다. 축하와 응원, 성장과 발전, 성원과 바람 등으로 압축된 이들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IBK 기업은행 62주년 축하드립니다!!  
62년간 강도기업의 우상이 되어준 동문은행.  
앞으로 기쁘게 휴이에게 모두 사랑받을  
대응태도 등 은행의 거듭날 바랍니다.  
"062" 자정 이윤환 지점장

"062"  
IBK의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IBK 기업은행 화이팅!!  
- 정진아 지점장 -

“企業人天下之大本”  
62년 기업인은 끊임의 광대한 빛을  
이제는 100년 동행의 아가 있습니다  
-김동권 대리-

IBK 62주년 ♡...  
IBK 기업은행 직원이라는 것에 늘 자부심을 느낍니다  
소중하게 일하는 62년 잘 마무리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는 IBK 기업은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잠실지점도 화이팅!!  
- 강 그림 대리 -



IBK 기업은행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610th 최고의  
은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이 동훈 지점장 -

IBK 기업은행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1등 은행이 되기를!  
- 박진원 차장 -

IBK 기업은행 6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모두에게 힘이 되는  
클로버 리빙뱅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잠실지점 김미래 대리 -

IBK 기업은행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모두에게 행복을 주는 1등 은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점원 송준호 대리-

기업은행이 62주년을  
축하합니다.  
100주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티 멋진 은행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062" 김원 강영희 차장 -

창립 62주년을 축하 합니다.  
고객과 상생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해나가는 오우의 은행이 되길  
기원합니다.  
-잠실 송주방 차장-

IBK 62주년 축하합니다.  
힘내게 달려온 62년?  
앞으로도 더 큰 성장 기대하겠습니다.  
- 장민 성인애 대리 -



창립 6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0주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잠실지점 한정임 차장 -

축!!!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  
평생 든든한 동반자!  
100주년까지 친의 은행  
가르아!  
- 삼원지점 안윤락 차장 -

IBK 기업은행 62주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승승장구 허버들 기원합니다 :)  
-062김지정 김명신 로베레너리-

« HAPPY 62th anniversary »  
기업은행 62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정원 대리-

IBK 62주년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켜 ~ ~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 일류은행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취성계 차장



**우리는  
나보다 현명하다**

당연하다. 하나보다 둘이, 둘보다 셋이 낫다. 백지장도 맞들면 나은 이유다. 혹자는 챗GPT 시대, 인류를 구원할 도구로 ‘협업’을 뽑기도 한다. 단, 그 협업은 ‘똑똑한’ 협력이 아닌 ‘지혜로운’ 협력이어야 한다. 타인과의 나눔, 다른 조직과의 협업은 초연결 시대, 생각하는 사람 ‘호모 사피엔스’ 유전자 지도에 기록된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생존 전략이다.





**자기계발보다  
우리계발이 필요하다**

이 말도 당연하다! 한 명의 천재에게 의존하는 것은 ‘오래된 미래’가 됐다.  
이제 인류는 ‘자기계발’이 아니라 ‘우리계발’이 요구되는 미래에 성큼 와 있다.  
더욱이 초지능화, 초연결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온 미래’로  
우리를 심적으로 하드캐리한다. 손에 손잡고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  
집단지성의 심시티는 이제 우리들의 몫이다.



# Classics Hidden Future

## 오래된 책 속에

## 숨은 미래의 지혜

영화 <터미네이터>를 보면 미래에서 온 기계가 과거로 가서 미래에 인류의 지도자가 될 인물 '존 코너'를 제거하려 한다. 1편에서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지도자의 탄생을 막기 위해 존 코너의 어머니를 죽이는 설정이다. 시간의 흐름을 미리 알고 있는 어떤 존재(터미네이터와 기계들)가 과거로 가서 역사를 바꾸려 한다. 미래의 과거는 현재이므로 사건은 현재에서 진행된다. 그런데 《삼국유사》 '기이편'에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있다.

글 명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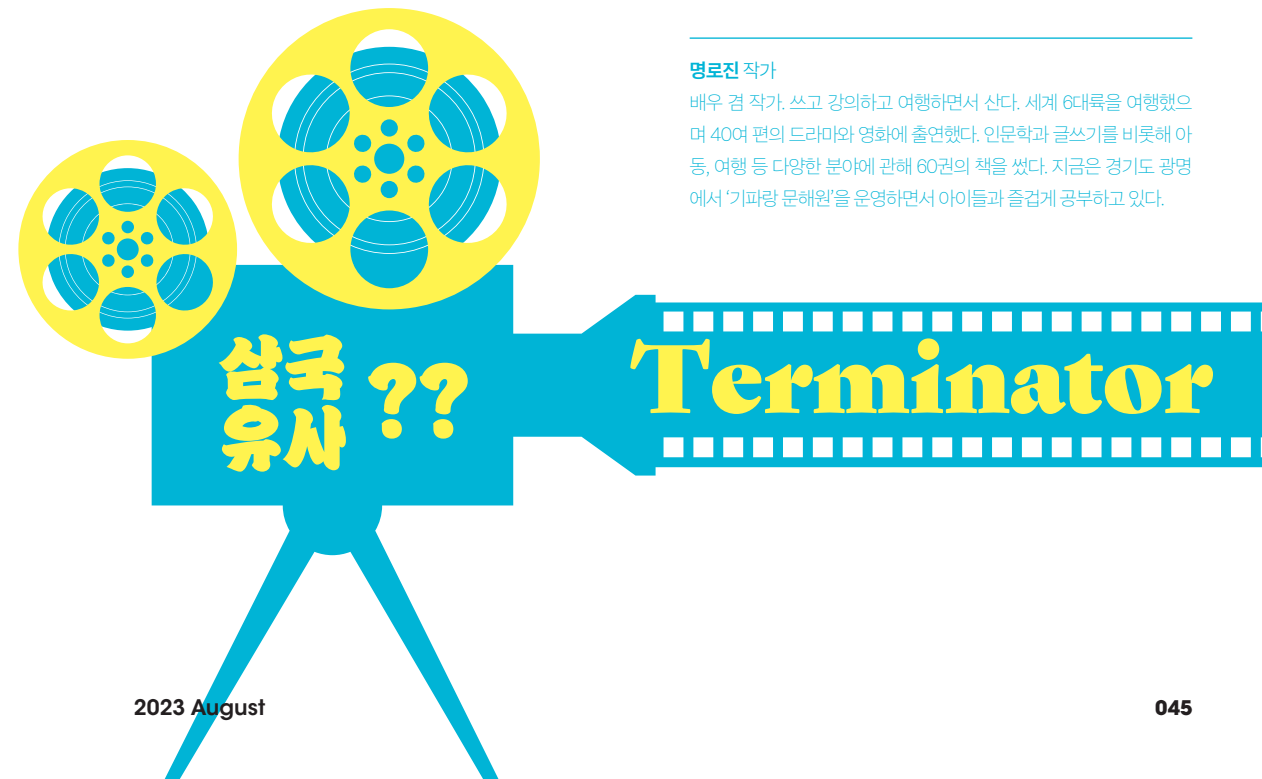
### 터미네이터와 김유신

김유신이 18세가 되어 검술을 익히고 화랑이 되었을 때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백석이란 자가 무리에 들어왔다. 유신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치려고 친구들과 이야기하는데 백석이 말했다. “내가 공과 함께 고구려로 가서 먼저 정탐한 뒤에 일을 꾸미면 어떻겠습니까?” 유신이 기뻐하며 백석과 길을 떠났다. 영천에 이르러 고개에서 쉬는데 세 여인이 다가와 유신에게 “잠시 저희와 숲으로 들어가시지요”라고 했다. 유신이 여인들과 숲으로 들어가니 그들이 신으로 변해 말했다. “지금 적국의 간자가 공을 유인해 가고 있어 우리가 공을 말리려고 여기까지 왔소.” 김유신이 알았다고 하고 돌아와 백석에게 말했다. “집에 중요한 문서를 두고 왔으니 다시 돌아가 가져와야겠다.” 집에 돌아온 유신이 백석을 묶어 놓고 취조하자 백석이 실토한다.

“나는 본래 고구려 사람ियो.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신라의 김유신은 우리나라 예언가 추남이었다’라고 했소. 추남은 고구려 왕의 미움을 받아 죽임을 당했는데, 죽으면서 ‘내가 죽은 뒤에 장군으로 다시 태어나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했소. 그날 밤 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김유신의 아버지) 부인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니 곧 그대의 어머니요. 이에 신하들이 ‘추남이 유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라고 말했소. 이런 까닭에 고구려에서 나를 보내 그대를 유인해 오도록 했소.” 김유신은 백석을 죽이고 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고구려 사람들이 백석(터미네이터)을 신라로 보내서 미래에 고구려와 전쟁하게 될 신라의 명장 김유신(존 코너)을 미리 죽이려고 하는 이야기다. 혹시 <터미네이터>를 만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삼국유사》를 읽었던 건 아닐까?

### 명로진 작가

배우 겸 작가. 쓰고 강의하고 여행하면서 산다. 세계 6대륙을 여행했으며 40여 편의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다. 인문학과 글쓰기를 비롯해 아동,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해 60권의 책을 썼다. 지금은 경기도 광명에서 '기파랑 문해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즐겁게 공부하고 있다.



# classical



## 고전 속에 현재 있다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힌 문학 작품'이다. 그리스 신화나 사서삼경은 3000년 가까이 사랑받아 왔다. 이렇게 오래된 책 속에 미래가 있을까? 고전은 오래된 책이지만 현재성이 있다. 기원전 5~6세기 사람들이 느꼈던 감수성이 현재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구가 현재를 담고 있다면 현재의 우리가 읽는 텍스트 속에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미래가 불안하고 현재가 괴로울 때 내가 고전에서 위로를 얻는 방법이 있다. 《논어》나 《장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무 쪽이나 펼쳐 보는 것이다. 나는 이걸 '랜덤 힐링'이라고 부른다. 옛사람들이 점을 칠 때도 우연에 의지했다. 거북의 등을 태워 나온

무늬를 보거나 산가지로 뽑는 일의 결과는 인간의 계산 밖에 맡겼다. 오늘도 《논어》를 책상 위에 올려봤다. 자, 첫 번째 문구다. "앵두나무꽃, 바람에 나부끼네. 어찌 그대를 사모하지 않겠소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누가 이 노래를 부르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한다면 어디인들 멀랴?" (자한편) 먼 곳에 사는 친구를 찾아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고전이 내 마음을 읽었다. 그렇다.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한다면 어디인들 멀겠나.

## 사랑한다면 먼 곳이 없다

얼마 전 알게 된 20대 청년 희재에게 물었다. "여자 친구 있어?" (이런 거 물으면 곤대인데...) "네, 근데 좀 멀리 살아요." "어디 사는데?" "브라질이요." "와~브라질?" "예, 롱디(Long Distance 장거리) 연애죠." "이건 롱디가 아니라 거의 다른 행성 간 연애 아닌가? 하하하!" 마지막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희재는 공자의 '어디인들 멀랴'를 실천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 연인들아. 일산과 분당 사이는 먼 게 아니다. 서울과 부산 사이도 먼 게 아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랑의 농도가 문제다.

# Wisdom



고전은 오래된 책이지만 현재성이 있다. 기원전 5~6세기 사람들이 느꼈던 감수성이 현재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의 문구가 현재를 담고 있다면 현재의 우리가 읽는 텍스트 속에는 미래가 있지 않을까?



### 자기를 알려려면

두 번째 문구.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말고 저절로 알려지기를 구하라.” (이인편)

나는 얼마 전 조그맣게 논술학원을 시작했다. 책도 많이 냈고, 대학 교수도 지냈고, 방송에도 나갔으니... 학원을 열기만 하면 학생들이 줄을 설 줄 알았다. 오산이었다. 권리비에, 인테리어에, 보증금까지 거액을 쏟아부었는데도 학원은 생각만큼 잘되지 않는다. 잠이 오지 않았다. 빗 얻어 오픈한 학원이니 이자 대기도 벅찼다. 매달 말 돌아오는 임대료 내는 날이 두려웠다. ‘학원을 알려야 한다!’ 이게 요즘 내 좌우명이다. 절벽을 기는 심정으로 발로 뛰면서 판촉물도 돌리고, 광고도 하고 홍보도 한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저절로 알려지기”를 구해야 한다. 다음 주부터는 밖으로 돌면서 알려려 하지 말고 지금 다니는 학원생 돌볼 생각을 하자.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하나라도 더 마음을 주자. 내 살길은 학원 문 안에 있다. 홍보와 마케팅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자님 말씀을 새겨들 것. 다음 문구다.

“만약 주공처럼 훌륭하고 재능이 있다 해도 교만하고 인색하다면, 그 나머지는 볼 것이 없다.” (태백편)

와, 정말 기가 막힌다.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다 생각해 놓고 쓰는 거겠지’ 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 원고를 쓰는 어느 일요일 오후 12시 17분 현재, 내 책상 위에 놓인 《논어》를 아무렇게나 펼쳤을 때 이 문구가 나왔다면 믿겠는가. 우연은 때로 이렇게 소름 끼치는 필연이 된다.

# Consolation

### 겸손하고 관대하게

며칠 전 후배를 만났다. 중소기업을 다니는 그는 상반기 최고의 영업실적을 올렸다. 열심히 일한 그는 회사에서 여름휴가 보너스를 받았다.

“근데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여섯 장이 있더라고.”

“30만 원?”

“응. 내가 올린 영업실적이 열만데! 나이 회사 계속 다녀야 돼?”

“때려치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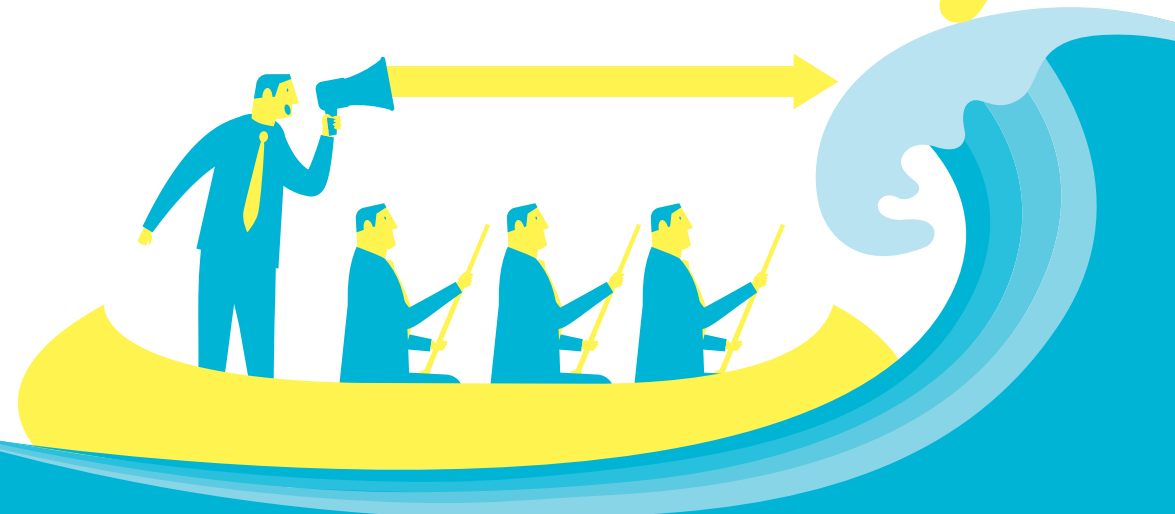
《논어》에 보면 공자의 결단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위나라 임금 영공이 공자에게 “군대를 배치하는 방법을 아십니까?”라고 하자 공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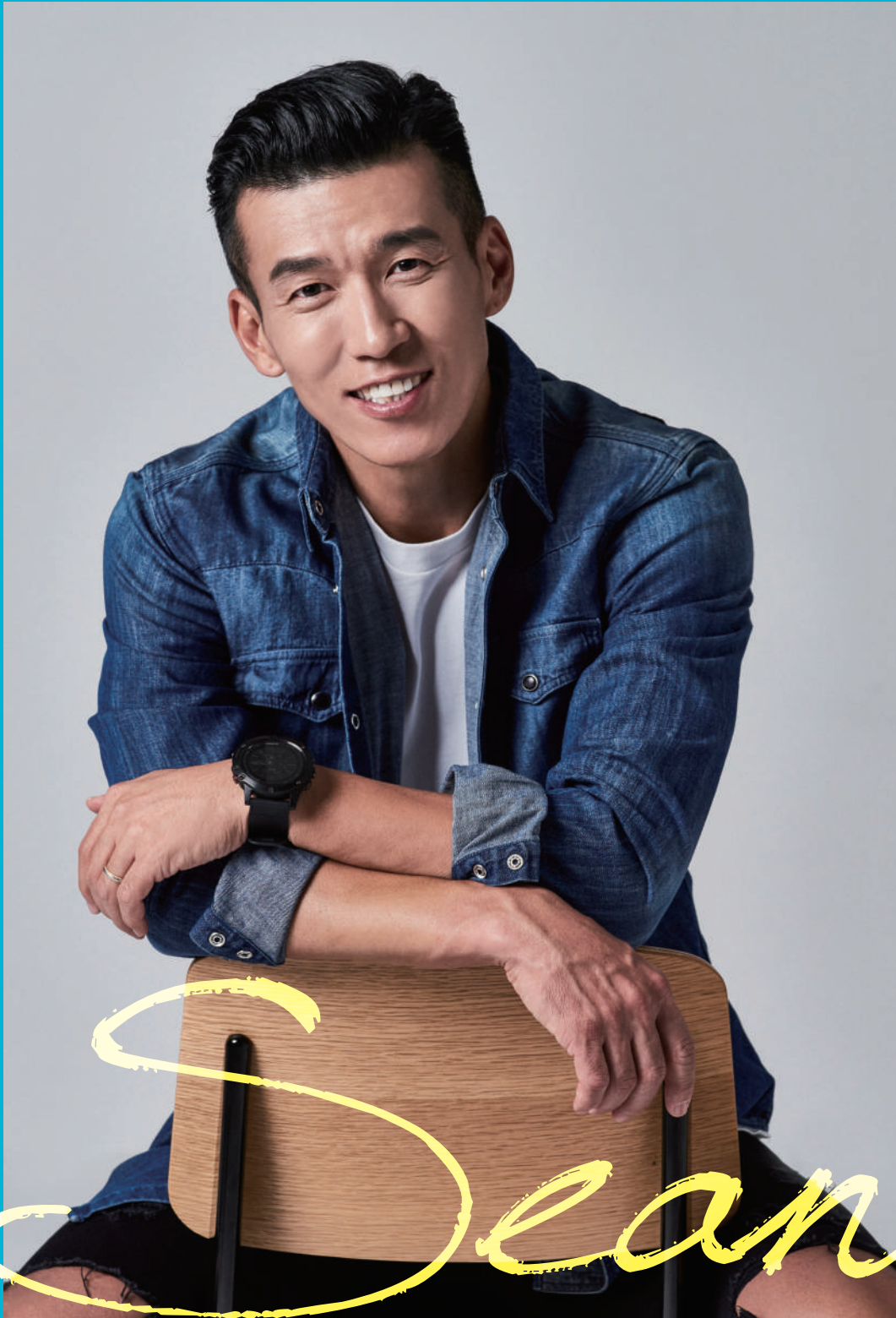
“제사 지내는 법은 알지만 군대에 대한 일은 모른다”고 답한다. 그다음 문구가 충격이다.

“明日遂行(명일수행)”. 그다음 날 떠났다.

공자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법. 아니다 싶으면 바로 떠나야 한다. 이런 결단은 우리의 몫이다. 오늘 생각하고 내일 떠나는 신속성. 시간은 기다리지 않는다. 미래는 돌아보지 않는 자의 것이다. 잠깐, 남이야기할 때가 아니다. 곧 있으면 보너스를 지급해야 할 시기다. 내가 챙겨야 할 아랫사람들이 몇 있는데 ‘얼마나 줄까?’ 고민하고 있었다. 저 글을 보니 찢린다. 이번에는 두둑이 쥐야겠다.

# Generosity





작은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꾼다

...

가수  
선

힙합 1세대 가수 선에게 기부와 선행은 들숨과 날숨의 한 호흡처럼 자연스럽다. 그런 그의 광폭 행보에 사람들은 기부천사, 사회복지사, 운동선수, 먼저 움직이는 리더 등의 부케를 선사하며 선행으로 화답한다. 오늘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달리고 있을 그에게 잠시 심이란 인터뷰를 부탁했다. 학습의 효과는 유효했다.

글 박성일 사진제공 YG엔터테인먼트



**Q. 매일 '착한 런'으로 하루를 열고 계세요.**

네, 요즘 많이 뛰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매달 각기 다른 재단들하고 크고 작은 기부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할 때는 제가 직접 기획도 하며 뛰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올가을, 마라톤 기록 단축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폴코스 마라톤을 3시간 이내(2시간대)로 달리는 '서브-3'인데요. 그걸 위해 지금 열심히 훈련 중입니다. 그리고 보니 또 뛰네요(웃음). 그리고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면서 본업인 공연 준비와 강연도 준비하면서 시간을 아껴 쓰고 있습니다.

**Q. '선한 영향력'의 아이콘입니다. 나눔이 일상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행복의 컵'에 행복이 차고 넘쳐서, 그 행복을 함께 나누고자 시작한 일인데요. 그

게 지속적이다 보니까 말씀처럼 '선한 영향력'이 된 것 같아요. 결국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행해질 때 그게 선한 영향력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일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설득력을 가진 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지속적인 선행(先行)이 전제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행, 즉 '먼저 행동하는 행위'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어떤 일이 좋으니 함께해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특히 보다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한 일일수록 저는 주저하지 않고 선행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달리기 하는 걸 피드에 올리다 보니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자극이 돼서 '그러면 나도 한번 달려볼까'라는 식의 챌린지 또는 캠페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보람과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Q. '행복해서 할 수 있어', '마음이 움직인다' 등의 표현도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100% 행복한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보며, 어떤 것에 집중하면서 사느냐'가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만약 하루에 아홉 가지 불행한 일이 있고, 한 가지 행복한 일이 있다면 저는 전자보단 후자에 집중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 아홉 가지 불행이 없어지진 않겠지만 적어도 크게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행복한 일에 집중해서 나의 하루에서 불행을 밀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야 그 행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거든요. 제가 듣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또 어떻게 그렇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전 솔직하게 답변합니다. "그래본 적이 없는데요(웃음)"라고 말이죠. 힘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일 자체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의 행복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누군가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건 큰 행복입니다. 그래서 계속 뛰고, 또 뛰며 나누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나눔은 우리의 삶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Q.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짓기 프로젝트'를 위해서도 달리고 계십니다.**

네, 독립유공자에 대해 감사함을 되새기고, '잘될 거야, 대한민국!'이라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부마라톤 '815런'을 2020년부터 매년 광복절에 맞춰 진행하고 있어요. 이 기금으로 현재 8호집까지 완공됐고요. 9호집도 완공돼 곧 헌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12호집까지 동시에 짓고 있어요. 사실 이러한 릴레이 집짓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건 1호집, 즉 독립운동가 김용상 선생님의 손녀 김근순 할머니와의 '특별한' 약속 때문인데요. 제가 1호집 지을 때 여러 번 봉사하러 갔었는데 그때마다 할머니께서 당신의 집이 지어지는 순간을 보고 계셨거든요. 심지어 집이 완공될 때까지 매일 그러셨대요. 마침내 집이 완공되고 헌정하는 날, 불편하신 몸을 이끌며 집에 들어서는 순간 와락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꼭 붙잡고 "너무 고맙다" 하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래서 저도 할머니 손을 꼭 붙잡고 "할머니, 제가 백호 집까지 지어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이제 815런은 100호집이 완공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가 됐습니다.

**Q. 우문현답입니다. 나눔, 왜 필요할까요?**

보통 혜택을 받는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든지 '나'일 수도 있거든요. 내가 힘들 때 만약 어느 누구도 돕지 않는다면 정말 힘든 상황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도울 거고, 또 그러면 누군가 힘들 때 나 또한 돕는 게 더불어 사는 세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행복할 줄 알아야 누군가를 도울 수도 있고, 또 그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작했어요. 많은 분들이 챌린지의 바통을 이으며 선 행에 동참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Q. 계획하고 계신 가까운 미래도 궁금합니다.**

현재 국제어린이양육기구 한국کم패션을 통해 아프리카 케냐 아이들에게 '원더슈즈'를 보내주고 있어요. 2019년부터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현지에 가질 못했거든요. 올해 드디어 모금액으로 케냐에 가서 아이들에게 직접 신발을 선물해주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그 신발이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원더슈즈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매년 목표를 정해 도전한 일들이 있거든요. 그 첫해인 2011년에는 우리 아이 두 명을 쌍둥이 유모차에 태워 10km를 달린 도전이었어요. 2012년에는 철인3종경기, 2013년에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달리기(자전거 포함) 1만km, 2014년에는 부산-서울 430km 자전거 24시간 완주 등의 도전을 매년 해왔거든요. 올해는 마라톤 기록 단축 목표인 '서브-3'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11일 힙합 장르 탄생 5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2주간 기념행사가 펼쳐지는데요. 주관사에서 제 힙합 의류 브랜드 M.F와 MD상품 협업을 제안해서 현재 아이템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어른들의 노력,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세상은 때론 부정적인 일도, 부당한 것도 많아요. 그럴 땐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며 규탄도 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내가 먼저 바뀌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선행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바뀌고, 그 바뀐 삶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계속해나갈 때 나도, 사회도, 세상도 좀 더 나은 미래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일련의 노력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12년간 공들인 국내 최초 루게릭 영양병원 착공이 드디어 올해 들어가는데요. 오래 걸렸지만 이제 현실로 다가온 만큼 정말 가슴이 벅차고 설렙니다. 이를 위해 2014년, 2018년에 이어 올해 아이스버킷 챌린지의 부활을 알리며 제가 먼저 '선행'을 시

**가수 선이 보내는 IBK기업은행 62주년 축하메시지**

지난 62년 동안 국책은행으로서 꾸준히 맡은 바 업무를 해오신 IBK기업은행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처럼 '참! 좋은 은행'으로 오랫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은행이 되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다시 한번 6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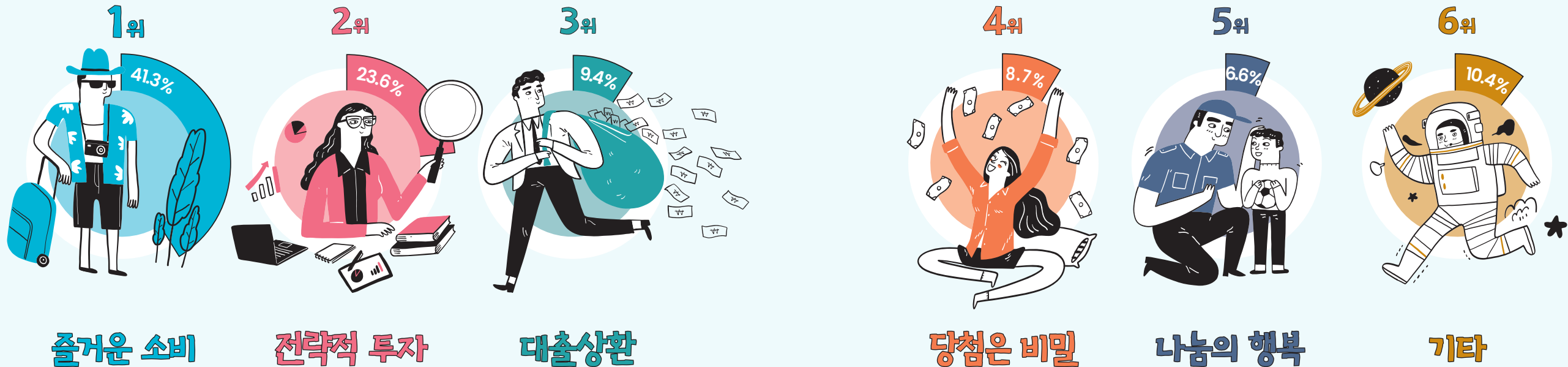


# 상상은 자유! 다 함께 꿈꿔 보는 행복한 상상! IBK인들이 로또 1등에 당첨이 된다면?

누구나 로또 1등의 꿈을 꿰 보았을 것이다. 로또 1등...! 상상만 해도 짜릿한 느낌이다.  
당첨이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상상 속에서 814만 5060분의 1 확률을 뚫고  
로또 1등에 당첨된 IBK인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정리 편집실

IBK인의 설문조사



**즐거은 소비**  
IBK인들에겐 다 계획이 있구나? 생각만 해도 절로 웃음이 나오는 자신만의 소비계획.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세계여행을 떠나고, 포르쉐와 롤스로이가 내 차가 되고, 먹고 싶은 것과 사고 싶은 것들을 고민 없이 사보는 나만의 행복한 소비계획. 역시 돈은 쓸 때 빛을 발하는 법이다.

**전략적 투자**  
IBK직원들답게 다양한 방법으로 로또 1등 당첨금을 다루는 IBK인들. 행복한 소비 전에 돈을 잘 쓰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들도 많았다. 내 집 마련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투자, 현재 엔저 현상을 파악한 엔화 매입, 기업은행 예금으로 예금왕을 꿈꾸고 이자를 즐기는 방법까지. 예금 투자 상담은 IBK에서!

**대출상환**  
너무나 현실적인 답변이지만 대출상환은 우리 모두의 꿈 아니겠는가. 로또 1등으로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는 빚을 청산하고 자유를 꿈꾸는 IBK인들도 있었다. 그런데 로또 1등 당첨금으로 대출금 다 갚고 나면 돈은 남아있겠지?

**당첨은 비밀**  
겉으로는 “로또 1등 당첨되면 정말 좋겠다.” 속으로는 ‘그게 바로 나였네?’ 로또 1등 당첨은 철저히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는 즐거운 상상을 누리는 IBK인들. 이유는 모르겠지만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월요일 좋아~’를 외치며 출근하는 IBK인이 있다면 로또 1등 당첨을 의심해 보자.

**나눔의 행복**  
함께 사는 세상, 더불어 가는 세상. IBK가 만듭니다. 로또 1등 당첨의 기쁨은 물론 당첨금까지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IBK인도 있었다. 전액을 기부하고 싶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인해 로또 1등의 기적이 세상에 전해지는 듯하다.

**기타**  
분류를 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답변들을 제출한 IBK인도 많았다. 로또 1등 당첨에서 나온 다양한 답변에는 IBK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 보이는 듯하다. 결혼, 전업주부로 살기,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기, 직장 동료들에게 퇴직금 뿌리기 등 농담 반, 진담 반 재치 있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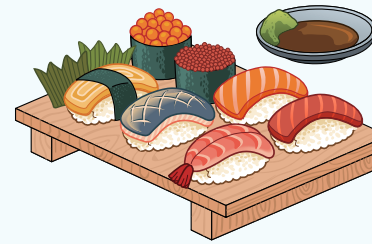


# IBK인의 행복한 상상



**액정 깨진  
휴대전화부터 당장  
바꾸고 케이스도  
비싼 걸로 사고  
싶어요!**  
삼성동지점 강성희

**바로 다음 날 나의  
사랑스러운 은행  
동생들과 청담 사\*  
플레그십 스토어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애들아 우리 약속의  
땅에서 꼭 만나자!!**  
남부지역본부 이재원



**스시 먹으러  
당일치기로  
일본 갔다 오기.**  
용산전자지점 김미정

**안그래도 오늘 점심  
화제였습니다.  
세계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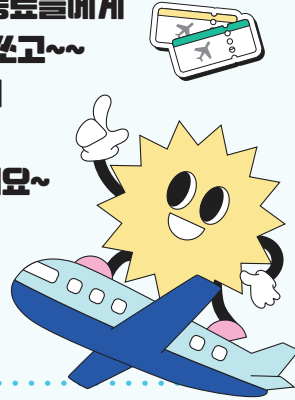
양재동지점 한완수



**가족과 함께  
박야트리 스파  
풀패키지 먼저!!!!  
허그로 차사기!!  
ㅋㅋㅋㅋ**  
화성봉담지점 송나리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소고기 한 번 쏘고~~  
가족들과 함께  
세계일주!!!!  
대녀오고 싶어요~**  
과천지점 이양희



**풍경 좋은  
동남아에  
멋진 콘도 구입!**

퇴직연금부 박태근



**요즘레 투정에 묻은 거 안 먹고  
그냥 버리기, 쇼핑카트에 100원 넣고  
그냥 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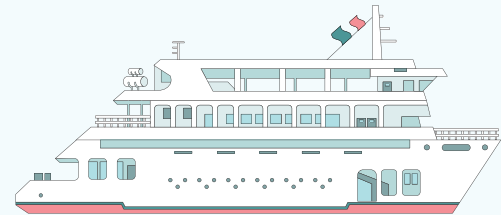
남시화지점 원영민



**포르쉐 카이엔이죠!**  
조치원지점 백창운

**양념치킨  
소스만 먹고  
버리기.**

정보보호부 유경호



**온 가족 세계 크루즈 여행**

청담동지점 이재훈



**해외여행 갔다가  
지겨울 때쯤 돌아와서  
전망 좋은 시골에  
세컨하우스 빌려서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야지**  
방배중앙지점 황유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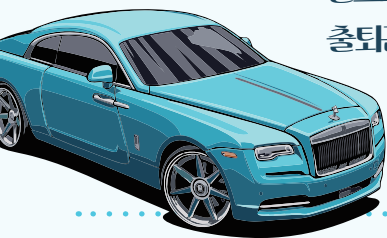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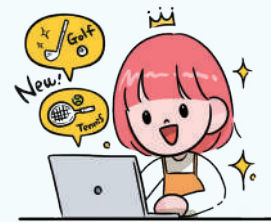
**카푸어 가즈아!!!**

IT금융개발부 한원석



**은행을  
취미로  
대한다!**

신림동지점 이주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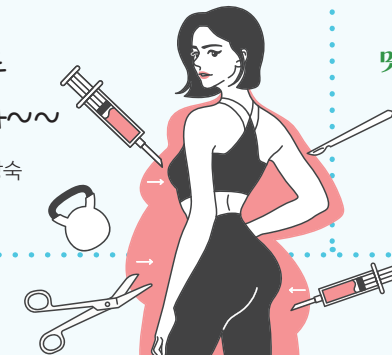
**롤스로이스 타고  
출퇴근 하고 싶다...**  
양산덕계지점 박정일

**휴가 내서  
일단 한국을  
뜨고 싶음~**  
대연동지점 김정화



with IBK

**전신성형으로  
새 삶을 살고 싶다~~~**  
일산덕이지점 박남숙



**가족들과 (개 포함)  
맛있는 거 먹고, 멋진 집 사기!**  
천안중앙지점 김진혁





일부는 노후자금으로,  
일부는 아들 약국 개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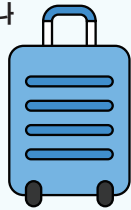
인사동지점 김수경



기업은행에  
예금 가입하고,  
정년퇴직까지  
다니겠습니다.

IT정보부 이지은

와우~~♡♡ 며칠 동안 좋아서 잠을 못 이루겠죠.  
그리고 로또 당첨금을 받아 IBK기업은행에  
1년 만기 중금채 예치해놓고 휴가를 떠나  
리프레시 하고 돌아와서 IBK기업은행  
근무를 성실히 하고 중금채  
만기 되면 다시 생각해보렵니다.



문래중앙지점 이미혜

좋은 집으로 평수 넓혀서 이사 가고  
싶어요!! 여유가 된다면 차도 한 대 더?

부천내동지점 권선희



기업은행  
예금 가입해서  
예금왕 되기

김해진영지점 김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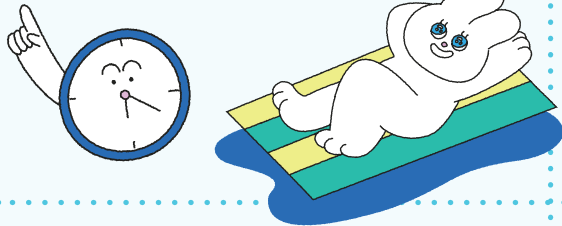


요즘 엔저 아닙니까~~?  
당첨금 전액 엔화 매입하려고요~!

아산탕정지점 이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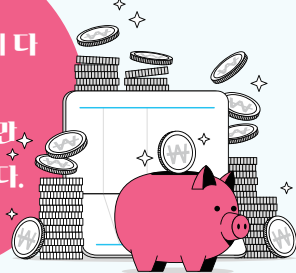
IBK기업은행에 예금하고 매월 이자를  
즐기며 보다 여유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컨설팅센터 윤정원



지점에  
중금채로 아무지게 다  
넣겠습니다.  
해해, 저는 이지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여수지점 강건



빛  
값을 거예요!!  
자유  
from 이자

외환사업부 이진주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액 상환하고,  
배우자 명품가방  
사주겠음.

진천지점 유상태



우리 지점을 사겠습니다.

일산웨스턴동지점 정민재



일단은 기절!!!  
일어나서 당첨금  
중금채 10년  
이포채 가입!

익산지점 박수정

대출 상환하고,  
가족들에게 1억씩 쏜다!!!

구월동지점 이지연

전세금 반환,  
역전세의 주인공입니다.

천안산단지점 이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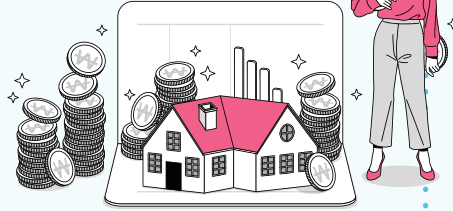


대출상환 신차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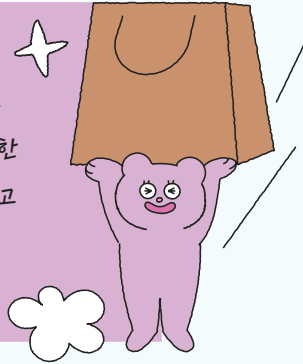
고잔중앙지점 정예민

### 1. 대출금 전액 상환 2. 마당있는 주택 구입하고 싶네요

성수동지점 원현주



집안의 모든  
부채를 상환하고  
온전히 나만을 위한  
소박한 사치 부리고  
싶습니다ㅋ  
신탁부 정재윤



입 꼭 다물고  
웃으면서  
회사 다닐  
겁니다!!!

포항공단지점 박윤경



다음 날 시크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출근한다^^  
로또 1등?  
그게 뭐라고 홈~  
논현역지점 박선후



### 지금 여자친구에게 청혼하고 행복하게 가정 꾸려 살기

리스크감리부 김태환



### 전업주부의 길로...

만수동지점 원지영

나의 퇴직금을  
저점 회식비로 내고 싶습니다 ㅎㅎ

포항공단지점 양소영



저 양소영이  
다 씹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힘들 때마다 통장에 있는 든든한  
저원금인 로또 당첨금을 보며 밝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충청지역본부 김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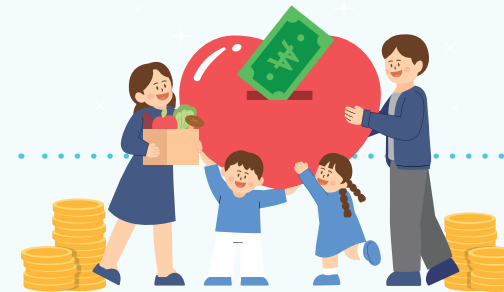
일단 남편은 모르게!!  
얼마쯤은 달려 바꿔서  
돈방석 만들어  
소파에 깔고~ ㅎㅎ  
외환사업부 김명선



### 전액 기부!!!

(하루만 1등 당첨자로 기뻐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 나를 병들게 할 수도)

산본역지점 이태훈



월요일보다 화요일에 연차 쓰고  
당첨금 수령 후 금요일에 전액 기부한다.

경남병무청발급소 임정수

월요일~ 좋아~  
스편지밥 월요일송을  
부르며 출근한다!  
죽전지점 배진아



아무도 모르게 회사 다니면서  
기업은행 주식 사놓고 고배당 받는다.

프로세스혁신부 안미라

돈으로 힘든 분들  
봉사하고 기부하고 싶다.

나주혁신도시지점 박대훈



그 돈 전액 갖고 은행 가서  
진상 고객 하루 체험하기  
(속 시원하게 큰소리 쳐보기)

ㅋㅋ 우린 언제 한번  
큰소리 쳐볼까요 ㅠㅠ

여신지원팀 이경희



먼저 남은 휴가  
다 내고 하와이로  
떠나야죠.  
다녀와서 조용히  
살고요 ㅎㅎ

하남공단중앙지점 한혜영



# 노래의 날개

가산디지털역지점 송희상 대리

# 위에

창립 62주년맞이 '제2회 IBK가왕 콘테스트'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치열한 접전 끝에 탄생한 올해의 IBK가왕, 5번 가왕 도전자  
'어른이대공원', 가산디지털역지점의 송희상 대리에게  
날개를 달아준 노래를 새로이 청했다.

글 최정순 사진 김성재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가왕





**스타 이즈 본, 제2회 IBK가왕 콘테스트 우승자**

흥의 민족에게 노래는 손 대면 달을 듯한 일상의 지근거리에 머물러 있다. 길가에 즐비한 노래방, 코인 노래방은 대개 문전성시다. 어디 그뿐인가. 마이크, 앰프, 미러볼 등 ‘방구석 노래방’ 조성을 위한 아이템 역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히로애락과 노래가 함께하는 생활이 문화가 된 사람들 사이에 뮤지션처럼 전문 녹음실에서 음원을 녹음하는 이가 적지 않다. 게다가 노래를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만큼 실력이 따라준다면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돌아온 ‘제2회 IBK가왕 콘테스트’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가산 디지털역지점의 송희상 대리는 이미 신입행원일 적부터 ‘노래 좀 부르는 친구’로 통했다. 올해의 IBK가왕으로 사당동의 한 녹음실을 찾은 그를 만나 언제부터 그렇게 노래를 잘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줄곧 잘하는지 물었다.

“영업점에서 개인 고객의 대출 상담과 사후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고객을 상대로 다소 많은 에너지를 쓰는 편이라 피로감을 적잖이 느낍니다. 그럼에도 업무 구분 없이 서로 도우려 하는 분위기, 항상 따뜻하게 직원들을 감싸주는 팀장님들, 지점장님 덕분에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영업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노래를 자주 부르는 건 물론이고, ‘IBK가왕 콘테스트’ 같은 이벤트 또한 삶의 큰 활력소가 되죠.”

**기회는 때론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

송희상 대리는 동료들 사이에서 알아주는 가창력의 소유자다. 신입시절 갔던 연수원의 무대에서, 동기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 앞에서 노래 부른 그날을 계기로 입소문이 난 그에게 IBK가왕 콘테스트 문서를 본 동기가 참가를 권했다.





“가왕 도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처음엔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참가했어요. 지난해 출전 당시, 집 근처 코인 노래방에서 녹음한 파일을 제출했고, 다행히 순위권에는 들었던군요. 후보가 돼 표를 받았는데, 나중에 순위 발표할 땐 제 이름이 보이지 않았어요. 탈락이었죠.” 그의 첫 출전이 남긴 절치부심은 동기가 되었을까, 각성이 되었을까. 심기일전한 그는 ‘제2회 IBK가왕 콘테스트’ 공고를 보고 다시금 출사표를 냈다. 무엇보다 이번엔 전략이 있었다. 지난해 IBK가왕 탈락한 뒤로 어쩐지 노래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이번에는 한 터럭의 아쉬움도 남지 않도록 동료들에게 실력을 한번 보여주기로 각오를 다졌다. 그 결과, 올해 IBK가왕이 됐다.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을 축하하며 한 곡의 노래를 부르는 지금, 그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녹음할 기회를 얻은 것이야말로 송희상 대리에게겐 혜택 중의 혜택이

다. 막강했던 올해 IBK가왕 콘테스트에서 그를 긴장하게 한 후보는 없었을까.

“1번부터 7번 도전자의 노래를 다 들어봤죠. 솔직히 해볼 만하다, 싶었습니다. 후보 모두가 잘 불렀잖아요. 꼭 노래 실력이 뛰어났다기보다 녹음 컨디션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막강했던 후보라면 으레 알겠지만, 4번 ‘슬기로운 노래생활’입니다. 4번의 노래를 듣자마자 목소리 톤이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얼마의 표 차이가 난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주 근소한 차이였을 걸요. 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을 만큼 정말 노래 잘하는 분이예요.”

**희상 씨의 노래 비결 노하우는**

노래를 잘하는 이를 볼 때 빠지지 않는 질문은 언제부터 노래를 잘했나 하는 것일 테다. 송희상 대리는 가수 포맨의 ‘못해’를 처음 들었던 13살 무렵을 떠올렸다. 우연히 접한 노래에 끌려 하루 종일 들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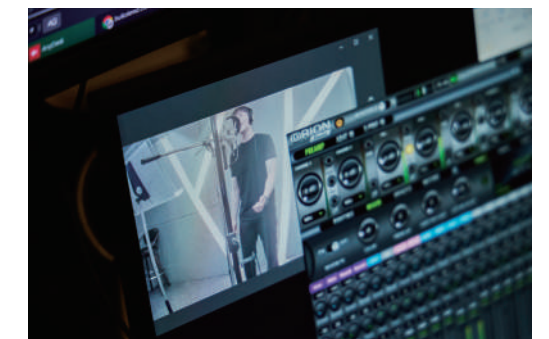
듣다 보니 따라 불러보고 싶었으며, 이후론 내내 듣고 거듭 불렀다.

“지금도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요(웃음). 처음부터 잘하지는 않았습니니다. 포맨의 ‘못해’를 듣고 따라하면서 제 목소리가 원곡과 어울리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수 신용재 모창을 꾸준히 했어요. 점차 다른 발라드 가수의 노래가 귀에 들어왔고, 가수를 바꿔가며 모창 연습을 한 결과로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노래를 부를 땐 그 곡을 들었던 당시의 감정을 담기 위해 집중합니다. 감정을 느끼고 진심을 다해 부르는 거예요. 노래 부르는 저만의 루틴이라면 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고, 그때 느끼는 감정을 담아 부르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열세 살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감정을 따라 노래를 찾아 들었고 진심을 담아 불렀다. 송희상 대리에게 가장

자신 있는 노래가 따로 없는 이유다. 올해 IBK가왕에 출전하며 임한별의 ‘밤하늘의 별을’을 불렀는데, 여기에도 ‘그날의 분위기’를 결정한 선곡의 사연이 있다.

“좋아했던 친구와 결과가 좋지 않아 마음을 달래러 친구들과 여행을 갔어요. 그때 우연히 들은 노래인데,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나 상황에 대한 묘사가 제 얘기 같았어요. 많이 듣고 많이 부르다 결국 그 곡으로 가왕이 됐네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 증폭되는 듯해요. 슬픈 날에 슬픈 노래를 부르면 눈물 날 정도로 슬픈데, 한편으론 해소돼요. 기쁜 날 신나는 노래를 부르면 더욱 신나고요. 제가 그랬듯 여러분에게 노래가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 됐으면 합니다. 고마운 존재인 IBK기업은행 창립 62주년을 맞아 ‘라라라’를 녹음해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됐어요. 상대방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느끼며 위로해주는 듯한 가사가 외닿았습니다. 함께 노래를 들으며, 회사가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과 누구보다 아끼는 마음을 느낀다면 더 없는 기쁨일 겁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를 부르면 감정이 증폭되는 듯해요... 제가 그랬듯 여러분에게 노래가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이 됐으면 합니다.**







## IBK 업글인이 알려주는 꿀팁

①

### 시도 때도 없이 부르기

연습은 해도 해도 부족한 것이므로 매일 한다. 노래가 부르고 싶을 땐 무작정 노래방을 가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부른다.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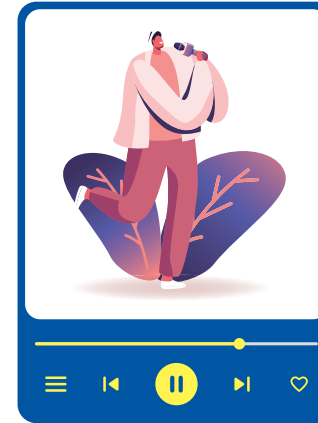
### 일상의 발성부터 신경 쓰기

노래 실력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영업 지점에서 일하는 직업에서 중요한 것이 발성이다. 평소 목을 많이 쓰기 때문에 목에 피로감을 줄이는 발성을 고민한다. 배에 힘을 주고 말하거나, 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것이 목관리로 이어진다.

③

### 모창은 또 하나의 스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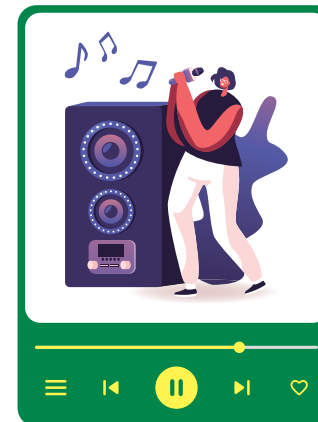
가수의 숨소리부터 노래의 특정 구간에서 어떤 기교를 내는지를 알 수 있다. 이를 따라하면서 목소리를 흉내 내다보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



## 어른이대공원 송희상 대리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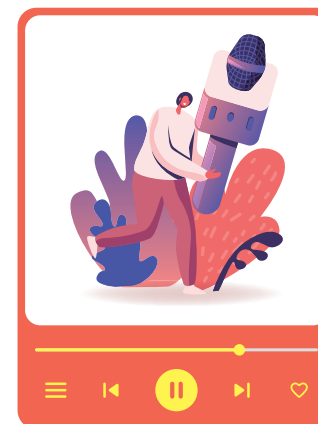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송희상 대리입니다. 먼저 저를 뽑아주신 직원 여러분, 모든 참가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래뿐만 아니라 일도 잘하는 직원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슬기로운 노래생활 박준태 대리

2위

안녕하세요. 박준태 대리입니다. 저는 지인과 함께 만든 곡으로 참여했는데, 이렇게 노래를 사랑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쟁쟁한 분들 사이에서 2등을 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은행 생활 파이팅하겠습니다. 저의 음악 좋게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꿈꾸는 사랑방 권순보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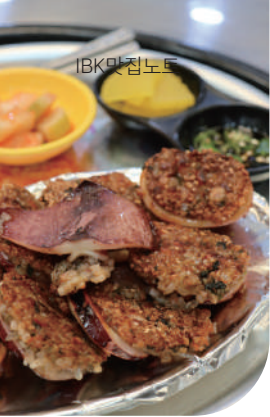
3위

안녕하세요. 권순보 과장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들이 제가 부른 노래를 듣고 좋다,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을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실력임에도 좋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BK기업은행 임직원 모두에게 건강과 사랑, 행복이 가득한, 감성적인 음악과 같은 날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 오징어순대 오픈런 맛집 모녀가리비

오픈런을 해야 한다는 오징어순대 맛집이다. 누룽지처럼 노릇노릇한 오징어순대는 식감부터 예술이다.

- △ 오징어순대 15,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대포항희망길 53
- ☎ 033-636-0092

### 현지인 추천 맛집 배달회만족

속초 현지인들이 강력 추천하는 가성비 맛집. 회가 신선하고 가격도 저렴해 다른 곳을 찾아볼 필요가 없다.

- △ 모듬회(중) 43,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대마을길 12
- ☎ 033-633-7037



### 여름 별미 문어물회 무코문어1936

문어물회와 문어국밥이 대표 메뉴다. 여름엔 물회, 겨울엔 국밥을 먹으면 된다.

- △ 문어물회 15,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일출로 23 1층
- ☎ 0507-1343-1936



### 라유짬뽕 아세요? 사쿠라멘

라유짬뽕, 냉라면 등 독특한 메뉴가 인기다. 특히 튀김을 맛있게 잘 하는 집으로도 유명하다.

- △ 라유짬뽕 11,000원
- 📍 경기 의정부시 호암로 243-12
- ☎ 031-829-5754



### 뇨끼, 파스타, 성공적 선님은파스타

매장은 아담한데 맛은 수준급. 뇨끼부터 파스타까지 모든 메뉴가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하다.

- △ 부추 우삼겹 오일파스타 13,900원
-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441번길 51-2 1층
- ☎ 031-921-0815



### 홍게가 가득! 속초751샌드위치

다른 곳에선 맛보기 힘든 홍게샌드위치가 유명하다. 게살이 가득 들어있어 한 입 베어물면 입안에 바다가 펼쳐진다.

- △ 홍게샌드위치 14,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교동로 75-1
- ☎ 033-633-0751



### 칼국수 VS 콩국수 시골손칼국수

칼국수 맛집인데, 콩국수도 뒤지지 않는다. 여름에는 콩국수, 겨울에는 칼국수로 인기 맛집!

- △ 손칼국수 7,000원
- 📍 경기 구리시 검배로48번길 10
- ☎ 031-564-3883



### 재대로 된 통골뱅이 야생골뱅이

골뱅이로 체인을 여럿 낸 전문점. 백골뱅이 찜탕, 무침, 숙회로 술맛을 돋운다.

- △ 생 백골뱅이 찜탕(상) 38,000원
- 📍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272번길 29 현대프라자 112호
- ☎ 031-978-6383

### 대구머리점 원조 원조옛카네이션

강릉 대구머리점의 원조 가게다. 양도 많고 매콤한 맛이 일품이다.

- △ 대구머리점(소) 29,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구산길 32
- ☎ 033-641-9700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해장44)

### 건강한 한식 젯놀이

강원도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한식집. 푸짐한 반찬들과 건강한 시래기밥으로 슴슴하고 건강하고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한정식당.

- △ 시래기 밥상 23,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토성면 잼버리동로 383
- ☎ 033-637-0118



### 막국수와 돼지갈비의 조합 철원막국수

막국수와 돼지갈비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곳이다. 광릉수목원이 근처에 있어서 데이트 코스로도 완벽하다.

- △ 막국수 10,000원
- 📍 경기 포천시 소흘읍 광릉수목원로 678
- ☎ 031-541-8547



2023 August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롤루랄라00000)

### 고막비빔밥 좋아하세요? 엄지네포장마차

한 번 방문하면 단골이 되어버리는 곳. 고막을 흘러넘칠 듯 담아준다고 하니 꼭 먹어보자.

- △ 고막무침비빔밥 35,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2255번길 21 엄지빌딩 1층
- ☎ 033-642-0178



### 닭갈국수 찜맛집 일산칼국수

칼국수에서 닭곰탕보다 더 진하고 깊은 육수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함께 먹는 걸절이도 일품이다.

- △ 닭갈국수 10,000원
-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경의로 467 1층
- ☎ 031-903-2208



### 찍먹도 반하는 탕수육 맛집 진태원

부추와 탕수육의 조합으로 탕수육 맛집으로 유명하다. 부먹으로 나오지만 끝까지 바삭하고 쫄쫄함을 유지하는 탕수육이다.

- △ 탕수육 중 30,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길 19
- ☎ 033-335-5567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dream0516)

### 춘천하면 닭갈비, 닭갈비 하면 통나무집닭갈비

웨이팅이 필수지만, 회전율이 좋은 편이다. 닭갈비에 막국수와 감자전이 빠지면 섭섭하다.

- △ 닭갈비 14,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북읍 신샘밭로 763
- ☎ 033-241-5999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소금안친곰국)



### 더위야 가라! 삼교리동치미막국수

시원한 동치미막국수가 메인이다. 많은 고객들이 인생 막국수로 꼽는 지역 맛집이다.

- △ 동치미막국수 9,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범일로 364
- ☎ 033-647-8830

### 세꼬시에 진심 성도횃집

참가자미 세꼬시가 주력인 횃집으로, 그 외에 별다른 메뉴가 없다. 세꼬시에 진심이라면 꼭 방문해보자.

- △ 참가자미 세꼬시(2인) 80,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안남애길 51
- ☎ 033-671-7475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tax\*\*\*\*)

with IBK

075





IBK맛집노트

**오션뷰 피자집  
피자정비소**

원하는 피자 두 가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반반피자가 유명하다. 서핑, 캠핑을 즐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피자 맛집.

- 📍 반반피자 30,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매바위길 159
- ☎ 010-7599-5049

**3대천왕 부대찌개  
호수식당**

야채는 거들뿐. 다양한 햄과 소세지의 향연을 이루는 시그니처 부대볶음. 부대찌개를 먹으려다 부대볶음에 반해버린다.



- 📍 부대볶음 1인분 10,000원
- 📍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312
- ☎ 031-865-3324

**가성비와 분위기가 좋은  
피자하우스피클**

사이드 메뉴와 피자의 궁합까지 완벽한 분위기 맛집. 퇴근하고 피자 와 맥주와 함께라면 이게 바로 행복이다.

- 📍 Diavolo 13,000원
-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187번길 21 1층
- ☎ 0507-1334-7413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q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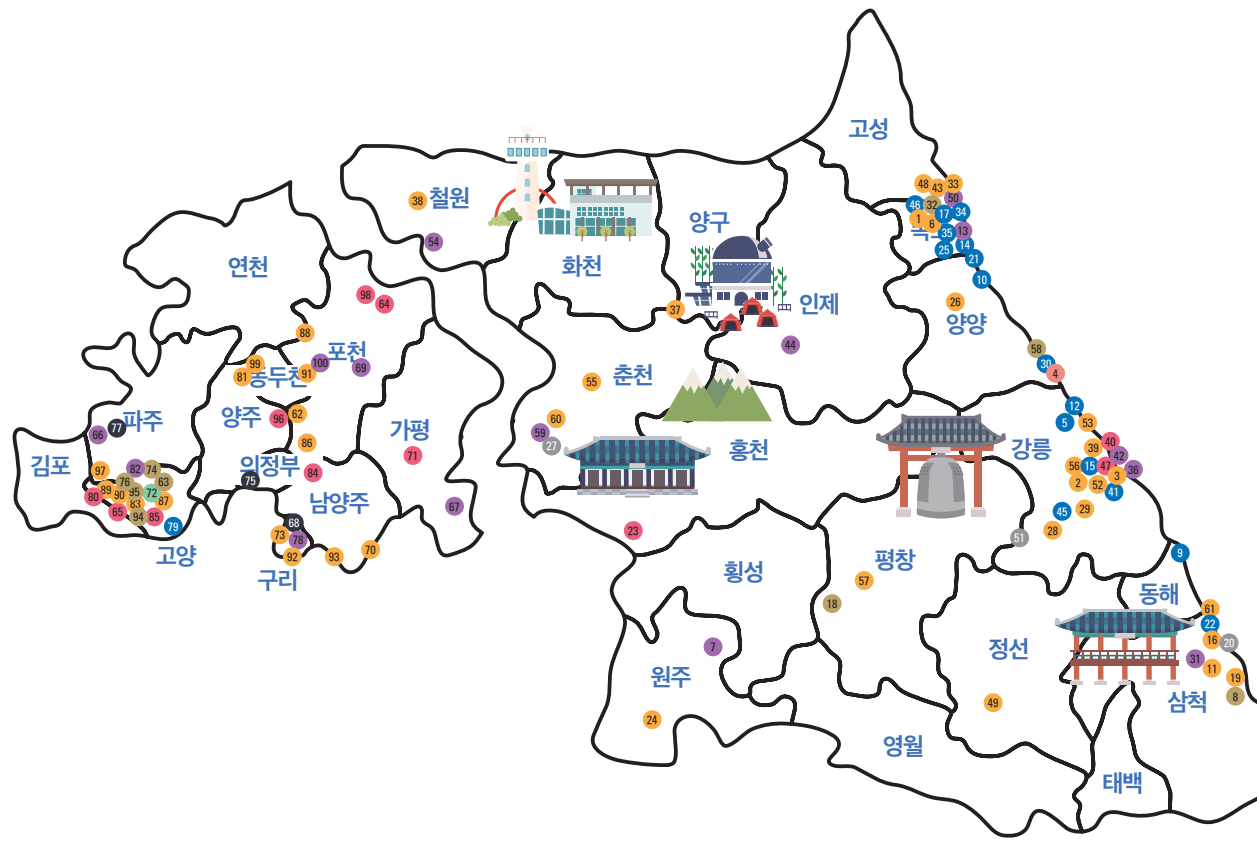
**싱싱한 해물파티  
홍대포**

동해 바다로 힐링하러 갔다면 마지막은 홍대포로 몸보신! 싱싱한 해물과 시원한 국물이 힐링여행으로 완벽하다.

- 📍 해천탕 소 70,000원
-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감추로 6-1
- ☎ 033-535-7646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 (@도베를안)



● 한식 ● 분식 ● 육류 ● 해산물 ● 카페 및 베이커리 ● 면류 ● 아시아 ● 일식 ● 중식 ● 양식

**IBK 임직원들이 추천하는 강원도-경기북부 맛집 리스트**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b>강원도</b>				
1	가미술살림탕해장국	한식	동해대로 4332-1	033-635-1875
2	감자유원지	한식	경강로215번길 7	0507-1370-7117
3	감자찌반지	한식	공항공로29번길 7	033-646-3760
4	가북이서프바	카페	화상해안길 247	0507-1321-8354
5	게네집	해산물	주문진서당길 27	033-662-0513
6	공가네 감자용심이	한식	엑스포로2길 33	033-636-6352
7	광일막국수	면류	경강로 2887	033-342-2693
8	굿버거브라더스	양식	천화로 63-5	070-4001-9096
9	금진횃집	해산물	원화로 461	033-534-0900
10	낙산바다회마을	해산물	해맞이길 4	033-672-3341
11	담다	한식	청운3길 56-1	033-521-8522
12	대영우동	해산물	해안로 1767	033-661-1108
13	대포면옥	면류	설악산로4번길 163-11	033-632-6888
14	대포횃집	해산물	대포항회망길 59	033-636-5844
15	독도네	해산물	육천로 47	033-653-9658
16	동해담갈비 한곡집	한식	현성로 2-2	033-534-3210
17	동해안불면대개	해산물	해오름로188번길 17	033-636-5897
18	담바거	양식	태기로 137	033-334-5979
19	둘애홍합밥	한식	새천년도로 615	033-573-9544
20	만강홍	중식	평원로 20	033-532-5644
21	모녀가리비	해산물	대포항회망길 53	033-636-0092
22	무코몬어1936	일식	송학로 23	0507-1343-1936
23	부대감	육류	송학각번로 15	033-432-9295
24	방가삼대얌큰해장국	한식	장미공원길 67-2	033-744-4710
25	배달회만족	해산물	청대마을길 12	033-633-7037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26	범골두종닭	한식	설악로 2073-33	033-672-1230
27	보문각	중식	약사고개길 42	033-254-8375
28	산촌	한식	구산길 83	033-641-9230
29	삼거리동자미막국수	한식	범일로 364	033-647-8830
30	성도횃집	해산물	안남애길 51	033-671-7475
31	세일막국수	면류	전천로 144	033-522-5224
32	속초751센드위치	양식	교동로 75-1	033-633-0751
33	속초회관	한식	중앙로 432	0507-1359-2707
34	신유네 회포장	해산물	변영로 200	010-5944-6560
35	아미이종계	해산물	아바이마을길 3-4	033-633-9019
36	안목바다식당	면류	성덕로 148	033-652-3373
37	양구재래식순두부	한식	학안로 6	033-482-4475
38	아람손만두국	한식	태평로 1831	033-455-0171
39	엄지네포장마차	한식	경강로2255번길 21	033-642-0178
40	여포갈비	육류	하평길 64	033-651-2292
41	연화마을 고막비빔밥	해산물	홍호길 100-1	033-644-0979
42	연동막국수	면류	청화로 85-40	033-653-1255
43	옛날수제비	한식	교동로 67	033-633-2708
44	옛날면대막국수	면류	자작나무술길 1113	033-462-1515
45	원주옛카페이션	해산물	구산길 32	033-641-9700
46	완도회식당	해산물	명거리4길 21	033-631-1418
47	이정희차돌박이김치두루치기	육류	성덕로남로174번길 39	033-651-6200
48	갯놀이	한식	쟁버리동로 383	033-637-0118
49	전영진이가	한식	둘더리길 1	033-563-1043
50	정든식당	면류	변영로105번길 39	033-631-1287
51	진태원	중식	황계길 19	033-335-5567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52	참순찰떡방	한식	남구길5번길 18-1	033-643-7778
53	철죽소머리집	한식	철죽길 42	033-662-3747
54	철원막국수	면류	명성로158번길 13	033-452-2589
55	춘천통나무집담갈비	한식	신생발로 763	033-241-5999
56	포남사골용심이	한식	남구길10번길 11	033-647-2638
57	풀나눔	한식	매일꽃길 13	033-335-0034
58	피자정비소	양식	매바위길 159	010-7599-5049
59	함흥냉면옥 튀게집	면류	효자로24번길 8	033-252-4994
60	해정담갈비	한식	금강로62번길 11-1	033-256-5910
61	홍대포	한식	감추로 6-1	033-535-7646
<b>경기 북부</b>				
62	1호침샘밥	한식	감바위길 26	031-543-8244
63	반110	양식	율천로1번길 7-7	031-908-1968
64	갈비987	육류	회동로 2065-1	031-532-3077
65	고두리김치생삼겹살	육류	무궁화로 18	031-907-0223
66	교하제면소	면류	평화로 725	031-957-8989
67	금강막국수	면류	율동로 23	031-584-8387
68	기무초밥	일식	경춘로 274	031-557-0557
69	돌가복식당	면류	화동로 393	031-536-6777
70	돌미리집	한식	북한강로30번길 2	0507-1377-6159
71	명월집	육류	호반로 38	031-584-4111
72	몽알로이	동남아	일산로316번길 53-5	070-8236-9138
73	미성식당	한식	체육관로172번길 38	031-563-8832
74	범가사버거	양식	일산로372번길 46	031-813-9010
75	사쿠라엔	일식	호암로 243-12	031-829-5754
76	선넴파스타	양식	일산로441번길 51-2	031-921-0815

번호	상호	종류	주소	연락처
77	손가주방	일식	가사내길 126-11	031-947-4668
78	시골순살국수	면류	감배로48번길 10	031-564-3883
79	야생골뱅이	해산물	화신로272번길 29	031-978-6383
80	우아우아	육류	무궁화로 43-50	031-929-5592
81	원초초계탕	한식	아수로 35	031-861-0781
82	일산칼국수	면류	경의로 467	031-903-2208
83	일오달갈비 라페스타	한식	중앙로 1305-56	031-905-9915
84	창우기든	육류	금강로 1586	031-572-3493
85	정릉연탄갈비	육류	강릉로74번길 37-29	031-902-1100
86	철원막국수	한식	광릉수목원로 678	031-541-8547
87	창담순대국	한식	경의로 373	031-906-4556
88	창산별미	한식	창신로 1215	031-536-5362
89	춘천명동면지담갈비	한식	대산로11번길 24-2	031-912-9989
90	코주방	한식	대산로11번길 5-20	070-8800-5200
91	콤마루	한식	포천로 1501	031-532-2234
92	도령매주콩	한식	별말로 77	031-555-7906
93	탈랑자연애	한식	팔당로139번길 22	031-577-5208
94	포플로피자	양식	정발산로 43-20	031-932-9337
95	피자하우스피클	양식	무궁화로187번길 21	0507-1334-7413
96	하늘면곰탕만큼 생고기두루치기	육류	호국로 515	031-542-9188
97	할머니목집	한식	돌곶이길 108-5	031-942-3017
98	항유갈비	육류	성창로 1287-13	031-534-9770
99	호수식당	한식	중앙로 312	031-865-3324
100	홍두깨국시집	면류	정릉동길 24	031-535-7973



현재에서 근대로,  
근대에서 미래로 타임슬립

군산 근대문화유산과  
선유도

仙遊島

군산은 우리 근대문화유산이 가장 잘 남은 도시다. 일제는 비옥한 호남평야에서 나온 쌀을 수탈했는데, 그 전초기지가 군산항이었다. 당시 상황을 배경으로 채만식이 <탁류>를 썼고, 이 소설을 배경으로 걷는 길이 '탁류길'이다. 탁류길에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 <장군의 아들> 등에 나온 정겨운 촬영지를 만날 수 있다. 아울러 차 타고 가는 섬인 선유도에 들러보자. 예전 바다였던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달리는 길은 마치 미래로 타임슬립 하는 듯하다.

글, 사진 진우석



**탁류길 따라 1930년대로 시간여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 여행의 시작점으로 탁류길이 시작된다. 박물관은 다양한 전시를 통해 과거 무역항인 옛 군산의 모습을 생생하게 떠오르게 한다. 특히 근대관은 증기기관차 영상과 함께 문이 열려 흥미롭다. 그 안에는 인력거조합, 술도가, 잡화점, 쌀 창고 등 1930년대의 저잣거리가 펼쳐진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위해 군산항을 통해 조선의 쌀을 가져갔다. 1926~1928년에는 조선의 전체 쌀 생산량의 1/4을 수탈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 채만식의 <탁류>다. 박물관 왼쪽에 옛 군산세관이 있다. 대한제국기에 건립된 벽돌 건물로 고풍스러운 모습이 잘 남아 있다. 아이들이 해설사와 함께 다니며 역사 공부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옛 군산세관에서 도로를 건너면 수덕산 공원으로 들어선다. 군산구불길 리본과 안내판이 곳곳에 있어 길 찾기가 어렵지 않다. 공원은 제법 숲이 우거져 시

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공원을 내려오면 해망굴이 나온다. 마침 인력거 한 대가 한 쌍의 커플을 싣고 해망굴로 들어선다. 컴컴한 동굴 속에서 인력거를 보니, 그야말로 과거로 들어온 기분이다. 해망굴은 1926년 도심과 해망동을 연결하기 위해 뚫었다. 지금은 주민들의 여름 피서지로 인기가 좋다. 해망굴을 나오면 군산 시민의 휴식처인 월명공원으로 올라선다. 이곳은 울창한 벚나무가 가득해 봄철 벚꽃놀이 명소로 유명하다. 월명공원의 상징은 수시탑(守市塔)이다. 일제강점기 신사가 있던 자리에 군산 발전을 기원하며 세웠다. 채만식문학비를 보고 긴 계단을 내려오면 벽화마을인 말랭이마을이다. 말랭이마을 앞에 과거 히로쓰 가옥이라 부르던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 있다. 해방 후 적산가옥으로 과거 일본인들이 군산에서 부유하게 살았던 흔적을 보여준다. 고풍스럽고 이국적인 분위기 덕분에 <장군



01



02



03

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등 많은 한국영화가 여기서 촬영됐다. 근처에 <8월의 크리스마스> 배경인 초원사진관이 있으니 함께 둘러보면 좋다. 탁류길의 마무리는 금암동에 자리한 재보선창에서 하는 게 제격이다. 예전 이곳 상권을 장악한 '재보(언챙이)'라고 불리는 객주가 있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재보선창에는 군산의 새로운 명물인 비어포트가 들어서 있다. 널찍한 수제맥주 체험장으로 군산에서 생산하는 보리와 맥아로 수제맥주를 만드는 업체들이 상주한다. 창밖으로 시원하게 펼쳐진 금강을 바라보며 맥주를 들이켜는 맛이 일품이다.

**차타고 가는 신선의 섬, 선유도**

군산에서 선유도 가는 길은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새만금사업으로 바다가 육지로 변하고, 고군산군도의 신시도와 무녀도를 징검다리처럼 지나 선유도에 닿는다. 고군산군도는 유인도 16개와 무인도 47개로 이뤄진 섬의 무리다. 고군산은 옛 군산이란 말이다.



04

- 01 대한제국기에 건립된 벽돌 건물인 옛 군산세관
- 02 인력거가 있는 해망굴. 마치 일제강점기로 타임슬립 한 것 같다.
- 03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근대관은 마치 1930년대처럼 느껴진다.
- 04 탁류길의 출발점이자 군산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선유도에 수군만호가 있던 군산진(群山鎭)이 있었다. 군산의 중심이 선유도에 자리했다. 군산진은 1710년 육지인 군산 해망동 부근의 진포(鎭浦)로 이전했는데, 이때 ‘군산’이란 이름까지 가져갔다. 그래서 선유도를 비롯한 섬들을 ‘고군산군도’라고 부른다. 선유도의 최고 명소는 선유도해수욕장이다. 선유도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선유팔경 중 3개가 선유도해수욕장에 해당한다. 선유도해수욕장에 뛰어들기 전에 집라인을 즐길 수 있다. 해수욕장 왼쪽에 자리한 거대한 탑이 집라인 타워다. 1층에서 벨트와 헬멧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타워에 올랐다. 타워의 높이의 약 45m, 아파트 11층에 해당한다. 후들후들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고 출발대에 서자 선유도해수욕장의 수려한 풍광이 눈에 들어온다. 출발! 구령과 함께 출발대 문이 열리자 엄청난 속도로 와이어를 타고 내려간다. 이때가 가장 짜릿하다.



잠깐 정신이 어질하다가 점점 주변 풍경이 보이기 시작한다. 백사장에서 노는 사람들 위를 날아가는 맛이 일품이고, 왼쪽으로 푸른 바다가 넘실거린다. 속도가 점점 줄더니 어느새 도착지가 가까워진다. 거리는 약 700m인데 순식간에 도착했다. 아쉬워 입을 찹다신다. 이제 해수욕장에 몸을 담글 차례. 깨끗하고 고운 모래가 깔린 해변은 거대한 운동장 같다. 광재구 시인은 여기서 ‘가장 맑고 넓은 원고지’를 떠올리며 ‘선유도’라는 시를 쓰기도 했다. 해변에서 바다로 갈수록 모래에서 갯벌로 바뀐다. 시나브로 뜨거웠던 대지는 식으면서 노을이 내려앉는다. 선유팔경 중 하나인 선유낙조의 시간이다. 썰물 덕분에 넓게 열린 갯벌을 따라 걷는다. 노을은 갯벌까지 붉게 물들었다. 갯벌에 닿는 발바닥 촉감이 부드럽다. 첨벙첨벙 바다를 걸으면서 위대했던 하루를 마감한다.

- 05 초원사진관은 영화에 나온 그대로 남아 있어 반갑다.
- 06 수국이 곱게 핀 신흥동 일본식 가옥
- 07 비어포트는 군산의 새로운 명물로 걷기를 마치고 시원하게 한잔하기 좋다.
- 08 선유도 집라인은 바다를 시원하게 가로지른다.



군산 탁류길과 선유도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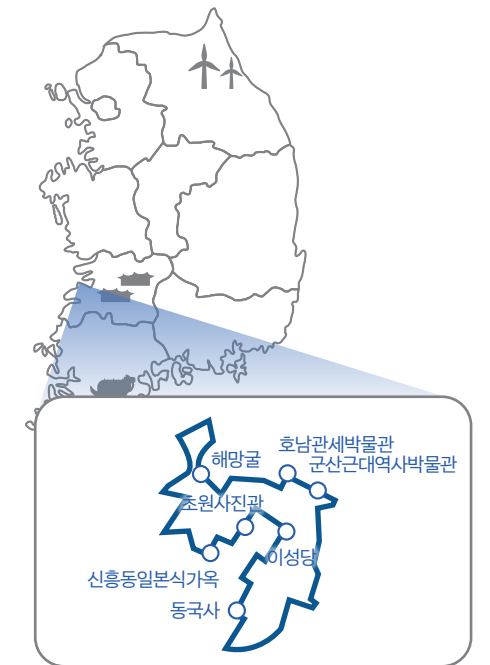
군산 탁류길 코스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해망굴~월명공원~동국사~패보선창~군산근대역사박물관, 거리 7.5km, 2시간쯤 걸린다. 선유도 아름다움의 핵심은 선유도해수욕장이다. 짜릿한 집라인은 필수이고, 대봉전망대와 장자도 스카이워크 등을 걸어보자.

맛집

군산의 별미는 박대다. 박대는 참새대와 생선으로 말려서 구워 먹는 걸 최고로 친다. 선유도는 남도 밥상(0507-1302-9832), 군산 시내는 일력생선(063-445-6445)이 박대구이 정식을 잘한다. 활어회는 선유도어촌계수산물센터의 고래포차(010-7511-1270)가 푸짐하다.

숙소

군산 시내에는 깨끗한 호텔과 모텔이 많다. 선유도의 선유도리조트(063-471-0999)가 깨끗하고, 장자도에 많은 펜션이 있다.





## 절벽 위, 푸른 에게해의 골목을 걷다

그리스 산토리니는 푸른 로망의 섬이다. 흰 담장, 파란 지붕의 골목을 걷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에 빠져든다. 코발트빛 에게해와 화산이 빚어낸 땅은 발끝을 추억으로 물들인다.

표.사진 서영진

## 그리스 산토리니

# Santorini Greece





01

01 에게해를 바라보는 교회당과 절벽

### 절벽 위 마을, 피라~이아 트레킹

산토리니는 에게해의 400여 개 섬 중 단연 매력적이다. 흰 담벽과 자갈로 치장된 골목길, 푸른색과 감색 지붕의 교회당은 에게해와 색의 조화를 이룬다. 섬의 윤곽은 영화, 엽서, 드라마가 연출한 상상과 소문보다 선명하다. 고대 키클라데스 제도의 화산섬은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는 아득한 장면을 지녔다. 산토리니의 대표마을이 '피라'와 '이아'다. 두 마을은 초승달 모양의 섬 서쪽 절벽 위에 들어서 있다. 옛 항구를 지닌 피라는 섬 주민들의 오랜 터전이었고, 이야는 석양에 물든 풍경이 눈부시다. 휴양객들이 발코니 수영장에서 망중한을 즐길 때, 트레킹 마니아들은 피라와 이아 마을 사이를 걷는다. 에게해와 나란히 이어지는 하이킹 코스는 약 12km, 3시간이 걸린다. 마을 골목을 기웃거리고 전망대에서 바다에 취하는 시간이 어우러지면 만나절이 꼬박

소요된다. 산토리니를 걷는 여행자들은 그리스 전통 레스토랑인 타베르나에서 커피 한잔 마시고, 파란 대문 계단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며 '빛에 씻긴 섬'을 향유한다. 산토리니를 지금의 초승달 모양으로 만든 것은 3600년 전 미노아 문명이 절정일 때 발생한 화산폭발이었다. 피라의 흰 가옥들은 화산이 빚어낸 칼데라의 정상 부위에 세워졌다. 트레킹은 피라의 중심 테토코풀루 광장에서 시작한다. 광장 주변에 그리스 식당과 가게들이 몰려 있고, 아침에는 이곳 주민들이 갓 잡은 생선을 내다 판다. 피라는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들지만 정겨운 사람 냄새가 남은 곳이다. 피라의 옛 항구 방향으로 가는 길은 골목들이 미로처럼 늘어섰다. 고고학 박물관과 클럽으로 흥청거리

는 에리트루 스타부르 거리는 한낮에 한적한 모습이다. 고대 그리스 공예품을 판매하는 이파판티스 거리, 보석가게들이 즐비한 골드 스트리트도 빛의 추임새를 더한다.

### 흰 담장, 푸른 대문으로 치장된 골목

옛 항구로 내려서는 계단에는 당나귀들이 레트로 감성의 소재가 된다. 케이블카가 건립됐지만 당나귀는 아직도 항구의 가파른 경사면을 오르는데 귀하게 쓰인다. 최근에는 산토리니 시장이 동물보호를 위해 당나귀 탑승을 자제해 줄 것을 관광객들에게 요청한 상황이다. 케이블카 승강장을 벗어나야 길은 비로소 번잡함을 덜어낸다.

피라를 벗어나 피로스테파니, 이메로비글리 마을로 연결되는 코스는 호흡이 더디게 흐른다. 에게해의 하얀 집들은 한적함 속에서 빛을 발한다. 피로스테파니의 가옥들은 해발 300m 높이에 들어서 있다. 좁은 골목길을 채운 집들은 아담한 문과 창이 제각각이다. 파란 대문을 열면 낮은 카페와 갤러리가 담겨 있다. 부겐빌리아 꽃이 핀 계단에 걸터앉아 '블루, 화이트, 레드'의 눈부신 변주만 감상해도 시간은 파도처럼 흘러간다.

에게해는 술한 문명의 요람이었고 바다는 자양분이었다. 미노스, 이오니아, 시칠리아인들이 바닷가에 도시를 세웠고 산토리니에서는 고대 키클라데스 문명이 번영했다. 성 니콜라스 수도원, 성 아나스타시오스 교회 등은 이멜로비글리 인근에서 만나는 유적이다. 돔과 세 개의 종이 매달린 교회 외관은 키클라데스 건축의 대표적인 양식이다.

절벽 꼭대기의 이메로비글리 마을 전망대에 오르면 트레킹 코스가 한눈에 담긴다. 남쪽으로 피라, 북쪽으로 이아마을이 아슬아슬 매달려 있다. 이아 마을에서 시작된 칼데라 능선은 피라를 지나 남쪽 끝인 '아크로티리' 곳까지 18km 펼쳐진다.



02



03

02 절벽 위 산토리니의 흰 가옥들  
03 옛 항구와 연결되는 계단과 당나귀

이멜로비글리의 절벽 아래에는 '스카로스 록'이 위치했다. 산토리니는 로마, 베네치아, 오스만제국의 지배를 받은 과거를 지녔고 스카로스 록은 바닷가 요새 역할을 했다.

푸른 바다 너머 산토리니의 부속 섬들 주변에는 범선과 유람선들이 떠 있다. 네아 카메니, 팔레 아카메니 섬은 산토리니의 화산지형을 고스란히 담아낸 곳이다. 네아 카메니에서는 분화구까지 화산 트레킹이 가능하고, 팔레아 카메니 섬은 유황온천수에서 헤엄을 칠 수 있다.



### 화산섬 끝자락, 황홀한 석양의 '이아'

이멜로비글리를 지나면 길은 황량해진다. 하얀 담장이 끝나고 잡목과 거친 돌벽, 붉은 흙길이 이어진다. 말 없는 바다와 이아로 향하는 차가림이 묵묵한 동행이 된다. 걷기 여행자들의 흔적도 드물다.

성모승천 예배당을 만나면 서쪽으로 바다가 열리고, 동쪽으로 평지가 탁 트인 광경이 펼쳐진다. 거친 흙길의 끝자락에 이아마을이 모습을 드러낸다. 이아마을은 산토리니의 북쪽 끝 절벽 위에 외롭게 들어서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이아는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큰 가옥들은 선주의 소유였고, 선원들은 석회암 동굴에 집을 짓고 살기도 했다. 방과 주방이 분리된 아치형 동굴은 키클라데스 건축양식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다. 이들 동굴양식은 관광객들 숙소의 모티브가 됐다. 외딴 어촌마을은 일몰 명소로 소문이 나면서 피라 못지않게 유명해졌다. 대리석이 깔린 마



04 화산 칼데라에서 이아로 연결되는 트레킹 코스  
05 트레킹 코스에서 바라본 에게해와 산토리니의 화산섬  
06 이아의 황홀한 일몰과 풍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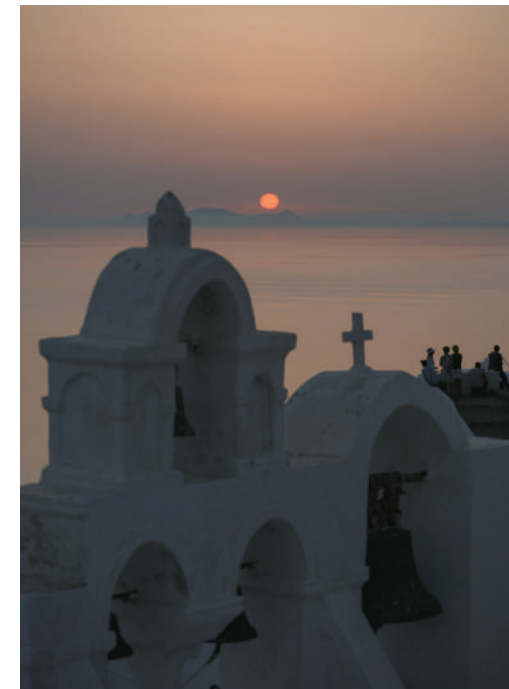


블로드, 언덕 아래 숨은 포구인 아모디 베이, 양증맛은 서점인 아틀란티스 서점도 명소가 됐다.

해질녘이 되면 골목과 기념품 가게를 배회하던 모든 형태의 여행자들은 아기오스 니콜라스 성채 주변에 모여든다. 사람들은 성벽과 담장에 기대거나 테라스에 누워 에게해의 석양을 맞는다. 걷기여행도 이곳 성채에서 마무리된다. 마을 너머 작은 섬 위로 해가지고 붉은빛은 바다를 물들인 뒤 하얀 마을 위에 내려앉는다. 풍차와 교회당 십자가, 어깨를 기댄 연인들의 입맞춤이 노을 안에 담긴다.

그리스 사람들은 산토리니를 '티라'로 부른다. 섬은 페리사 비치, 카마리 비치 등 낮은 해변을 간직하고 있다. 척박한 토양에서 출하된 산토리니의 디저트 와인 역시 명물에 속한다. 산토리니는 6~8월이 성수기, 9월을 넘어서면 섬은 한적해지고 길은 걷기에 수월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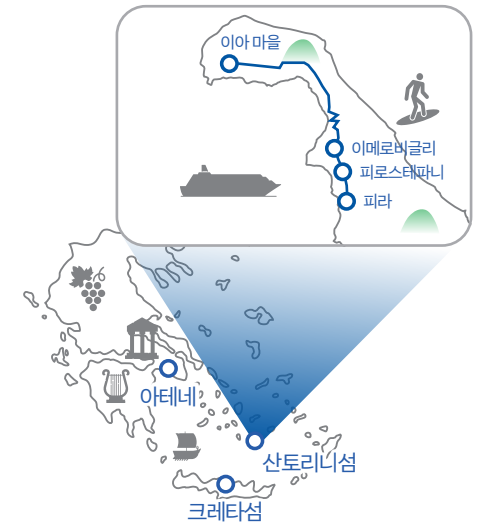
07 교회당 너머 해가 저무는 이아마을의 석양



### 산토리니 피라~이아 트레킹



피라마에서 이아마을까지 12km 코스로, 3~4시간이 소요된다. 1/3 지점인 이멜로비글리까지는 흰 골목길이 이어지며 그 이후로 이아까지 화산 흙길이다. 완만한 경사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연결돼 초보자도 하이킹이 가능하다. 마을 구간에서 햇볕을 피해 걸으려면 오전에 출발하는 것을 추천한다. 이멜로비글리 이후로는 물을 구할 가게나 좌판이 드물어 물을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선글라스와 모자도 필수다. 트레킹이 끝난 뒤 이아에서 피라까지 수시로 운행하는 버스를 타고 귀환이 가능하다.



08 섬의 명물인 산토리니 와인





자연의 경이로움을 실감하다,

황석산

이열치열 정신으로 무더위 정면돌파

질은 산록과 시원한 계곡이 교차하는 황석산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산 중 하나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폭포를 방불케 할 정도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하는 계곡을 중심으로 등산 코스가 구성된 덕분에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을 만끽할 수 있어 등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함께했던 유쾌한 황석산 등반의 추억을 되짚어본다.

글 하상원 사진 이대원 영상 윤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01

**5형제, 날개를 펼치다**

때 이른 장마가 잠시 주춤한 사이,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한여름을 무색하게 할 정도의 고온과 불쾌지수를 한껏 끌어올리는 높은 습도 탓에 무기력한 일상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타파하기 위한 전환점 마련이 절실해지고 있다. 예상치 못한 더위의 습격에 일상의 활기를 잃어가던 김광주 대리 역시 호시탐탐 반전의 계기를 노리고 있었지만, 바쁜 업무에 쫓겨 쉬이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렇게 힘겹게 무더위와 싸우며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김광주 대리는 우연히 'IBK산'을 통해 황석산 등반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다. 평소 '망설임은 사치요, 기회는 잡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원칙에 충실해 온 김 대리는 곧바로 지원했다. 김광주 대리는 "이열치열이라는 말따나 때 이른 무더위를 초장에 제압하려면 등산만큼 좋은 방법도 없을 거라는 생각에 황석산 등반을 지원하게 됐다"

라며 "다른 무엇보다 함께 등산을 할 '파티원'을 모집하는 일이 가장 힘들었다"라며 너스레를 떨어보였다. 김광주 대리의 마수(?)에 걸린 인원은 함께 입행한 동기들이었다. 그의 동기들에게 전화를 걸어 '동기모임'을 전면에 내세우며 황석산 등산 합류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포기를 모르는 남자' 김광주 대리의 집요한 영업 끝에 등산에 참여하게 된 인원은 김하늘, 이영채, 홍정표, 조성환 대리 등 총 5명이었다.

**오늘의 목표 '무사고 안전등반'**

5형제가 시작지점인 거연정휴게소에 모인 시간은 제법 늦은 오전이었다. 새벽부터 바지런히 움직였지만, 서울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에 위치한 황석산까지의 여정이 생각보다 더욱 험난했던 까닭이

다.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다소 늦어진 등산에 5형제의 마음이 바빠졌다.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등산에 앞서 준비운동을 빠뜨릴 수는 없는 법. 각자의 방식으로 몸을 풀어 본격적인 등산을 대비했다. 평소 등산을 즐긴다는 '이지맨' 김하늘 대리는 "산의 높이가 낮다고 방심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다"라며 "이번 등산의 목표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다"라고 강조했다. 5형제가 함께 오를 해발 1192미터의 황석산은 등산에 익숙한 이들이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오를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로 평가받는다. 반대로 말하면, 동네 뒷산을 오르는 것마냥 쉽지만은 않은 코스라는 의미다. 하지만 한여름 무더위와 정면승부를 택한 5형제의 걸음마다 자신감이 흘러넘친다. 반드시 정



03



04

01 본격적인 등산에 앞서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고 있다.  
02 오랜만에 밟아보는 흙길의 포근함에 발걸음이 가벼워진다.  
03 힘든 와중에도 '인생샷'은 놓칠 수 없지!  
04 무사고·안전 산행을 기원하며... '나도 살포시 돌맹이 한점'

상에 오르겠다는 의지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그렇게 꽤 긴 시간 동안 꼼꼼히 준비운동을 마친 5형제는 다시 한번 신발 끈을 조이고 각자의 짐을 아무지게 둘러맸다. 자, 본격적인 등산의 시작이다.

**황석산에서 만난 우리의 아픈 역사**

거연정휴게소에서 출발한 5형제는 거침없이 걸음을 내디뎠다. 오늘의 등산코스는 우전마을에서 시작해 사방댐과 피바위, 황석산성을 거쳐 정상으로 이어지는 최단 코스로 왕복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난이도가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코스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코스와는 비교를 불허할 정도로 장엄한 풍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스팔트 도로가 관통하는 우전마을과 사방댐을 지나 흙냄새 물씬한 땅을 밟은 지 30여 분. 오늘 등산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인 '피바위'에 도착했다. 웅장



2023 August



한 바위 언덕 위로 세찬 물줄기가 흘러내리는 장면은 한여름 무더위를 통째로 휩쓸어가 버릴 정도로 경이로웠다.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황석산만의 특별한 풍경에 취한 5형제는 그렇게 한참 동안 시원한 물줄기를 바라보며 망중한을 즐겼다.

가장 먼저 피바위에 도착해 쏟아지는 물줄기에 대뜸 머리를 들이민 홍정표 대리는 “그동안 다녔던 산 중 단연코 황석산이 1등이다”라며 “지금 이 순간만으로도 울여름 피서를 충분히 즐긴듯한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환상적인 풍광과는 달리 피바위에는 우리네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다. 군대와 민중의 구분 없이 조선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전쟁에 참여했던 임진왜란 당시 황석산 인근 주민들도 왜구에 맞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다. 남성들은 물론 여성들도 치마폭에



05 등산 중 방심은 금물. '가파른 경사지만 마냥 즐거워'  
 06 충분한 수분 보충으로 기력 충전 완료  
 07 이 맛에 등산한다! '피바위 앞에서 5형제'  
 08 10분간 주어진 꿀맛같은 휴식 시간



돌을 나르거나 병기를 수리하며 자신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황석산성의 함락으로 패배가 기정사실화 되자 여성들은 왜구의 손에 치욕적으로 죽느니 차라리 스스로 깨끗하게 생을 마감하겠다고 치마로 얼굴을 감싼 채 바위에 몸을 던졌다. 당시 수많은 여인들이 흘린 피와 한이 바위에 스며들어 붉게 물들었으니, 이를 기억하기 위해 '피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피바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이영채 대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 우리 선조들의 아픈 역사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라며 “이번 산행을 계기로 후손들의 현재를 지켜준 선조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정상까지 단 100계단, '낙오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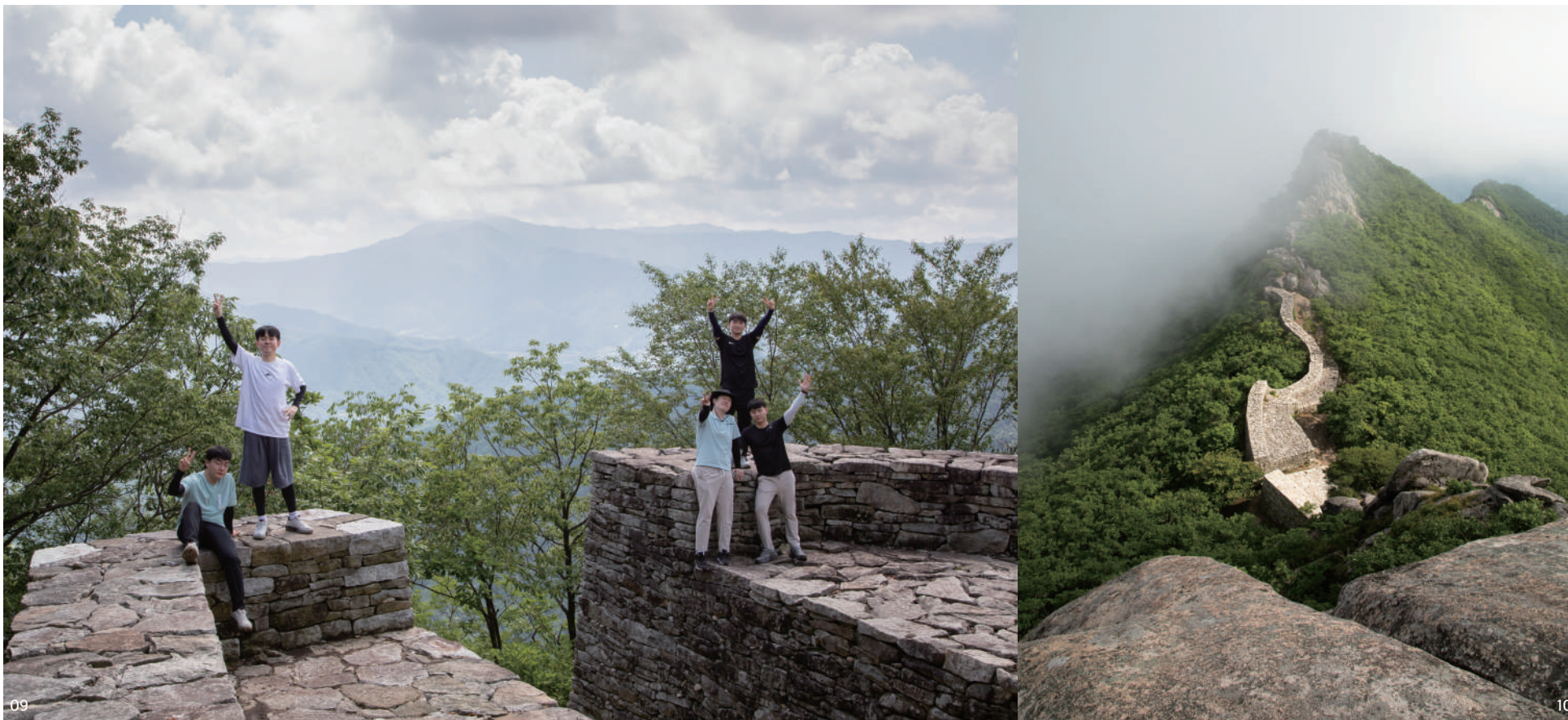
예상보다 오랜 시간 머물렀던 피바위를 지나자 비로소 '등반'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가파른 산길이 모습을 드러냈다. 습한 날씨가 이어진 탓에 며칠 전 내린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듯, 길 곳곳에 작은 웅덩이가 형성돼있을 정도로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다. '시련은 있을지언정 포기는 없다'고 했던가. 물기를 한껏 머금은 산길에 자꾸 발이 미끄러졌지만, 5형제는 오히려 더욱 힘차게 걸음을 옮겼다.

피바위 이후로 선두로 산을 오르며 후발주자들에게 큰 소리로 위험요소를 경고해주던 조성환 대리는 “산이 그리 높지 않아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예상보다 길이 더 험하고 경사가 가팔라 체력 소모가 심하다”라며 “그래도 이왕지사 등산에 나선 마당에 정상은 찍어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환하게 웃어보였다.

정상까지 오르는 내내 5형제는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며 종종 선두를 교체했다. 선두에 선 사람은 자신이 확인한 위험요소를 뒷사람에게 전하며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노력했다.







황석산 INFO



- 주소 경남 함양군 서하면
- 코스 우전마을 - 사방댐 - 피바위 - 황석산성 - 정상
- 문의 055-960-0544

탐방로 구간별 난이도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등산 초반에 이어지던 '수다'는 다소 줄었지만,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파이팅' 구호의 데시벨은 더욱 높아졌다. 그렇게 1시간 30분 가장 험난한 산길을 지나자 인공적으로 만든 계단이 모습을 드러냈다. 마침내 정상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천국의 계단'에 이른 것이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도착한 황석산 정상은 차라리 환상적이기까지 했다. 사방에 흰하늘에서 고고하게 지상을 내려다보는 느낌이 바로 이런 것일까. 5형제는 잠시 감상에 빠진 듯 멍하니 정상에서의 풍경을 감상했다. 등산 내내 이번 산행을 신청한 김광주 대리에게 장난스러운 원망을 늘어놓던 동기들이 정

산 등반 촬영을 위해 한 데 모이자 '고맙다'며 가볍게 어깨를 치는 모습에서 진한 동기애를 느낄 수 있었다. 김광주 대리는 "얼른 내려가서 갈매기살에 시원한 막걸리 한잔하고 싶다"라며 "이번 산행을 계기로 동기들과 자주 소통하고 모임을 가질 계획이다"라며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등산에 나서준 동기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세계적인 등산가들은 하나 같이 '등산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은 하산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그만큼 하산 시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생각보다 힘들었던 등산으로 인해 몸

은 녹초가 됐지만, 5형제는 경계심을 바짝 세운 채 조심스럽게 하산을 시작했고 결국 단 한 건의 안전 사고 없이 무사히 등산을 마칠 수 있었다. 유쾌했던 5형제의 황석산 등반이 더없이 소중한 추억으로 성큼 다가옴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다.



09 황석산성에 새겨진 소중한 추억 한 컷  
10 황석산 정상에서 바라본 장엄한 풍광에 취하다  
11 황석산 무사고 등반 완료를 보고합니다



# 여름 안에서? 파도 위에서!



뜨거운 여름, 수상 스포츠의 계절이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수상 스포츠 중 하나는 바로 서핑. 6명의 직원들이 올여름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 실내 서핑장을 방문했다. 처음으로 도전하는 서핑이 이렇게 즐거워도 되는 걸까?

촬영세권 사진 김성재 영상 유승현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 Surfing



**삶은 서핑과도 같기에**

“삶은 서핑과도 같아요. 파도에 휩쓸린다면 곧바로 다시 일어서세요. 다음에 올 파도 너머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프로 서퍼 베서니 해밀턴이 한 말이다. 그는 상어에게 물려 팔을 잃은 후에도 계속해서 서핑을 즐긴 것으로 유명하다. 그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는 간혹 거친 파도가 밀려와 휩쓸리기도 한다. 하지만 쓰러져 있기만 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파도는 계속해서 올 것이고, 그 파도를 타고 서핑을 할 수 있다면 같은 인생도 더 즐겁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전 9시, 이른 시간인데도 후덥지근하다. 모임 장소에는 어느덧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인다. 가장 먼저 도착해 있는 것은 흥덕지점 임현철 차장과 개인

여신부 김재수 차장. 함께 참가신청을 해서 참여하게 됐다는 두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함께하는 단짝이다.

“승진할 때 같은 조가 되면서 친해졌어요. 알고 보니 입행 1년차 선후배 사이더라고요. 그때 친해져서 11년째 함께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고 있어요. 영화도 같이 보고 술도 같이 마시죠. 이렇게 서핑을 함께하는 건 처음이네요.”

잠깐 인터뷰를 하는 사이 6명의 참가자들이 모두 모였다. 각자 수영복을 챙겨온 이들은 어느새 환복을 마치고 교육에 임했다. 오늘의 강사는 교육 영상을 틀어주면서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영상을 보시면서 기본적인 교육 후에 서핑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체험은 1시간

교육 후에 1시간의 자유 서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이 시작되자 참가자들의 눈빛이 말뚱말뚱 뚫혀졌다. 서핑의 기본 자세와 안전 수칙, 기본적인 매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강사는 땅바닥에 서핑보드를 두고, 엎드려 있던 자세에서 일어나 앉고, 다시 보드 위에 두 발로 서는 과정을 설명해주었다.

실내 서핑은 바디보드와 스탠딩보드가 사용된다. 바디보드는 세로가 짧고 일반 보드보다 가로로 넓은 보드로, 주로 엎드려 타는 보드로 넘어지는 게 무서운 사람이나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인공파도에 적응하고 균형감을 익히는 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스탠딩보드는 서서 타는 실내서핑용 보드다. 바닷가에서 사용하는 서핑보드는 웬만한 성인 키만큼 길지만 실내 서핑용 스탠딩보드는 스노보드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



**IBK인이 서핑을 하면 생기는 일.txt**

실내서핑의 가장 큰 매력은 계절이나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즐길 수 있고, 복장도 가볍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가벼운 반바지 차림으로 방문한 직원들은 안전 교육을 마치고 시원하게 즐길 준비가 되어있다. 교육을 마친 강사는 서핑 머신의 스위치를 올렸다. 그러자 커다란 물소리와 함께 서핑을 타는 공간인 서페이스(Surface)에서 파도가 솟구쳤다. 어느새 만들어진 빠른 물살을 보니 오늘의 체험이 기대되는지 참가자들이 탄성을 질렀다. “처음에는 바디보드를 타고 엎드려서 좌우로 방향을 전환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제가 하는 걸 보고





“한 분씩 들어와서 타보세요.”

강사는 바디보드를 하나 들고는 인공파도 위로 성큼 성큼 걸어갔다. 그의 발끝에 치인 물살이 방울방울 튀어 올랐다. 그리고 인공 파도 위에 보드와 함께 엮드린 뒤 자유자재로 파도 위를 오갔다. 강사의 능숙한 시범이 끝나고 참가자들에게 순서가 돌아갔다.

“자 한 분씩 와서 해보세요!”

가장 먼저 나선 것은 딱 봐도 젊고 건강해 보이는 IT 그룹 김정훈 과장이었다. 서핑에 관심이 생겨서 안그래도 올해 배워볼 계획이었다는 그는 오늘의 참여를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이다. 그리고 제일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배움에 나섰다. 김정훈 과장은 서핑보드 위에 엮드려서 파도를 탔고, 강사의 코칭에 따라 몸을 좌우로 기울이면서 방향 전환을 했다. 처음 자세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던 걸까? 모두가 한 번에 성공하면서 다음 동작으로 교육이 이어졌다.

**물 만난 서퍼들**

“입행 동기인 문수아 대리가 버킷리스트에 참여한 다길래 단번에 저도 같이 하자고 말했어요. 서핑은 한 번 배워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걱정이 앞서긴



했어요. 운동 신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교육을 잘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은 다 날아간 것 같아요.”

함께 참가신청을 했다는 입행 동기 강남구청



우리 삶에도 거친 파도가 밀려와 휩쓸릴 때가 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파도를 탈 수 있다면 인생은 더욱 즐거워질 것이다.





역지점 박민경 대리와 청계5가지점 문수아 대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며 활짝 웃었다. 몇 번씩 서핑을 하면서 머리가 온통 젖었지만 도전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평소 물이라면 사족을 못 쓴다는 디지털혁신부 김대환 대리는 어느새 서핑보드 위에서 두 발로 서서 파도를 타고 있었다. 아직은 강사가 건넨 밧줄을 잡고 있었지만, 자유롭게 방향 전환을 하는 모습에 다른 동료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젊은 친구들보다는 적응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매일 아침 운동을 하고 있어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무게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네요.”

인공 파도 위에서 한바탕 넘어지면서 큰 웃음을 선사한 개인여신부 김재수 차장은 그래도 열정만큼은 젊은 참가자들에게 지지않겠다는 듯 최선을 다해서 보드에 올랐다.

“이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유롭게 서핑을 즐기세요!”

교육을 마친 강사가 인사를 하자 일동 박수를 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 명씩 보드에 오르기 시작했다. 아직 익숙하지 않은 동료들을 위해 누군가는 밧줄을 잡아주었고, 서로에게 응원과 환호를 보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력자가 되고 또 함께 도전을 하다보니, 어느덧 모두가 두 발로 서서 서핑을 즐기고 있었다. 뜨거운 여름날, 시원하게 파도 위에서 춤추듯 서핑을 즐기는 이들. 이보다 더 여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레바논의 시인 칼릴 지브란은 “인생은 여름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넘친다”라고 말했다. 파도 위에서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웃으며 일어나 다시 도전한 이들의 하루는 어쩌면 오랜 시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IBK버킷리스트 미니인터뷰

수상스포츠를 평소 많이 즐기는 편이라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디지털혁신부 김대환 대리

서핑에 관심이 있어서 올해 서핑을 배워볼 계획이었습니다. 마침 IBK버킷리스트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 더 즐겁게 서핑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IT그룹 김정훈 과장

입행 동기인 문수아 대리가 함께 참여하자고 해서 하게 됐어요. 처음 타보는 건데 보드에 서서 탈 수 있게 되어 무척 행복합니다!



강남구청역지점 박민경 대리

작년에 서핑을 한 번 타봤는데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참가하게 됐어요. 중심을 잡아주는 끈 없이 서서 타는 것이 목표였는데 잘 된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청계5가지점 문수아 대리

11년차 친구 관계인 김재수 차장이 함께 해보자고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평소 운동을 전혀 안 해서 걱정했는데 정말 재미있고 시원하게 즐긴 것 같습니다.



흥덕지점 임현철 차장

SNS에서 서핑하는 것을 보고 평소 관심이 많았기에 참가 신청을 했어요. 무게 중심을 잡는 게 쉽지 않아 많이 넘어졌는데 그래도 무척 즐거웠습니다.



개인여신부 김재수 차장



# 우리만의 개성 넘치는 티셔츠를 만들다!

금융소비자보호부 CS추진팀의 커스텀 티셔츠 만들기



IBK핸드메이드 시간을 손꼽아 기다렸다는 CS추진팀. 팀 티셔츠를 만들어보겠다고 모인 직원들의 표정에는 설렘이 가득 묻어났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보람과 뿌듯함은 매우 큰 커스텀 티셔츠로 동료들 간의 애정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즐겁고 유쾌했던 IBK핸드메이드 현장을 함께했다.

글 한울 사진 김경수







**우리 팀의 개성을 담은 티셔츠가 필요해!**

티셔츠는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필수템이다. 멋스러운 프린트가 들어간 티셔츠만 입어도 '힙한' 분위기가 낼 수 있다. 특히 요즘에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나 글자를 직접 주문 제작해 개성을 드러내는 '커스텀 티셔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 남들과 다른,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신만의 제품을 선호하는 '커스터마이징'의 인기 덕분이다. '커스터마이징'은 영어단어 'customize(무엇을 주문받아서 만들다)'에서 유래된 말로,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제품을 만들어주는 맞춤 제작 서비스를 의미한다. 그러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주문 제작에 국한되지 않고 직접 디자인하거나 만들어보는 것까지 유행하면서 일명 '커스텀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커스텀 티셔츠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나만의 디자인으로 프린

팅 한 티셔츠로, 내가 직접 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친구끼리, 동료끼리 맞춰 입으면 애정과 사랑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김소미 대리는 "팀원들과 커스텀 티셔츠를 꼭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미소 지었다. 그 어느 팀보다 팀워크가 강한 CS추진팀이기에 동료들과 함께 입을 티셔츠 하나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테이블에 마주 앉은 직원들의 얼굴에 설렘이 묻어났다. 강사가 준비해온 재료들을 직원들에게 꺼내 보였다. 그러자 "와~ 예쁘대!", "정말 귀여운데!", "우리의 아이디어가 좋았어!"라는 감탄사가 쏟아졌다. 이들의 이러한 반응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미지와 문구를 정하기 위해 다 함께 모여 아이디어 회의를 거쳤어요.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 태어난 해의 띠와 MBTI를 넣기로 했어요. 사전에 강사님에게 의견을 전달해서 디자인 방향성을 결정했구요. 우리 모두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이라 더욱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열전사 방식으로 만드는 티셔츠**

직원들에게 티셔츠와 인쇄된 필름이 담긴 봉투 하나씩이 주어졌다. 봉투 안에서 조심스럽게 필름을 꺼내는 직원들의 표정에 설렘이 묻어났다. 강사가 제작 방법을 설명했다. "오늘 만들 티셔츠는 필름을 티셔츠에 전사하는 열전사 방식을 이용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필름은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 책상에 고정해 주세요. 전사할 부분을 남기고 나머



회의를 통해 태어난 해의 띠와 MBTI를 티셔츠에 넣기로 했어요. 모두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거라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MBTI도 붙여야지~



큰게 나냐, 작은게 나냐?





지는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는 열전사용 보호필름을 부착해서 롤러로 잘 눌러줘야 합니다. 그런 다음 티셔츠에 어떤 식으로 배치할지 생각해 보세요.” 열전사 방식의 커스텀 티셔츠는 이미지가 인쇄된 전사지를 티셔츠에 올리고 고온으로 압착하는 방식이다. 티셔츠 색상과 상관없이 선명하고 또렷하게 인쇄될 뿐만 아니라 은은한 코팅감을 느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직원들은 화이트와 블랙 색상의 티셔츠를 원하는 사이즈로 주문한 상태였다. 티셔츠를 몸에 대보고 필름을 살펴보던 직원들이 만족감을 나타냈다. 정은미 대리가 “회식 때 다 같이 입고 인증사진을 찍자”고 말하자 모두들 “그러자”며 환하게 웃었다. 직원들은 티셔츠를 만들기도 전에 기분이 몹시 상기 되어 보였다.



### 서로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F’들이 모이다

본격적으로 작업이 시작됐다. 작업 속도가 빠른 이는 누군가를 도와주었고, “잘한다”, “예쁘다”는 칭찬도 아낌이 없었다. 직원들이 띠 이미지와 MBTI 문구에 보호필름을 붙이는 사이, 강사가 “CS추진팀은 모두가 ‘F’ 성향을 가진 분들이네요?”라고 물었다. 아울러 ‘J’인 김정원 대리를 제외하면 모두가 ‘P’였다. MBTI가 ‘ISFP’인 진세영 대리는 “CS추진팀은 정말 ‘F’ 성향이 강한 팀인 것 같다”며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CS추진팀으로 발령을 받은 지 6개월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제 행동에 대해 동료들이 보여주는 반응에 좀 놀랐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호응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고객만족을 위해 일하는 부서니까 업무상의 특성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타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고 배려하는 모두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로부터 감동을 받는 날도 더러 있었어요. CS추진팀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돼 좋습니다.”

진세영 대리의 말에 직원들이 웃음꽃을 피웠다. 박나영 과장은 “CS추진팀의 팀워크는 최고!”라며 칭찬을 이었다.

“CS추진팀은 무슨 일이든 서로서로 도와주며 해결해요. 저도 지난해 CS추진팀으로 왔는데, 정말 단시간에 동료들과 친해졌어요. 함께 어울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 팀원들의 성향도 금세 파악이 되더라고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남다른 것 같아요.”

업무를 할 때는 서로 도움이 될 일이 없는지

살피고,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터놓고 지낸다는 이들은 눈빛만으로도 통하는 사이.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를 챙기는 동료들은 직장생활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 CS추진팀의 밝고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는 이들의 좋은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함께 만든 티셔츠를 입고 더욱 돈독해진 사이

사전 작업을 끝낸 직원들은 티셔츠에 어떠한 방식으로 필름을 부착할지 고민했다. 티셔츠 이쪽저쪽에 필름을 대보면서 구상에 빠진 직원들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직원들은 서로의 의견을 물으면서 작업을 이어 나갔다. 필름을 어떻게 배치할지를 결정한 직원들은 강사와 함께 필름에 열을 주는 작업을







진행했다. 가장 먼저 작업을 끝낸 사람은 정은미 대리였다. 열전사용 보호필름을 조심스럽게 떼어낸 그녀는 “정말 귀엽고 예쁘다”며 매우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같은 이미지로 작업을 하는데도 티셔츠의 느낌은 모두 달랐다. 힙한 느낌의 티셔츠를 만들고 싶었다는 한원선 대리는 엑스엑스라지(XXL) 크기의 티셔츠 소매 끝에 양 이미지를 붙여 귀엽고 앙증맞은 느낌을 더했다. 심플한 티셔츠를 만들고 싶었던 박나영 과장은 띠 필름을 부착할까 말까 고민하다 “붙이는 게 나아~”라는 정은미 대리의 말에 “그래! 팀워크를 위해!”라며 토끼 필름을 붙였다. 팀에서 유일하게 ‘J’ 성향을 가진 김정원 대리는 필름 이미지의 수평과 간격을 맞추는 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팀원들로부터 “역시 J”라는 말을 들었다.

두 시간여 끝에 열전사까지 모두 작업이 마무리되

었다. 티셔츠를 입고 기념 촬영을 하기로 한 직원들. 티셔츠를 입은 서로의 모습에 칭찬하며 얼굴 가득 웃음꽃이 만발했다. 하나, 둘, 셋, 찰칵! 즐거운 시간이 이들의 마음에 오래도록 추억되길 바라 본다.



## IBK핸드메이드 참여 후기

티셔츠 만들기에 집중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이 들어 좋았어요. 팀원들과 소소한 대화를 이어 나가며 작업하는 재미도 있었어요. 우리팀만의 멋진 추억을 만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날이 좀 선선해지면 티셔츠 입고 함께 나들이 가면 좋겠어요.



박나영 과장

두 시간이 무척 짧게 느껴졌어요. 팀원들과 작업하는 내내 많이 웃었습니다. 각자 만든 티셔츠를 입고 팀원들과 인증샷 찍을 생각을 하니 무척 설렜어요.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은미 대리

제가 만든 티셔츠가 무척 마음에 들어요. 좀 특이한 디자인으로 만들고 싶어서 전사지를 대각선으로 과감하게 붙여 보았습니다. 손재주가 없어 걱정했는데, 동료들이 도와주셔서 예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진세영 대리

CS추진팀은 눈빛만으로도 마음이 통하는 사이라 항상 즐겁게 근무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경험을 통해 동료들과 특별하고 예쁜 추억을 만든 것 같아요. 팀 티셔츠를 갖게 돼 기분이 좋고요, 동료들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김소미 대리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귀엽고 예쁜 티셔츠가 완성됐어요. 평소에도 동료들과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김정원 대리

직장에서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많이 웃었어요. 스트레스가 풀린 기분입니다. 제가 만든 티셔츠도 마음에 듭니다. 오늘 만든 티셔츠는 팀에서 행사가 있을 때도 입고,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도 입어볼 생각입니다.



유비 대리

CS추진팀은 항상 에너지와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는 팀이에요. 티셔츠를 만들면서도 그런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었어요. 티셔츠에 각자의 개성이 녹아든 것 같아요. 앞으로 오늘 만든 티셔츠를 입고 동료들과 즐거운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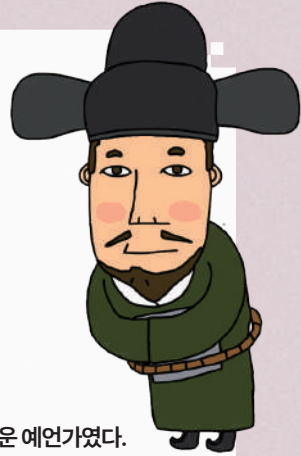


한원선 대리



#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가 이서구

# 豫



조선 시대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서구는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로 불린 놀라운 예언가였다.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하다. 특히 풍수지리, 역학, 천문학 등에도 뛰어났던 그는 이를 통해 여러 가지 예언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서구가 남긴 미스터리한 예언을 살펴보자.

글 박성일 일러스트 유남영

설화 속 이서구는 새소리를 알아듣고, 살인자를 잡기도, 비둘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고 후임자를 예견하기도, 이방의 아들이 중의 아들임을 밝혀내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원혼을 만나기도 하고, 이계(異界)와 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지닌 인물로 그려진다. 전설에 따르면 이서구는 도술, 예언, 풍수에 아주 능했는데, 이런 능력을 백성을 위해 사용했다고 한다. 전라도 지역에서는 풍수에 관련한 설화가 많다. "수저(水低) 30장이요, 지고(地高) 30장이 될 것이다." 변산 앞바다 쪽의 바닷물이 30장 밑으로 내려가고, 해저의 땅이 30장 위로 올라온다는 예언이다. 30장이면 대략 90미터에 해당한다. 바닷물이 90미터 내려가고 땅이 90미터 위로 올라오는 지각 변동을 의미한다. 서해안이 융기하면서 많은 부분이 육지가 된다는 예언인데 실제로 부안 앞바다는 지금의 새만금 간척지가 된 곳이다.

나합(羅閣)의 탄생을 미리 예견하기도 했다. 기생으로 나주목사 김좌근의 첩이 된 '요녀(妖女) 나합'에 대한 이야기다. 또한 전주에는 한벽당이라는 정자가 있다. 어느 날 이서구가 한벽당의 경치를 감상하다가 "앞으로는 이 한벽루 옆으로 불말(火馬)이 지나다닐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그의 말대로 일제강점기, 굴이 뚫리면서 기차가 통과했다. '불말'은 기차를 의미하며 1931년 한벽터널이 개통되어 1981년까지 기차가 다녔다. 그런가 하면 전주의 집 방향을 서향에서 남향으로 바뀌 가난을 벗어났다는 '가사좌향(家舍坐向)'에 관한 내용도 전해 내려온다.

이서구와 연관된 많은 전설은 '기록'이 아닌 '구전'되어 오고 있다. 세도정치의 혼탁함 속에서 나라를 구원해 줄 예지자요 해결사, 오늘보다 더 나은 조선을 기대했던 민초들의 판타지는 그래서 더욱더 이서구를 조선의 노스트라다무스이자 선각자로 동일시하지 않았을까?





# MZ세대의 소비 놀이터 팝업스토어



팝업스토어 소식을 공유하는 플랫폼이 핫하다. 네이버 기준 월간 ‘팝업스토어’ 관련 키워드 검색량은 약 7만 건 이상에 달한다. MZ세대는 팝업스토어를 일종의 놀이터로 생각하며 독특한 감성과 재미를 추구하고 있다. 이제 팝업스토어는 브랜드 마케팅에서 필수가 됐다.

✎ 편집실



이미지 출처 방문자 리뷰(@sudok)



## 전통시장 북새통 속 MZ 놀이터 스타벅스 경동1960점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60년 된 오래된 시장을 젊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이유는 다름 아닌 경동시장 내 방치된 폐극장에 입점한 스타벅스 ‘경동1960점’ 때문이다. 전체 365.5평 규모에 달하는 경동1960점은 옛 경동극장 자리인 경동시장 건물 3~4층을 개조한 공간이다. 매장 정면엔 극장 스크린 대신 스타벅스 매장 주문대 및 제조대가, 양쪽과 뒤쪽으로는 계단식 좌석이 마련돼 있다. 천장엔 1960년대 지어진 경동극장의 목조식 구조가 그대로 보존됐다. 맨 뒤쪽에는 영사실 자리도 사라지지 않은 채 자리한다. 영사기로 만든 순번표시기로 주문자를 호명하는 시스템도 눈에 띈다. **이런 레트로한 감성은 옛 극장의 흔적을 찾아보는 재미를 넘어 MZ 세대를 사로잡기 충분하다.**

MZ세대가 기후변화 등 친환경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매장 주문대 상판을 버려진 스타벅스 텀블러를 재활용해 만들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매장 한쪽엔 지역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무대도 꾸려져 지역 상생을 도모하고자 했다. 모두가 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테이블이 무대 방향으로 배치돼 극장 구조의 특색을 잘 살렸다. 지난해 12월 공식 오픈한 **스타벅스 경동1960점은 ‘스타벅스 커뮤니티 스토어 5호점’으로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이익공유형 매장이다.**





이미지 출처 @무신사

## musinsa

온라인 강자 무신사  
**실험적 오프라인 매장 이구성수**

성동구 성수동에 자리한 **이구성수는 소비자가 29CM의 강점인 '큐레이션'과 '스토리텔링'의 가치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 매장이다.** 매장은 103평 규모(340m<sup>2</sup>)이며 총 2개 층으로 구성돼 있다. 1층은 소품과 전시장으로, 2층은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구성수의 가장 큰 특징은 매장 내 현장 구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매장 곳곳에 마련된 QR코드를 통해 29CM 앱에 접속한 뒤 온라인으로 구매해야 한다.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기보다 29CM의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얘기도. 실제로 무신사의 오프라인 전략은 온라인의 수요를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의 수요는 온라인으로 끌어오는 '윈윈' 형태에 있다. 온라인에서 구입한 제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나, 오프라인에서 체험해 본 제품을 QR코드로 온라인에서 구매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한편 이구성수는 매거진처럼 계절마다 하나의 아이템을 주제로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브랜드와 작품, 아티스트를 큐레이션해 소개한다. 계절 변화에 따라 상품 배치는 물론 피팅룸 콘셉트 등 세부 인테리어에도 변화를 줘 소비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온라인에서 막강한 MZ팬덤을 확보한 플랫폼, 무신사가 소비자와 MZ세대에게 사랑받는 이유다.**



이미지 출처 @시몬스



침대 없는 팝업스토어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침대 브랜드 시몬스의 소셜라이징 프로젝트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가 서울 청담에 문을 열었다.** 시몬스 그로서리 스토어 청담은 2021년 부산 해운대에 오픈한 팝업 스토어의 연장선으로, 지역 사회에서 받은 영감을 토대로 지역과 지역, 사람과 사람을 잇는 로컬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번 스토어가 위치한 청담동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문화의 중심으로 여겨졌다. 그러다 2000년대 후반부터 가로수길, 경리단길, 서촌 등 신흥 소비 상권의 부상과 압구정동을 비롯해 잠시 주춤한 듯 보였던 이곳은 최근 F&B와 리테일 공간이 연이어 새롭게 오픈함에 따라 활기를 되찾고 있다.

**유럽의 사퀴테리 숲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공간은 외관에서부터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자아낸다.** 총 3층 규모로 구성된 건물은 식료품점을 콘셉트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1층에서는 문구류, 의류잡화 등 시몬스 자체 굿즈와 더불어 아티스트와 컬래버레이션한 다채로운 굿즈를 만날 수 있다. 2층에는 부산 로컬 수제 버거 브랜드인 '버거샵'이 현지에서와 동일한 인테리어로 꾸며진 F&B 공간과 다양한 콘텐츠, 퍼포먼스를 담아낼 수 있는 '시몬스 스튜디오'가 나란히 자리한다. 3층은 디지털 아트를 위한 전시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시몬스가 주목한 동시대 미디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 ‘비이자이익’ 세계의 프로들

## 수탁사업부



QR코드를 스캔하면  
<with IBK>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수탁 사업을 ‘미래 먹거리’에 비유하곤 하는데, 전체 운용 자산 규모 1,300조원을 넘어서며 10년 전보다 2배 이상 꺾충 뛰었고, 수탁 시장 역시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NH투자증권이 증권사 최초로 수탁 시장에 뛰어들었고, 다른 증권사도 진출을 준비하는 등 새로운 ‘비이자이익’ 먹거리를 찾기 위해 수탁 시장은 무한 경쟁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IBK기업은행은 기존의 시중 은행이 거의 독점해오던 연기금 시장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앞으로 3년간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국내 주식에 대한 보관과 관리를 총괄하는 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 ‘비이자이익’ 창출 중심 부서로의 전격임에 한창인 수탁 프로들, 수탁사업부를 만났다.

글 최정순 사진 김경수 영상 윤승현



# IBK 수탁사업부





수탁관리팀



### 비이자이익이라는 신세계의 수탁사업부

수탁사업부를 어음을 수탁하거나 단순히 주식이나 채권 거래의 결제 업무를 수행하는 곳 정도로 알고 있다면 명백히 오해다. 자산운용사, 증권사, 공공기관 등 자산 운용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관의 수탁 비즈니스 파트너인 수탁사업부는 매년 국내외 실물 경제·자본 시장에 대한 전망과 전략을 바탕으로 주력해야 할 수탁 자산을 선정하고 기관 영업을 통해 비이자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때 취급하는 수탁 자산으로는 주식,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상품은 물론 SOC사업, 인수금융, 선박금융, 투자조합, PEF 등 모든 투자상품이 수탁 대상이다. 은행권의 이익 구조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비이자이익 창출을 위한 수탁 사업을 전개하는 수탁사업부의 존재감이 부쩍 묵직해졌다.

### 연기금 시장 진출 등 수탁사업부의 성과들

올해 상반기 수탁사업부는 다른 수탁 은행과의 경쟁 속에서 여러 가지 정책 금융 펀드를 수탁해내며 괄목할 만한 성취를 거뒀다. 수차례 담당자를 찾아가 만나는 등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고객에게 신뢰할 만한 수탁사업부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그 결과, 기업구조혁신 모(母)펀드4호 5,000억원, 혁신성장 모(母)펀드 3,000억원 전액을 유치했다. 이는 단지 보유 수탁고를 늘렸다는 사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탁 시장에서 수탁사업부가 정책 금융 수탁 전문은행으로의 입지를 세간에 확인시킨 계기라는 데 의미가 있다. 수탁사업부가 있기까지, 전신은 신탁부 내 수탁업무팀으로, 2017년 수탁부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국책은행다운 공공성과 안정성이라는 IBK기업은행의 수탁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년 20% 이상 급성장해 현재 90조원의 수탁고를 달성했다.





또 다른 성과로는 연기금 시장 진출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연기금 수탁은 인프라가 잘 갖춰진 대형 수탁 은행의 전유물이나 마찬가지였다. 수탁사업부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올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수탁 은행에 최종 선정됐고, 대형 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신(新) 수탁 시스템 구축(2023. 11. 14)을 비롯해 기관 영업 전문인력 총원 등 안팎으로 내실을 기하고 있다. 그런 수탁사업부의 비전은 비이차이익 창출 중심 부서로 도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PEF, 대체 자산 같은 기존의 주력 사업을 포함해 새롭게 진출한 연기금 수탁 부분에 주력해 발전할 계획이다. 또 사모펀드 사태 이후 정체된 국내 시장에서 눈을 돌려 급성장 중인 해외펀드 시장(2022년, 약 300조원)을 목표로 수탁사업부의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 자산의 신속, 정확한 결제와 체계적인 보관·관리를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씨티(Citi)사와의 Global Custody(해외펀드 수탁업) 위탁 계약을 앞뒀을 뿐 아니라 전문 교육기관의 해외펀드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수탁사업부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흔들리지 않는 이익을 향해 나아가는 삼각 펀드**

수탁사업부는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금융권의 내부 통제 강화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펀드 재산을 관리하는 수탁사업부의 내부 통제는 또 하나의 주요 업무가 됐다. 2022년 하반기, 수탁사업부는 업계 최초로 내부 통제를 전담하는 ‘수탁점검팀’을 신설해 내부 운영 리스크 관리와 운용사 운용 행위를 감시하는 컴플라이언스 업무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탁관리팀’에선 펀드에 대한 기준가 검증 등 회계 업무와 자금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수탁영업팀’에서는 우량 펀드를 선별해 수탁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실시하고 수탁한 펀드의 운용 지시를 이행한다.



수탁영업팀



수탁 시장에서 수탁사업부가 정책 금융 수탁 전문은행으로의 입지를 세간에 확인시킨 계기라는 데 의미가 있다.





수탁점검팀

삼각 구도의 안정감을 갖춘 수탁사업부가 꼽는 강점은 ‘흔들리지 않는 이익’이다. 자본 시장 성장에 따라 수탁고는 물론 수탁사업부의 이익 역시 우상향 중이다. 비이자이익은 전행 비이자이익의 6.5%(22년말 기준)에 이르고, 펀드 현금성 자산을 통해 전행자금 조달에도 기여한다. 직접적인 펀드 운용이 아닌, 보관·관리와 감시가 수탁사업부의 주된 업무인 까닭에 자금 결제, 회계, 컴플라이언스 업무에 대한 이해는 필수다. 내부의 도제식 교육을 비롯해 외부 교육기관 프로그램을 통해 자본 시장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 금융 자격증을 가장 많이 취득한 직원을 선정해 포상을 실시하는 등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수탁사업부의 목표는 2027년까지 연기금과 해외 펀드 수탁 비중을 확대해 수탁고 200조원, 영업이익 1,000억원을 달성하는 것이다. 영업 조직 확대,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기관 영업과 해외 펀드 역량을 강화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익을 향해 정진하는 수탁사업부의 한 걸음, 다음 걸음을 지켜보자.

# Stability



## Mini Interview



수탁사업부  
방창식 부장

### 자산의 보관과 관리, 지시이행, 운용사 감시까지

지점 업무와 거리가 있는 수탁업 특성상 수탁사업부는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죠. 수탁 업무는 고객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데서 출발해 자본 시장 성장에 따라 업무 영역 확대는 물론 투자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운용사를 감시하는 기능까지 수행합니다. 앞으로 국책은행이자 중소기업 전문은행의 강점을 살려 PEF, 정책 금융 펀드, 공공 기관의 일임 자산 같은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탁사업부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 이익에 기여하고 즐겁게 일하는 조직을 꿈꾸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기금 시장 진출, 해외 수탁 확대 등을 진행해왔습니다. 영업 조직을 확대하고, 수탁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해 지속적인 비이자이익 창출을 이끌고자 합니다. 근무 조건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해 수급 퇴근 독려, 경력 개발 확대, 열린 인력풀의 직군 변경 등을 추진해왔습니다. 각자의 업무가 지닌 의미를 알면 더 큰 보람과 즐거움을 경험하리라 봅니다. 즐겁게 일하는 조직으로 변해가는 수탁사업부를 지켜보며 응원해주시길 바랍니다.



### 수탁사업부

나는 타임캡슐에

□ □ □ □ □ 을/를  
담고 싶어요

방창식 부장



첫부장평화

최미영 팀장



지금이순간

김미소 대리



결혼식영상

김만석 대리



야근의추억

김태호 대리



참이슬쌀떡

박민국 대리



수탁부전부

백범기 대리



훈훈한동료

박준형 차장



수탁시스템

김지연 과장



가족의건강

안태연 과장



지금이멤버

이용현 과장



순교거북이

박병민 대리



수탁부사진

송미정 대리



가족사진첩

오상우 대리



지금이순간

윤미경 대리



나의핸드폰

나우희 팀장



내스마트폰

곽승원 차장



특별상여금

석지오 대리



우리회원들

신동익 대리



지나간추억

유가혜 대리



저평가주식

이수환 대리



특별자산팀

이슬지 대리



젊음과체력

김옥순 차장



지금이순간

문성웅 차장



세계일주권

최은정 과장



건강과행복

송지수 대리



순교덕어리

육지현 대리



즐거움기억

한혜지 대리



가족들건강

김인자 계장



오늘내모습

임원택 팀장



가족의추억

김태성 과장



2023년

엄지은 과장



열정과행복

주원진 대리



비프디세스

허주리 대리



재밌는소설





# 파인 스테이 큐레이션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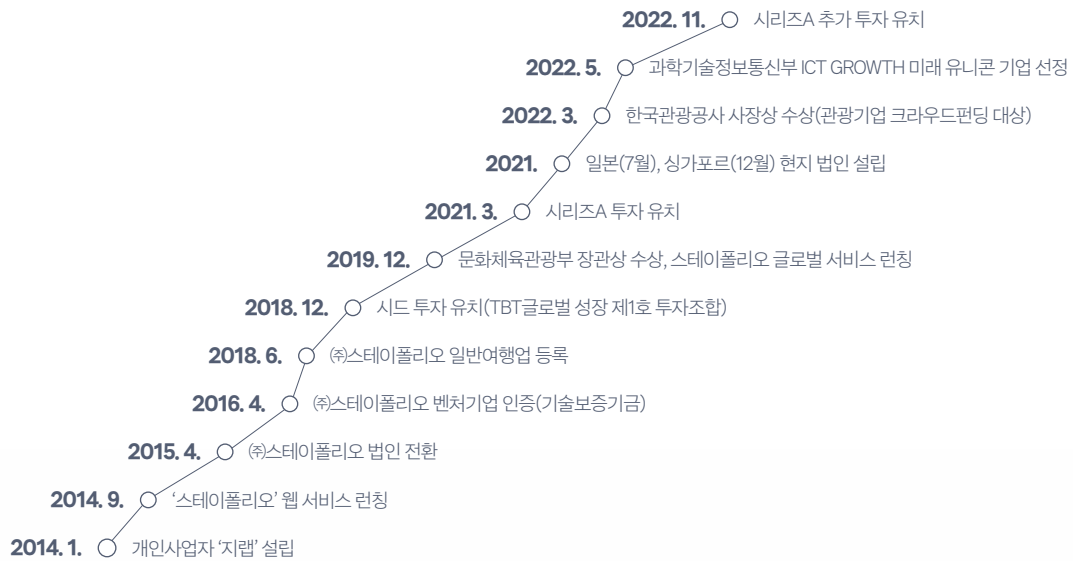
스테이폴리오  
이상목 대표



LG광화문지점 거래 기업

건축은 누군가에게 예술의 영역이고, 어떤 이에게 비즈니스의 범주에 속한다. 파인 스테이(find-stay)를 표방하며, 호스트의 취향과 건축 사조를 반영한 아티스틱한 건축물로 '건축, 여행이 된다'는 경험을 선사하는 숙소 큐레이션 플랫폼 '스테이폴리오'라면 건축은 예술도 비즈니스도 다 된다.

글 최정순 사진 김성재 자료제공 스테이폴리오



검색창에

스테이폴리오



를 검색해주세요





**전에 없던 스테이 큐레이션 서비스, 스테이폴리오**

2014년 웹 서비스 시작, 2015년 법인 설립으로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한 스테이폴리오는 건축가의 작품이자 지역성을 강조한 감각적인 숙박 시설을 중개하는 파인 스테이 플랫폼이다. 이미 숙소 정보를 찾는 데 능통한 여행자나 SNS ‘좀 한다’하는 이들 사이에서 25만 팔로워의 스테이폴리오는 셀러브리티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실제로 많은 인플루언서와 셀러브리티가 스테이폴리오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고, 휴가의 찬란한 한때를 SNS에 업로드한다. 지난해에는 B2B 상품으로 숙박 상품권 개념의 기프트 카드와 충전식 상품인 스테이 캐시 등을 선보였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의 테크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고 시 챗봇 서비스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또 ‘아만’, ‘호시노야’ 리조트 등 럭셔리 리조트 브랜드를 숙소 라인



이미지 출처 : 넷(사진 노경@rohspace)



이미지 출처 : 소개(사진 이병근)



업에 추가했고,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 서촌 한옥 재생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등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트렌드가 중흥무진하는 여행과 숙박 업계에서 탁월한 심미안과 비즈니스 감각으로, 파인 스테이 큐레이션이라는 전에 없던 장르를 개척한 스테이폴리오의 이상목 대표가 창업할 당시 스마트폰으로 방을 예약하는 시스템의 에어비앤비를 비롯해 남들보다 싸고 많이 파는 일에 몰두한 숙박 사이트 등이 대세였다. 흑자는 시장에 이미 숙박 플랫폼이 있는데, 도대체 왜 그 숙박업이냐고 묻곤 했다. “저를 포함한 건축학과 출신이 직접 공간을 시공하는 것 외에 공간을 연결해 공유하는 분야에서 일하면 어떨지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여행 전 좋은 숙소를 찾는 과정에 시간을 할애하는데, 절대적으로 이를 아낄 수 있는 큐레이션된 사이트는 없을까. 왜 안 만들까. 직접 해볼까. 이렇게 된 거죠. 공간에 관한 일반적이지 않은, 차별화된 경험을 팔 수 있겠다

고 생각했어요. 예술가나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할 때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듯, 의미 있는 작품을 업선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듯, 그렇게 가치 있는 공간을 연결해 플랫폼을 구상하게 된 거죠. 스테이와 포트폴리오를 합쳐 ‘스테이폴리오’ 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요.”

**스테이가 주는 압도적인 경험**

건축 거장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r)가 설계한 명작 ‘빌라 사보아(Villa Savoye)’ 같은 주택을 책으로 보는 데서 나아가 숙박이라는 경험으로 확장하는 일을 상상하며 플랫폼 서비스를 출범했다. 머무는 것 자체로 여행이 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났고, 여행할 지역을 정한 뒤 숙소를 찾는 기존의 여행 방식은 스테이폴리오를 거치며 바뀌어 갔다. 숙소를 여행 중 하룻밤 묵는 곳이 아닌, 가장 먼저 정하는 목

적지이자 여행의 이유로 삼는 사람들이 늘었고, 스테이폴리오의 팬덤이 생겨났다. 스테이폴리오의 숙소 네트워크는 현재 500여 곳으로, 일본과 베트남 등지의 해외 숙소 100곳, 서울과 제주를 비롯한 전국에 400곳이 있다. 특히 서울 스테이 대부분은 스테이폴리오 사무실이 있는 서촌 지역에 분포하는데, 이상목 대표가 구현한 ‘수평적 호텔’에 기인한다. 호텔이라면 으레 수직으로 높다랗게 올라선 건물을 떠올리지만, 그 건축물을 평면에 뉘여 각 공간을 퍼트린 형태라면 어떨까. 객실은 마을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고, 컨시어지와 식당, 카페, 서점, 상점 또한 마을 곳곳에 자리한다. 이를 연결하니 하나의 호텔, 즉 수평적 호텔이 된다. “직영 숙소는 35곳 정도입니다. 특히 서촌에 있는 스테이는 대부분 한옥이에요. 지역을 호텔로 보면, 각 숙소는 객실이고, 골목길은 엘리베이터 개념입니다. 사무실이 있는 서촌에서 자주 보는 숲의 주인공들과



스테이폴리오의 특징점

Step.1

파인 스테이 큐레이션

호스트가 가진 확고한 취향에 기반한 디자인 관점이 녹아 있는 고유한 큐레이션 안목과 감도.

Step.2

스타일리시한 로컬 가이드

남다른 당신이 로컬을 여행할 때 믿고 찾을 만한 진짜 여행 가이드. 신뢰 유지를 위한 로컬 네트워크와 협업의 지속성과 항상성.

Step.3

Wow Point, 공간 경험

머무는 것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것.



친분을 쌓으며 협업하는 형태로 지역 브랜드와 상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서촌에서 이름난 블렌딩 티숍인 ‘에디션덴마크’에서 조식을 먹고, 책방이자 컨시어지를 겸하는 ‘한권의 서점’에서 서촌 여행에 관한 정보를 얻는 식으로 여행하는 거예요. 지역성으로 콘텐츠 플레이어를 시도하는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파인 스테이의 넥스트 레벨, K스테이의 도래

최근에 싱가포르와 일본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일본 웹사이트(stayfolio.jp)를 개설했고요. ‘코로나 시국’에서는 팬데믹보다 앞서서 비대면 서비스로 숙소를 운영했던 덕을 봤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전면 해제된 지금은 ‘그다음’을 준비하고 실행합니다. 예를 들면 미주나 유럽권의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한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갈까’ 하면서 스테이폴리오 앱을 켜도록, 그 앱이 제일 좋다는 평가로 인정받고 싶어요. 글로벌 파인 스테이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이 스테이폴리오의 넥스트 레

벨입니다. 다국어 서비스는 이미 제공하고 있고요. 거래액을 보면 10% 이상의 외국인 투숙객이 있고, 앱을 사용하는 외국인 유저가 점차 생겨나고 있죠.” 스테이폴리오를 경험한 이들은 감도 높고 일정하고 안정적인 공간과 서비스에 만족하며 다시 찾는다. 이상목 대표의 표현대로라면 그 공간을 찾아갔을 때 오롯이 느끼고 충분히 경험하는 ‘와우 포인트’가 스테이폴리오의 핵심이다. 투숙객이 ‘뜻밖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반전미’만큼이나 공간과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 역시 스테이폴리오의 강점이다. 항상성에 대한 생각에는 늘 ‘버전 업’ 대한 고민이 뒤따른다. “일본 애니메이션 <공각기동대>에 나온 말 중 ‘스탠드 얼론(stand-alon)’을 자주 쓰는데, 개별화된 것을 지향하면서 거대한 콤플렉스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동시에 갖췄다는 의미예요. ‘따로 또 같이’로 설명할 수 있겠네요. 200개 나라, 현지의 4만 개 숙소를 연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요. 스테이폴리오가 ‘숙소계의 미술랑’이 되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①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 앞으로도 도전하는 기업가의 파트너가 되길

Q. 대표님의 경영 철학은 무엇인가요?

A. 좋은 장소는 신뢰감을 주기 위해 그 신뢰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공리합니다. 호스트, 거래처 등과 한 번 맺은 인연을 공고히 해서 깊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을 중요시하고요. 다음 세대에게 어떤 가치, 이를 떠넘기 한옥이나 돌집 같은 공간적 문화유산을 단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감각과 감성까지 계승됐으면 합니다. 다음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다는 점 역시 스테이폴리오가 다른 회사와 구분되는 부분일 겁니다.

Q. 기업은행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A. 첫 통장부터 2019년 법인 통장 개설까지, 금융 거래의 모든 시작을 함께한 은행입니다. 지점에 가면 왼쪽 끝에 있는 은행원을 찾는데, 담당 직원이 바뀌어도 그 자리만큼은 안 바뀌죠. 승진해서 옮겼는데, 저와 만난 직원들의 실적이 열손가락 안에 든다는 후일담을 들었어요(웃음). IBK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은행이잖아요. 스테이폴리오 같은 작은 회사나 스타트업에 도움 은행 하면 바로 생각나요. IBK가 앞으로 청년 기업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기업가를 도우며 동반 성장하는 파트너로 오래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62주년 축하드립니다.



스테이폴리오 이상목 대표

Mini Interview ②

스테이폴리오는 머무르고 싶다는 자극을 주는 열정과 디테일이 강점인 곳

Q. <with IBK> 독자들을 위해 LG광화문지점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A. 조선의 4대 궁궐인 덕수궁과 경희궁 사이에 소재하는 LG광화문 빌딩에 지점이 자리합니다. 전통 문화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곳에 위치하는 데요. 지점에서 알 수 있듯 LG, LX그룹 계열사 등 대기업을 비롯해 벌크션을 운영하는 해운업체, SI와 숙박 플랫폼, 공유 모빌리티 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이 거래하면서 저희 IBK기업은행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Q. 파트너인 스테이폴리오의 가능성, 비전과 강점은 뭘까요?

A. 스스로에 대한 투자와 보상이 명확한 MZ세대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감도 있는 건축미, 인테리어와 소품, 무엇보다 프라이빗한 공간을 제공하며, ‘머무르고 싶다’는 생각과 실천을 자극하는 전략에서, 아만리조트 등 고급 휴양 브랜드와 함께하는 것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죠. 이상목 대표는 일을 즐기고 있고, 숙박업과 관련한 다수의 세미나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산업의 변화와 트렌드를 리드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숙소 결의 맞잡, 추천 스포츠 정보를 제공하는 디테일에 스테이폴리오만의 강점이 있죠.



LG광화문지점 방한승 지점장



상상하고, 도전하고,  
혁신하는



## IBK창공 기업

IBK창공  
마포

국내 유일  
식물성 계란 전문 기업



(주)메타텍스처

메타텍스처는 생명공학 계열과 요식업 계열의  
전공자들이 식품공학과 교수진, 대체육 연구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형 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sweetegg.co.kr](http://sweetegg.co.kr)

IBK창공  
구로

AI 기반 인플루언서  
데이터 플랫폼



(주)피처링

피처링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플루언서·크  
리에이터(국내외 1,200만 명) 데이터 엔진과  
IRM(Influenc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구축하고 있다.



[featuring.co](http://featuring.co)

IBK창공  
부산

빅데이터 기반  
통신상품 비교 플랫폼



주식회사 유앤소프트

유앤소프트는 매장 통합관리 SaaS와 통신상품  
데이터를 활용한 통신상품 판매자와 구매자를  
실시간 매칭으로 온 디맨드(On Demand)하는 플  
랫폼 기업이다.



[unsoft.co.kr](http://unsoft.co.kr)

IBK창공  
대전

수출입 운송의  
디지털 솔루션



(주)와이오엘

와이오엘 '올카고'의 핵심가치는 싸고 편리한 운  
송 서비스 즉, 'Save Time Save money'라는 두  
가지 장점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yolcargo.com](http://yolcargo.com)



IBK항공 마포

계란 없이  
계란을 스위트에그



(주)메타텍스처는 육류 소비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양계 산업의 수급 불안정,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두, 녹두로 만든 식물성 계란 ‘스위트에그’를 개발했다. 삶은 계란의 식감이 유사한 식물성 계란을 개발하기 위해 대두, 녹두, 단호박 등을 배합하고 제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특히 삶은 계란의 식감과 맛을 완벽하게 구현하면서도 식물성 재료만 활용해 계란을 만든 푸드테크 스타트업 메타텍스처는 국내외 비건 소비자뿐만 아니라 계란 알레르기 때문에 계란을 먹지 못했던 소비자에게도 큰 환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스위트에그의 식감은 물성 측정 실험을 통해 실제 계란과 스위트에그의 식감 유사도가 90% 이상 일치하도록 구현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영양 성분 또한 일반 계란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제공하는 반면 칼로리가 낮아 개수의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메타텍스처는 국내 시장 검증 후 생산 시설을 확보해 다양한 대체 계란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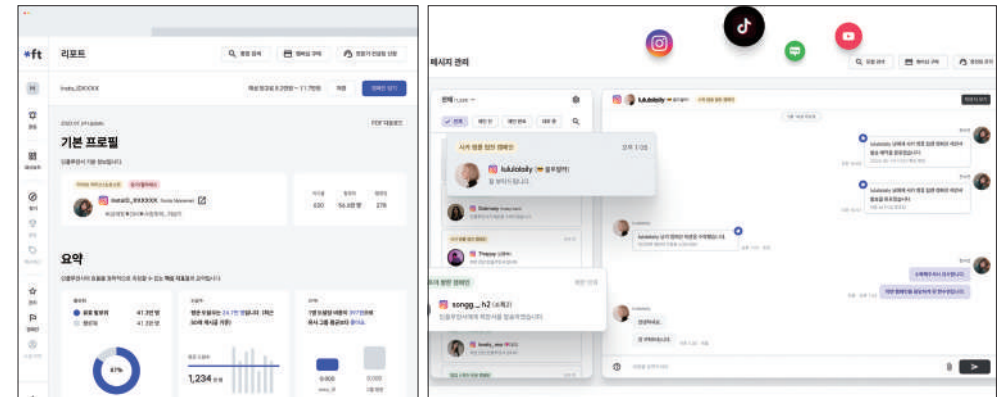


IBK항공 구로

인플루언서 마케팅  
올인원 플랫폼  
피처링

\*featuring

AI 기반 인플루언서 데이터 플랫폼 (주)피처링이 챗GPT를 활용한 인플루언서 추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번에 피처링이 선보인 ‘챗GPT 리스트업’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통해 인플루언서 추천 목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사용자가 사람과 대화하듯이 채팅창에 원하는 인플루언서의 조건을 제시하면 AI가 세부조건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조건에 맞는 결과를 제공한다. 챗GPT 리스트업 서비스는 필터링을 통해 카테고리별 직접 골라 인플루언서를 추천하던 기존 서비스보다 접근성이 높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기존 탐색 서비스는 인플루언서의 SNS 플랫폼, 콘텐츠 종류, 성별, 팔로워 수, 팔로워 연령대 등을 하나씩 지정해야 했다. 챗GPT 리스트업을 사용하면 상담원에게 말하듯이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다. 피처링은 이번 서비스 출시를 통해 서비스 이용자가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분석된 인플루언서 계정 1,200만 개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또한 챗GPT의 번역 기능을 활용해 앞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 등 해외 인플루언서에게도 제안이 가능하도록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IBK항공 부산

매장 통합  
관리 SaaS  
제로노트



주식회사 유앤소프트는 휴대폰 판매점, 인터넷 업체 등 통신 관련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매장 통합 관리 SaaS 제로노트와 데이터 기반 초고속 인터넷, 휴대폰 등 통신 상품을 쉽게 비교 상담해주는 O2O 플랫폼 ‘퍼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통신 관련 사업자들과 협업을 통해 빠르게 성장 중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으로 복잡한 통신 상품을 AI 알고리즘을 통한 개인화된 최적화 요금과 상품을 매칭해주는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기술을 통해 모든 통신 상품을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로 유앤소프트는 매장 통합 관리 SaaS 제로노트를 통해 기존 휴대폰 매장의 아날로그 매장 운영 방식을 디지털화해 44%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뛰어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한편 유앤소프트는 넷마블, 유플러스, 그린카 등 통신과 IT 전문가가 함께 창업한 회사로 공급자 위주의 불편한 통신단말 시장을 소비자 중심 시장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통해 통신 시장의 기준이 되겠다는 청사진이다.

통신사	월 요금	지원금
KT	35,600원	700,000원

건강비교 플랫폼 퍼스

### 인터넷 가입 혜택 비교 어플로 간편하게!

전국 4,000여 개 매장 혜택 비교를 한 번에!

요청서 저장으로  
쉽게 시작

IBK항공 대전

디지털  
프레이트 포워드  
올카고



㈜와이오엘은 수출입기업과 선박회사를 연결하는 디지털 포워드 ‘올카고’ 플랫폼을 통해 수출입 기업에게 물류비 절감과 유용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올카고는 실시간 견적부터 운송의뢰, 화물 추적, 문서 공유 등이 가능한페이퍼리스 물류 플랫폼으로 운송비를 포함한 통관비, 적하 보험비, 관부가세, 창고비 등 수출 수입의 원가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며, 장기간 누적된 운송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운송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현재 와이오엘은 올카고 출시 1년 만인 2021년 3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22년에는 20억 원의 매출과 BEP를 달성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는 150% 이상의 매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와이오엘은 2023년 초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소를 설치하며 현지 회사 마케팅 및 파트너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포워딩 플랫폼에서 AI 기반 스마트 해상운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AI 기반 운임 예측 및 고객 맞춤형 솔루션과 운송 경로 최적화 솔루션 등을 통해 화물 운송 시간과 운임을 대폭 절약할 수 있도록 힘쓰는 계획이다.

실시간 견적  
Real-Time Quotes

Digital Freight Forwarding Platform.  
디지털 포워드 플랫폼



# 돈 되는 습관

## 생활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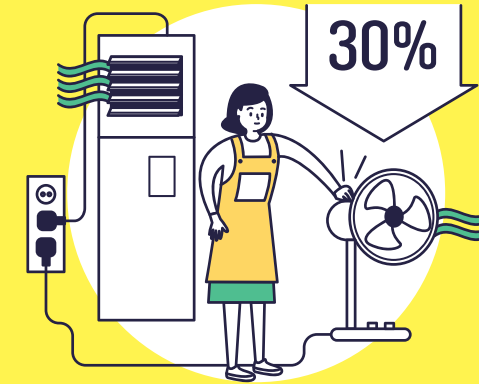
# 전기요금 절약



매년 여름 과도한 냉난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다. 이미 지난 5월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이 인상된 상태.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요금 부담은 3,000원가량은 셈이다. 티끌 모아 태산, 생활 속 실천으로 절약할 수 있는 전기절약 꿀팁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30% 절감, 에어컨



### 에너지등급제 확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과 에너지 사용량을 1~5 등급까지 구분해서 표시한 것이다.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가 절약되며,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보다 약 30% 정도 에너지를 덜 소모한다.

### 에어컨 및 실외기 관리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소비 전력이 3~5% 증가한다. 바깥쪽의 뜨거운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키는 필터에 먼지가 많이 끼어 있을수록 에어컨의 성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 주는 것이 좋다.

### 에어컨과 선풍기 같이 사용하기

에어컨의 희망온도를 22~26도로 맞춰놓고 선풍기와 함께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에어컨과 선풍기를 마주 보고 같이 틀면 에어컨이 흡입하는 공기가 차가워져 에어컨을 강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 블라인드나 커튼 사용하기

창문을 통해서 내부로 들어오는 태양열만 차단해도 실내 온도를 생각보다 많이 낮출 수 있다. 집안의 창문은 인테리어와 프라이버시 보호 효과를 같이 하기 위해 블라인드나 커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60%의 원칙, 냉장고



## 냉장고 위치

냉장고의 위치는 전기 사용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냉장고는 직사광선이나 열기가 적은 서늘한 곳에 놓는 것이 좋다. 또한 냉장고 주변에 다른 가전제품이나 물건이 많아서 공기가 흐리지 않으면 열이 가끔 생겨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

## 냉장고 문 사용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마다 열기와 차가운 공기가 나가서 전기 사용량이 늘어난다. 따라서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는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좋다. 또한 문을 열어놓고 한참을 찾아보는 일이 없도록 냉장고 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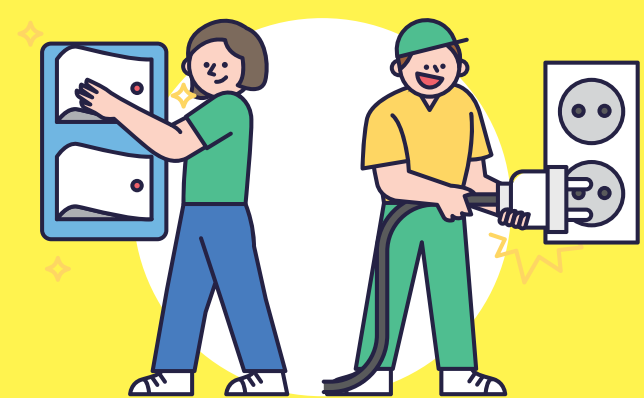
## 냉장고 사용 전략

냉장고 안 식품을 굳이 차가운 온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빵, 과일, 채소 등은 상온에서도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다. 또한 냉장고를 매일 청소할 필요도 없다. 청소할 땐 최소한의 식품만 보관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다.

## 냉장실은 60% 채우기

냉장실은 전체용량의 60% 이하로 넣어야 냉기가 더욱 잘 순화되며 전력효율도, 냉장효과도 높일 수 있다. 냉동실의 경우에는 꽉꽉 채우는 것이 전력소모를 아낄 수 있다. 이는 냉동된 음식물이 옆에 있는 음식에 냉기를 전달해주기 때문이다.

# 전기 흡혈귀, 대기전력



## 대기전력이란

대기전력이란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의 플러그를 뽑지 않을 때 소비되는 전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의미 없이 낭비되는 전력이 우리나라 가정 에너지 사용량의 11%에 달한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간 무려 3만 원 정도다.

## 셋톱박스

디지털 위성방송용 수신장비 셋톱박스는 TV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장치로 대기전력 소모량은 시간당 무려 12.3W로 2위인 인터넷모뎀과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금액으로 치면 1,200원 수준(누진제 제외). 따라서 안 볼 때는 코드를 뽑아주는 게 좋다.

## 대기전력차단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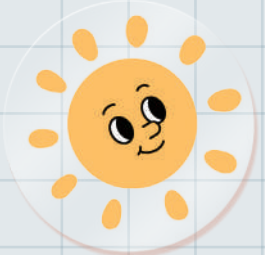
매번 코드를 뽑는 게 번거롭고 귀찮다면 멀티탭형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장만하면 좋다.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줄줄 새는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어 편리하다. 멀티탭 장치를 구입하는 비용은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충당해도 이득이다.

## 높은 전기 흡혈귀

코드만 꽂혀 있어도 대기전력 사용량이 높은 일명 '전기 흡혈귀' 가전들. 다음 제품들만이라도 꼭 멀티탭을 설치하거나 플러그를 뽑아주자. 셋톱박스, 인터넷 모뎀, 텔레비전, 스탠드형 에어컨, 전기밥솥, 세탁기, 전기장판, 헤어드라이어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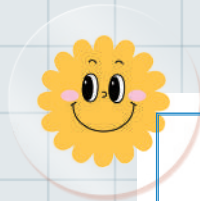


# 한국인이 틀리기 쉬운 맞춤법



정부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 그리고 국민들의 한글 사랑을 고취하기 위해 10월 9일을 국경일로 지정해 한글날을 기념하고 있다. 한국인도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올바른 표기법을 알아본다.

글 편집실 출처 국립국어원



**되물림** ↓ **대물림**  
대물림이 올바른 표현입니다. 사전적 의미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대물림이란 사물이나 가업을 후대 자손에게 남겨 그것을 자손이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의미합니다. 여기서 '대물림'은 세대를 뜻하는 대(代)를 쓰니, 되물림은 틀린 표기라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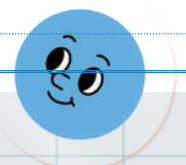
**오랫만이야** ↓ **오랜만이야**  
오답인 '오랫만이야'는 '오랜만이야'의 잘못된 표현입니다. '오랫동안'처럼 '오랫' 역시 표준어이고 '오랜만'의 의미로 '오랫만'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오랜만'만 표준어로 삼습니다. '오랜만'은 명사로 '오래간만'의 준말입니다.

**희안하다** ↓ **희한하다**  
"눈앞에서 마술을 보니 정말 희한하네."처럼 씁니다. '희한하다'의 '희한'은 '드물 희(稀), 드물 한(罕)' 자를 쓰므로 '희한하다'가 맞는 표기이며 '희안하다(X)'는 틀린 표기입니다. 따라서 '희한한 이야기', '희한하군요'와 같이 써야 합니다.

**어의없게** ↓ **어이없게**  
'어이없게'가 맞습니다. "어이없게 실수를 하고 말았다."처럼 씁니다. '어이없다'가 맞는 표기이며 '어의없다(X)'는 틀린 표기입니다. 따라서 '어이없네', '어이없는 경우'처럼 써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어처구니없다'도 있으니 함께 기억하세요.

**건들이다** ↓ **건드리다**  
'건드리다'가 맞습니다. "비위를 건드려", "내 물건 함부로 건드리지 마"처럼 씁니다.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원형을 '건들이다(X)'로 잘못 생각해 '건들여(X), 건들이지 마(X)'처럼 쓰는 경우를 볼 수 있으나, 이는 모두 잘못된 표기입니다.

**빈털털이** ↓ **빈털터리**  
'빈털터리'가 맞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빈털터리이다."처럼 씁니다. '빈털터리'가 맞는 표기이며 '빈털털이(X)'는 틀린 표기입니다. 따라서 '빈털터리 신세', "털터리가 되었다."처럼 써야 합니다. 이제 '빈털터리'로 맞게 표기하세요.





# 2023 IBK FESTIVAL

## 입크 페스티벌로의 초대

‘2023 IBK FESTIVAL’이 오는 9월 16일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국내 최정상 K-팝 뮤지션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지코, 다이나믹듀오, 제시, 로꼬, 효린, 기린보이, 빅나티, 릴러말즈, 미노이 등이 라인업에 올라 가을의 문턱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정이다. K-팝의 새로운 매력과 힙합의 진수를 선보일 이번 무대는 8월 1일부터 20일까지 IBK홈페이지와 i-ONE Bank 앱에서 티켓 응모가 가능하다.

당첨자 발표는 8월 25일이며, 당첨자에게는 개별 S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1인 2매 모바일 티켓이 주어진다.

2023년 입크 페스티벌로의 초대, 지금 당신이 주인공이다.

클 편집실



ZICO



DYNAMICDUO



JES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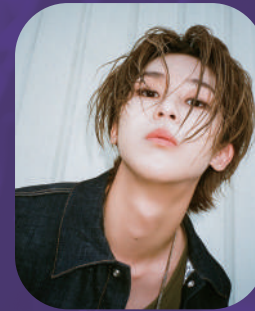
LOCO



HYOLYN



GIRIBOY



BIG NAUGHTY



LEELLAMARZ



MEENOI



JU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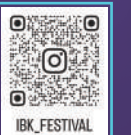
🔍  🔊

검색창에 입크 페스티벌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크 페스티벌  
자세히 보기



입크 페스티벌  
인스타그램





### 참여방법

- ① IBK홈페이지에서 응모하기
  - 응모 기간: 2023년 8월 1일(화) ~ 8월 20일(일)
  - 대상: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응모 가능
  - 응모 존: 피크닉존 B구역
- ② i-ONE Bank 앱에서 응모하기
  - 응모기간: 2023년 8월 1일(화) ~ 8월 20일(일)
  - 대상: i-ONE Bank 사용자 누구나 응모 가능
  - 응모 존: 피크닉존 A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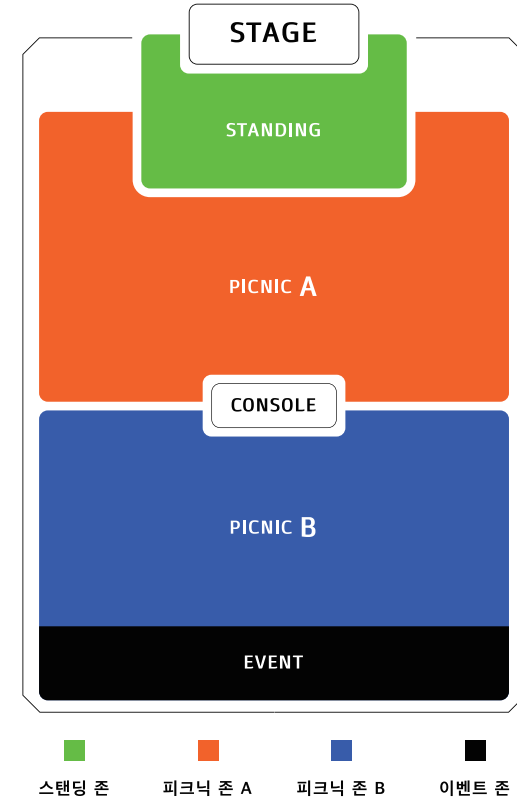
### 당첨자 발표

- 발표일: 2023년 8월 25일(금)
- 모바일 티켓: 개별 SMS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QR코드 발송(양도불가)
-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 (1인 2매)

### 응모 시 유의사항

- 페스티벌은 1인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응모 시 기재한 휴대폰번호가 부정확하여 당첨자 발표일에 SMS 전송이 불가한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모 시 주의 부탁드립니다.
- 당첨발표일 SMS 전송 이후 재전송은 불가하오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 좌석 구분 안내



### 입장 안내사항

- 공연 당일 팔찌 배부처에서 모바일티켓(QR코드) 확인 후 입장팔찌 교환
- 입장팔찌를 수령/착용하셔야 공연장 내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티켓의 캡처본 및 사본은 티켓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또는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 실시**

‘튼튼한 은행, 반듯한 금융, 활기찬 조직’을 향한 조직개편과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먼저 조직개편은 고객 중심의 금융서비스 역량 강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뒀다. 디지털채널 부서를 대고객 관련 그룹으로 이동하는 한편 ‘IT운영본부’와 ‘IT내부통제부’를 신설했다. ESG경영팀은 부서로 격상시켰다. ‘개인고객·카드사업그룹’은 ‘개인고객그룹’과 ‘카드사업그룹’으로 분리했으며, ‘연금사업그룹’과 ‘연금업무지원센터’를 각각 신설했다. 신임 부행장에는 이장섭 본부장을 준법감시인, 김태형 본부장을 신설 조직인 카드사업그룹장 및 연금사업그룹장으로 선임했다.

(왼쪽부터)김태형 부행장, 이장섭 부행장



**하반기 전국 영업점장 회의 개최**

7월 21일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평소 현장소통을 강조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현장을 찾아야 한다”는 김성태 은행장의 뜻에 따라 충청과 호남, 대구경북 등 전국 21개 지역본부별로 나눠 개최됐으며, 경영진들이 지역별로 참석해 영업현장을 점검하고 하반기 전략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김성태 은행장은 최근 수해 피해가 큰 오송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충청지역본부를 찾아 지난 상반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영업점장을 격려하며, 중소기업 지원과 내실 있는 성장에 힘쓴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개인금융 특화점포 개인스마트지점 신설**

개인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금융과의 균형성장을 위한 新점포 유형인 ‘개인스마트지점’을 신설한다. ‘개인스마트지점’은 보다 전문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금융 특화점포로 서울과 부산에 각 1개씩 신설되며, 점포 인근의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예금 및 대출 업무도 함께 수행하게 된다. 기업은행이 개인금융 특화점포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24일부터 서울 ‘우장산역지점’이 ‘우장산역개인스마트지점’으로, 부산 ‘안락동지점’이 ‘수안역개인스마트지점’으로 유형 변경 후 운영되며 기업은행의 개인금융 사업 미래전략 추진을 위한 전략점포로 활용될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경영실적 발표 시장 점유율 23.4% 역대 최대**

2023년 상반기 중소기업대출 잔액이 전년 말 대비 9.5조 원(4.3%) 증가한 230.2조 원으로 성장하면서, 시장 점유율도 역대 최대인 23.4%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견조한 대출 성장에 힘입어 2023년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19.4% 증가한 1조 3,904억 원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5.9% 증가한 1조 2,004억 원을 기록했다. 미래위험에 대비한 손실흡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가 총당금도 충분히 적립해 향후 안정적인 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금 전달 특별금융 지원제도 시행**

호우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 복구를 돕기 위해 2억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다. 피해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장 6개월간 청구유예를 포함한 특별금융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특별금융 지원제도를 마련해 기업당 최대 3억 원 등을 지원하고, 기존 여신(대출) 만기가 돌아온 경우 원금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책을 마련했다.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예금 특별중도해지 우대 및 수신 수수료를 면제하고, 500억 원 규모의 긴급생계안정자금 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피해 지역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IBK급여라운지 여름휴가 이벤트 실시**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IBK급여라운지’ 테마이벤트를 실시한다. ‘IBK급여라운지’는 매월 IBK계좌로 50만 원 이상 급여를 받는 고객에게 스탬프를 제공하고, 고객은 적립된 스탬프를 사용해 각종 이벤트에 응모할 수 있는 비대면 혜택판이다. 또 급여실적 현황, 제휴 할인쿠폰, 재테크 정보, 맞춤 상품 추천 등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IBK급여라운지’ 가입고객 중 처음으로 급여를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2명을 추첨해 신라호텔 숙박권(디럭스)을 지급한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i-ONE뱅크 어플리케이션 내 이벤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달의 N행시

이달의 테마 키워드로 나만의 N행시를 만들어보세요.  
우수작으로 뽑히신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립니다.

## [8월의 단어]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의 ‘에’와 ‘잡’은 언어유희가 허용됩니다.  
위의 주어진 5개 글자를 모두 사용해서 멋진 문장을 만들어보세요.

### N행시 예시

\*위 N행시는 예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손에서 손으로 전해지는

손가락 걸며

에(애)정과 사랑

잡(잔)잔한

고마움을 전합니다.

## N행시 이벤트 참여하기

N행시를 지으셨다면 QR코드나 엽서를 통해 이벤트에 응모해주세요.

참여 기간 8월 4일 ~ 8월 31일 (엽서는 31일까지 도착)

참여 방법 오른쪽 QR코드로 로그인해 전송,  
혹은 제일 뒷장에 있는 엽서에 적어서 발송

당첨자 발표 9월 15일 이내



## N행시 이벤트 당첨자 발표!



숨을 크게 들이쉬면서  
고개를 들고  
느리게 걸어보면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최영-

숨쉬기 운동밖에 할 줄 몰랐는데  
고민 고민 끝에  
오라차차 힘을 내고  
기운을 끌어모아 달리기 시작했어요.

-김주-

숨이 차 오를 만큼 힘이 들지만  
고요하고 적막한 숲길에서  
느긋하고 여유롭게  
기름 모아서 나만의 힐링을 느껴본다.

-최숙-

숨 기쁘게 상반기가 지났다.  
고생 끝에 낙이라고 하던가?  
느긋하게 보낼 하반기를 기대한다!  
기운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리라

-강자-

숨 막히는 무더운 여름..  
고생이 말이지 않지만  
느긋느긋 저무는 하루  
기진맥진이지만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송화-



# 이달의 인증샷

<with IBK>8월호에 소개된 맛집과 여행지를 직접 방문해 인증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정된 5분께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드려요!

## [8월호에 소개된 곳]

72p IBK맛집노트 강원도·경기북부 맛집	78p 발길 닿는 길 군산	90p IBK산 황석산	98p IBK버킷리스트 실내서핑
-------------------------------	----------------------	--------------------	-------------------------





뒷면에  
여행가랑 씨는 꿀팁이  
숨어 있습니다.

‘함께’의 이음동어어는  
바로 ‘같이의 가치’입니다.

**나와 당신을 하나로 연결하는  
생각의 자유로,**  
물론 그 길엔 정체도, 병목현상도 있겠죠!

하지만 생각의 충돌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나들목이자  
우리를 하나로 묶는 분기점입니다.**

손에 손잡고 함께 나아가는 길,  
그 종착지는 더 나은 미래입니다!







# 여행가방 효율적으로 싸는 방법



짐 싸기에 서툰 여행자라면, 꼼꼼히 챙겼다 싶어도 두고 가는 물건이 한두 개쯤 생기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들을 챙기면 좋을지 여행가방 싸는 법을 상황별로 소개한다.

## 여행가방 고르기



### 가벼운 가방 NO

요즘 좋은 재질로 가볍고 얇은 가방이 트렌드이지만, 역시 여행용 가방은 두껍고 튼튼해야 한다. 특히 가볍게 생긴 가방들은 공항 수화물 직원들이 오히려 더 멀리 던지기도 하고, 위로 여러 가방을 겹겹이 쌓아서 더 잘 짓눌리게 된다. 싼 게 비지떡! 같은 값이면 질 좋은 가방을 사기 위한 발품은 필수다.

### 퀄리티는 재질

여행가방을 고를 때는 역시 재질을 꼼꼼히 봐야 한다. 특히 가죽이나 카본 파이버 형식으로 나온 것들이 질기고 튼튼해서 좋다. 싸구려 백은 모서리가 깨지거나 찌그러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끔씩 피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외관이 예뻐서, 색이 맘에 들어서와 같은 감성보단 가방의 퀄리티를 따지는 이성적인 선구안이 필요하다.

### 커플·가족

커플끼리 또는 가족끼리 여행을 한다면 최대한 같은 색과 모양의 가방을 갖추는 게 좋다. 일단 같은 색과 모양이면 공항 수화물 직원들이 같이 모아서 운반하고, 양옆으로 또는 위아래로 쌓아 올리기에 훨씬 편하기 때문이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일행 중 한 명의 짐만 안 나오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과하지 않게

여행가방에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으면 가방을 던지거나 운반할 때 압력에 못 이겨서 가방의 지퍼가 터지거나 열리게 된다. 가방이 한번 터지면 짐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럴 때면 누구나 멘붕이 되기 일쑤다. 과유불급,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 너무 과하지 않게, 꼭 필요한 짐만 싸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 가득 채우기

여행가방은 '터질 듯이'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득'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은 여행지에서 사 올 선물이나 쇼핑거리들을 담아올 공간을 남겨 가는 일이 많은데, 그 대신 신문지나 에어캡 등으로 일단 채워준다. 공간이 남을수록 가방이 파손되는 확률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수화물을 찾을 때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 이름과 연락처

여행가방에는 필수적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이런 것이 없는 백들은 만약 에라도 분실되거나 다른 비행기로 가버렸으면 주인을 찾을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무조건 열어서 속옷이든 뭐든 다 뒤지는 것뿐. 이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귀찮더라도 이름과 주소 그리고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한다.

## 비행기 안에서



### 휴대용 가방

여권은 해외여행자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필수 준비물! 지갑에는 현금, 체크·신용카드, 국제학생증, 국제면허증 등을 소지해야 한다. 여분의 마스크와 100ml 이하의 손소독제 등 개인의 위생과 안전은 필수다. e-티켓 및 바우처 등은 핸드폰 앱에서 바로 QR코드나 바코드로 가능하지만 혹시 모르니 사전에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 비행중 가방

목베개, 안대, 귀마개 등은 편안한 비행은 물론 숙면에 도움을 준다. 또한 기내 반입 기준에 적합한 수분크림, 립밤, 얇은 스카프 등은 건조하고 서늘한 기내에서 체온 유지 및 피부 보호에 도움이 된다. 빠른 입국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볼펜, 씹는 치약은 국제선 액체류 반입 규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 편리하다.

### 기내 반입 금지

보통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바로 배터리.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160Wh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여분 리튬메탈 배터리 또는 일반용 전자장비에 장착된 리튬메탈 배터리의 리튬함량이 2g을 초과하는 경우는 기내 반입은 물론 위탁수하물 반입도 금지된다. 단, 연고, 감기약, 소화제 등 비상약은 가능하다.

### 짐은 25kg 이하

여행가방 무게가 25kg이 넘어서는 짐들은 일단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공항 수화물 직원들로부터 완전히 '무례'를 당하기 쉽다. 아무렇지도 않게 던져버리거나 무게가 실려서 그런지 더 구석으로 날아간다. 거기다가 비행기가 도착해 짐을 꺼낼 때도 무거운 것들은 일부러 나중에 꺼내는 경향도 있다.

### 예전 태그는 아웃

예전에 여행으로 다녀온 수화물 태그는 미리미리 여행가방에서 떼어내는 게 좋다. 짐을 실을 때 날짜와 도착지를 확인하는 데 훨씬 많은 불필요한 시간이 들어가고, 가끔은 아예 다른 도착지로 보내버리기 때문이다. 실제로 프랑스로 파리를 갈 공항에서는 하루 60여 개의 짐들이 이전 태그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다.

### 끈 쪼여 매기

보통은 공항에서 체크인 때 끈이 풀어져 있는 상태라면 공항 수화물 칸에서 알아서 꼭 매준다. 하지만 가끔 잘 보이지 않거나 어설픈게 묶여 있어서 중간에 풀리면 운송시 벨트에 걸려 가방과 함께 같이 찢어져 나가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다. 하나가 걸리면 모든 수화물도 울스톱! 지루한 기다림은 다 이유가 있는 법이다.







대출금리, 예금금리..  
0.1%면 어디야..

월급통장 금리는  
왜 안 따져본대?

연 3% 파킹 금리로  
매월 이자 지급 혜택

축의금 대신 내달라고 하는 사람 꼭 있죠  
수수료가 1,300원이면...

타행 ATM  
출금수수료  
무제한 면제

연3%

0원

# 슬그머니 돈이 쌓인다

## 중소기업 직장인의 통장테크

###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전월 50만 원 이상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당월(1일~2일)에 우대혜택 제공

<b>금리 우대</b> 연 3.0% (*23.6.30 현재, 세전) 매일 최종잔액 기준 300만 원 이하	<b>수수료 무제한 면제</b> 당행자동회기타 타행이체수수료, 타행자동이체수수료 타행자동회기타 출금수수료,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	------------------------------------------------------------------------------

\* 300만 원 초과금액은 고시금리 연 0.1%(세전) 적용, 매일 두 번째 토요일 결산 후 익일에 이자지급

###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

계약기간 12개월, 최소 1만 원 이상 월 50만 원 이내 적립

<b>최고 연 5.7%</b> (*23.6.30 현재, 세전) 고시금리 연 3.5%, 우대금리 최고 연 2.2%p 우대금리 제공기준: 급여이체 실적 보유 시 연 1.0%p, 중소기업 근속기간에 따라 최고 연 1.2%p
------------------------------------------------------------------------------------------------------------------------------------

\* 만기일시지급-만기(후)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불 지급

※ 중립금리인상인식일 제2023-3149(2023.06.30) 유효기간제2023.12.31, 은행연합회 승인일 제2023-00876호 ※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계좌에 원유, 가압유, 잠금설정 등 특별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상기 내용은 유역본으로 지제한 사항은 가까운 IBK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06)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IBK중기근로자급여파킹통장 및 IBK중기근로자우대적금은 예외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고,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통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보장한도'이며, 보장한도를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서비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융 상품을 받지 않습니다. 물리경영 위반 사안이나, 개인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2-729-7490, e-mail: bkethics@ibk.co.kr)



62  
IBK 창립 62주년